

발 간 등 록 번 호

52-6261662-000002-01

최종보고서

부산지역 도서관 활성화 계획 연구

부산도서관 장서개발지침(분담수서 등) 수립 관련

2022. 8



부산도서관

Busan Metropolitan Library

제 출 문

부산도서관장 귀하

본 보고서를 「부산지역 도서관 활성화 계획 연구 -
부산도서관 장서개발지침(분담수서 등) 수립 관련」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 8

연구수행기관 :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 강은영 (신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 김선애 (경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연구보조원 : 장효진 (경성대학교 문헌정보학 석사)

최준화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 석사)

김지선 (신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부과정)

목 차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1.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내용과 주요 방법	5
2. 1 연구의 내용	5
2. 2 연구의 주요 방법	6
3. 연구의 기대효과	7

II 장서개발지침 관련 문헌조사 및 기초자료

1. 국내외 장서개발지침 관련 사례 분석	9
1. 1 국내 장서개발지침 관련 사례	9
1. 2 국외 장서개발지침 관련 사례	20
1. 3 국내외 장서개발지침 사례 요약 및 시사점	27
2. 공공도서관의 디지털자료 수집추이 분석	32
2. 1 국내 공공도서관	32
2. 2 국외 공공도서관	34
2. 3 시사점	37
3. 국내 출판현황 분석	38
3. 1 발행현황	38
3. 2 출판 산업 현황	41
3. 3 시사점	45

III 부산도서관의 기본방향과 현황

1. 부산도서관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적 목표	47
1. 1 부산도서관의 중장기 비전	47
1. 2 부산도서관의 기본 방향과 목표	49
2. 부산도서관 장서의 수집·이용·보존현황 분석	54
2. 1 자료 현황	54
2. 2 지역자료 현황	60
2. 3 이용 현황	61
2. 4 이관 현황	65

IV 부산도서관 장서개발지침의 기본방향과 원칙

1. 장서개발지침의 목적과 기본모형	67
2. 장서개발지침의 기본방향	69
3. 장서개발지침의 기본원칙과 대상	71
3. 1 장서개발의 기본원칙	71
3. 2 장서개발의 대상	72
3. 3 장서개발의 방법	73

V 부산도서관 장서개발 기본지침

1. 수집방법별 지침	75
1. 1 납본	75
1. 2 구입	77
1. 3 기증	80
1. 4 이관	82
1. 5 국제교환	84
2. 자료유형별 지침	85
2. 1 일반자료	85
2. 2 온라인자료	99
2. 3 특수범주자료	106

2. 4 어린이·청소년자료	110
2. 5 부산학자료	114
3. 주제별 지침	119
3. 1 총류	121
3. 2 철학	123
3. 3 종교	124
3. 4 사회과학	126
3. 5 자연과학	130
3. 6 기술과학	132
3. 7 예술	134
3. 8 언어	137
3. 9 문학	139
3. 10 역사	141
4. 자료이관·보존 및 제적·폐기 지침	143
4. 1 자료이관지침	143
4. 2 자료보존지침	147
4. 3 자료제적·폐기지침	152
5. 부산시 공공도서관 특성화 및 분담수서 방안	155
5. 1 국내 공공도서관 특성화 사례	155
5. 2 부산시 공공도서관 특성화자료 분담주제관 현황	158
5. 3 부산시 공공도서관 특성화 정책 추진(안)	161
5. 4 부산시 공공도서관 분담수서(안)	164

VI 요약 및 결론

1. 요약	169
2. 결론	171

<참고문헌>	173
--------------	-----

표 차 례

[표 1]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의 구성과 내용	10
[표 2] 국립세종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기본모형(안)의 구성과 내용	12
[표 3] 서울도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의 구성과 내용	14
[표 4] 충남도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의 구성과 내용	17
[표 5] 울산도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의 구성과 내용	18
[표 6] 경남대표도서관 장서관리 규정의 구성과 내용	20
[표 7]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공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구성 및 내용	21
[표 8] 미국 보스턴 공공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구성 및 내용	22
[표 9] 뉴욕주립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구성과 내용	24
[표 10] 캐나다 토론토 공공도서관 자료선정 정책의 구성 및 내용	25
[표 11] 영국 버밍엄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구성 및 내용	26
[표 12] 국내외 장서개발지침 사례 요약	27
[표 13] 국내외 도서관 장서개발지침 비교	30
[표 14]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1관당 자료유형별 자료구입비	32
[표 15] 주요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비 현황	33
[표 16] 주요 공공도서관의 자료유형별 소장현황	34
[표 17] 미국 공공도서관의 자료유형별 소장현황	35
[표 18] 국외 주요 도시 공공도서관의 전자자료 현황	36
[표 19] KPIPA 연간 발행통계(2016-2020)	38
[표 20] KPIPA 연간 발행실적별 출판사 수(2019-2020)	40
[표 21] 콘텐츠산업 규모 내 출판산업 현황(2018-2020)	42
[표 22] 10년간 도서출판 시장규모 추이(2011-2020)	43
[표 23] 전자책 플랫폼 부분 주요 기업의 3년간(2019-2021) 매출액 규모	44
[표 24] 수입구분별 장서현황	54
[표 25] 2021년도 자료구입 현황	55
[표 26] 2022년도 주제분야별 장서구입계획(안)	56
[표 27] 도서의 주제별 현황	57

[표 28] 비도서자료의 주제별 현황	57
[표 29] 자료의 유형별·매체별 현황	58
[표 30] 구독형 온라인자료(Web DB) 현황	59
[표 31] 납본 현황	60
[표 32] 기증자료 주제별 현황	61
[표 33] 기증 주체	61
[표 34] 책이음 회원 현황	62
[표 35] 자료실 자료 이용(대출) 현황	63
[표 36] 대출자 유형별 자료 이용 현황	64
[표 37] 구독형 온라인자료(Web DB) 이용현황	64
[표 38] 이관자료 주제별 현황	65
[표 39] 도서관 집서수준의 포맷별 및 특성별 결정기준	120
[표 40] 부산도서관의 주제별 장서개발 수준 지침	121
[표 41] 안양시와 수원시의 도서관별 장서특화 현황	155
[표 42] 강남 구립 공공도서관 특성화 주제 분담현황	156
[표 43] 부천시 도서관 장서특화 현황	157
[표 44] 지역대표도서관 장서특성화 사례	158
[표 45] 부산시 공공도서관의 특성화주제 현황	159
[표 46] 부산시 특성화주제 미지정 공공도서관 현황	161
[표 47] 특성화 정책에서 제외하는 도서관(안)	162
[표 48] 부산시 공공도서관의 특성화주제 분담주제관 제안(안)	164
[표 49] 부산시 공공도서관 분담수서 단계별 실시(안)	166
[표 50] 부산시 공공도서관 분담수서를 위한 분담주제	167

그림 차례

[그림 1] KPIPA 발행통계 분야별 발행 종수 추이(2016-2020)	39
[그림 2] 2020년 KPIPA 분야별 발행 종수	40
[그림 3] 2021년 상반기 발행실적별 출판사 비중	41
[그림 4] 부산도서관의 중장기 비전	49
[그림 5] 부산도서관의 사명	50
[그림 6] 부산도서관 장서개발지침 모형	68

|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도서관법」 제22조1항에 따르면, 지역대표도서관은 해당지역의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그 역할로 설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역할은 아래와 같음
 -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 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 지역의 도서관 자료 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 자료의 보존
 -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 자료 수집 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 그 밖에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필요한 업무

- 2020년 11월 개관한 부산도서관의 본질적, 사회적 정체성은 부산시 지역대표 도서관, 지역 주민들의 종합지식정보센터, 부산시 정책도서관, 단위 도서관의 지원·협력센터, 보존서고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부산학 자료를 집적하는 연구도서관임
- 이러한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해 부산도서관은 지난 1년 7개월간 부산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식정보서비스와 교육·문화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 지역도서관(교육청-지자체) 통합 웹서비스 플랫폼 구축, 지역자료 납본센터 운영, 부산관련자료 수집 및 제공, 1개의 홈페이지(도서관포털)로 부산시 도서관 도서 및 행사 정보이용, 1개의 전자도서관 : 1개 전자자료 구입으로 부산시민 전체 이용, 도서관 책임 음서비스 차량 운영(매일 개별 도서관 방문, 도서 반납), 전국 최초 교육청-지자체 보존서고 운영 등 활발한 활동을 수행해 왔음
- 그러나 부산도서관이 지역 주민들의 종합지식정보센터이자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발전계획에 입각한 장서개발지침을 수립하고 실무에 적용해야 함
- 특히, 「2021 국민독서실태조사」에 의하면, 만19세 이상 성인 중 지난 1년 동안(2020년9월~2021년8월) 종이책(교과서, 학습참고서, 수험서 제외)을 ‘한 권 이상 읽었다’라는 비율은 40.7%로 2019년(52.1%) 대비 11.4%p 하락함. 학생의 연간 독서율은 87.4%(초93.2%, 중87.0%, 고82.1%)로, 지난 2019년(90.7%)에 비해 3.3%p 하락함
 - 지난 1년 동안 전자책(교과서, 학습참고서, 수험서 제외, 웹 소설 포함)을 ‘한 권 이상 읽었다’라는 성인의 비율은 19.0%로, 2019년(16.5%) 대비 2.5%p 증가함. 새로운 매체에 빠르게 적응하는 20~30대의 전자책 독서율이 30%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학생의 전자책 독서율은 49.1%(초48.9%, 중50.9%, 고47.4%)이며, 중학생의 전자책 독서율이 가장 높음. 학생 평균 전자책 독서율은 2019년 (37.2%) 대비 11.9%p 증가함

- 지난 1년 동안 오디오북(교과서, 학습참고서, 시험서 내용 및 라디오, 팟캐스트 방송은 제외)을 한 권 이상 들은 성인의 비율은 4.5%로 20~30대,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오디오북 독서율(청취율)은 종이책이나 전자책의 독서율에 비해 낮은 수준임. 학생의 오디오북 독서율(청취율)은 14.3%(초23.3%, 중11.6%, 고7.8%)이며, 초등학생의 오디오북 독서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연간 종이책 독서량은 성인 2.7권, 학생 24.8권으로 성인·학생 모두 감소하였으며, 전자책 연간 독서량은 성인 1.5권, 학생 8.2권으로 2019년 대비 증가함
- 종이책이나 전자책을 읽은 비율은 성인 46.9%, 학생 91.9%로 성인·학생 모두 감소함
- 지난 1년간(2020년 9월~2021년 8월) 도서관을 이용한 적이 있는 성인과 학생만을 대상으로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학생은 학교 밖 도서관 대상)의 유형을 알아본 결과, 성인 학생 모두 ‘공공도서관’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성인89.4%, 학생63.7%), 이어서 성인은 ‘대학도서관’(21.9%), ‘학교도서관’(16.1%) 등의 순이고, 학생은 ‘작은도서관’(25.7%), ‘어린이도서관’(7.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도서관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국민의 독서량과 독서 형태의 변화를 반영해 국민의 독서 진흥을 위해서 본격적인 전자책이나 오디오북 서비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임. 더불어 국민의 전 세대에 이르러 타 관종에 비해 공공도서관의 이용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공공도서관은 더 나은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또한, 부산도서관은 자료수집 및 대출서비스 방법에서 단위도서관과의 상이성과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에 기반하여, 전술한 모든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장서확충계획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

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

1.2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부산도서관이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그 본질적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장서개발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에 도서관 장서개발 전 과정을 아우를 수 있도록 수집방법별 지침, 자료유형별 수집 지침, 주제별 지침, 자료보존 및 제적·폐기 지침, 부산시 공공도서관 특성화 및 분담수서방안 등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제안함

2. 연구의 내용과 주요 방법

2.1 연구의 내용

2.1.1 장서개발지침 관련 기초자료 분석

- 국내외 장서개발지침 사례
- 국내외 공공도서관의 디지털자료 수집추이
- 국내 출판현황 분석

2.1.2 부산도서관 장서개발지침의 기본방향과 원칙

- 부산도서관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적 목표
- 부산도서관 장서현황 분석
- 부산도서관 장서개발지침의 목표와 기본방향

2.1.3 부산도서관 장서개발지침 모형 수립

- 장서개발의 범주와 전략
- 장서개발지침의 원칙과 기본모형
- 장서개발지침 세부지침
 - 수집방법별(납본, 구입, 기증, 이관, 국제교환) 지침
 - 자료유형별(일반자료, 온라인자료, 특수범주자료, 어린이·청소년자료, 부산학자료) 지침
 - 주제별 장서개발 지침
 - 자료보존 관리 및 제적, 폐기에 관한 지침
 - 부산시 공공도서관 특성화 및 분담수서 방안

2.2 연구의 주요 방법

2.2.1 문헌조사

- 부산도서관 장서개발지침 수립에 필요한 이론적 정보와 관련자료(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정책문서, 통계데이터 등) 검토

2.2.2 사례조사

- 국내외 주요 관공의 장서개발지침(국내 지역대표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장서개발지침, 국외 대규모 공공도서관의 장서개발지침), 기타 운영 규정과 자료선정기준 등 우수사례 검토
-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세종도서관의 장서개발지침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해당 지침을 토대로 하여 지역대표도서관 성격에 적합한 모형 도출

2.2.3 부산도서관 장서개발 실무자 조사

- 부산도서관 장서개발 실무자들과의 토의와 자문을 통해 장서개발지침 개발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면담 조사
- 수시로 장서개발지침 내용에 대한 피드백

2.2.4 연구팀 브레인스토밍 및 전문가 의견수렴

- 연구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연구수행에 적합한 연구 방법 선정과 조사 결과 논의를 통해 체계적인 지침 수립
- 장서개발지침 모형에 대한 도서관 및 출판계 전문가 의견수렴

3. 연구의 기대효과

- 장서개발지침은 도서관의 목적, 목표, 이용자의 요구, 자료구입예산 등을 반영한 장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기 위한 성문규정으로 도서관이 장서개발 활동을 보다 일관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전개해갈 수 있는 도구임
-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실시되는 현황분석과 장서개발지침 우수사례 등을 기반으로 하여 제시되는 장서개발지침 모형은 부산도서관의 장서 확충 세부 계획 및 지침을 수립하기 위한 주요한 데이터가 될 것이며, 부산도서관의 체계적인 장서 구성의 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임

II 장

장서개발지침 관련 문헌조사 및 기초자료

1. 국내외 장서개발지침 관련 사례 분석

1.1 국내 장서개발지침 관련 사례

1.1.1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대한민국의 지적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한국인의 지식 정보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외 지식 정보의 포괄적 수집, 안전한 보존, 신속한 제공을 통한 문화 선진국 지식 강국화에 기여'해야 할 사명이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의 목적은 국립중앙도서관(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포함)의 장서개발과 보존·관리를 위한 기준을 제공하고 우선순위를 제시하며, 다양한 주제·언어·유형별로 개발 기준을 설정하여 미래 장서개발을 위한 일관성과 견고한 기초를 확립하는 데 있음

음. 이를 통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장서개발에 대한 열정과 의지, 국가 장서의 안전하고 과학적인 보존·관리 등에 대한 책무 수행을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개발지침으로 대내외에 천명함

■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개발지침 수립의 7가지 기본방향¹⁾

- 이념적 기초: 국가대표도서관, 납본도서관, 보존도서관, 디지털도서관
- 지침의 범위: 장서관리의 자료선정에서 제적·폐기까지
- 대상 자료의 범주: 하이브리드형 정보자료= 일반자료+온라인자료
- 자료개발방법: 전통적 수집방법+디지털 장서개발
- 장서개발 수준: 국가장서로서의 중요성 및 수집 강도의 자료유형별, 매체별, 주제별 기호화
- 수혜(이용)집단: 목표 집단의 주제별 차등화
- 벤치마킹: 주요 국가도서관 장서개발지침

<표 1>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의 구성과 내용

구성	내용
서문	- 도서관의 사명과 책무 - 장서개발지침의 목적과 기본방향
장서개발의 대상, 주체, 방법	- 장서개발의 대상 - 장서개발의 주체와 책임 - 장서개발의 방법: 납본, 구입, 수증, 국제교환, 매체변환, 제작, 기타
장서개발의 수집단계와 우선순위	- 5단계 수집단계를 우선순위로 적용하여 국가 장서를 개발함(보존수집, 완전수집, 혼합수집, 보완수집, 분담수집) - 다만 자료의 유형과 매체, 주제, 언어(국가), 기대수명에 따라 우선순위를 달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통적 또는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장서개발의 기본지침	- 국내자료: 적용대상과 기본지침, 일반자료, 온라인자료, 특수범주자료, 어린이·청소년자료, 정책자료 개발지침 - 다국자료: 적용대상과 기본지침, 일반자료, 온라인자료, 특수범주자료, 어린이·청소년자료, 정책자료 개발지침

1) 국립중앙도서관. 2021.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구성	내용
장서개발의 세부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방법별 세부지침: 납본, 구입, 수증, 국제교환·기탁, 매체변환, 자체수집 - 자료유형별 세부지침: 일반자료, 온라인자료, 특수범주자료, 어린이·청소년자료, 정책자료
보존·관리 및 제적·폐기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지침 - 자료보존·관리 세부지침 - 자료제적·폐기 세부지침
주제별 집서수준의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지침 - 주제별 집서수준 지침: WLN, LC, NDL의 컨스펙터를 원용하여 국가장서의 집서수준(현재의 장서수준, 미래의 수집의지와 수집목표, 보존의지의 강도와 심도)을 5단계, 즉 최소수준(Minimal Level), 기본정보수준(Basic Information Level), 학습교육지원수준(Study or Instructional Support Level), 연구수준(Research Level), 포괄적수준(Comprehensive Level)으로 구분하여 주제별 장서개발에 적용함 - 주제별 자료의 포맷 및 특성별 기준 제시 - 도서관의 주제별 및 유형별 집서수준 제시
장서개발지침 보완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정책, 사회 환경, 지식 정보의 생산·유통 패러다임, 이용자 정보요구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수정·보완함

1.1.2 국립세종도서관

- 2013년 행정도시 세종시 중심에 개관한 국립세종도서관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책 수립·수행·평가 등 정부의 정책 과정을 지원하고 도서관 이용자들의 복합문화공간 역할 수행
- 국립세종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수립 연구에서 정책정보 특화 도서관, 세종시 거주자를 위한 공공도서관, 세종시 지식문화기반시설이라는 복합적 정체성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미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통합형 장서개발정책을 수립·제안

- 국립세종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기본모형은 총 11개 영역(서문, 장서개발의 주제와 대상, 장서개발 기본지침, 정책사이클별 개발지침, 수집방법별 개발지침, 자료유형(매체)별 개발지침, 언어별 및 생산주체별 개발지침, 주제별 개발 및 집서수준지침, 국가장서 보존관리지침, 전략적 협력개발지침, 장서개발정책 관리주체 및 개정 주기)으로 구성하여 제안
- 국립세종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기본모형에 따른 세부지침은 ‘정책정보 개발, 일반자료 개발, 국가장서 보존관리’로 구분하되, 정책정보 개발은 기본원칙, 수집기준, 수증기준(관리 위탁 포함), 다운로드 및 아카이빙기준으로, 일반자료 개발은 기본원칙, 수집기준, 자료유형 및 매체별 기준, 주제별 기준으로, 국가장서 보존관리는 기본원칙, 자료보존관리기준, 자료제적 및 폐기기준으로 각각 세분하여 제시

<표 2> 국립세종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기본모형(안)의 구성과 내용²⁾

구성	내용
서문	- 도서관의 사명과 책무, 장서개발정책의 이념과 가치, 장서개발정책의 목적과 범위
장서개발의 주제와 대상	- 특화형 정책정보 및 대중용 일반자료 개발, 관련 예산의 집행·관리 주체와 책임과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밝힘 - 장서개발 대상을 정책사이클, 수집방법, 자료유형, 수록 매체, 언어와 생산주체, 주제로 나눔
장서개발의 기본지침	- 특화형 정책정보와 대중용 일반자료를 개발할 때 적용하는 기본지침과 우선순위
정책사이클별 개발지침	- 정책의 의제화, 정책의 수립과 집행, 정책의 평가와 피드백 단계별 개발지침
수집방법별 개발지침	- 국내자료의 구입 및 납본수집, 국내 미납본 자료의 구입과 수증, 소급 정책자료의 복사·영인 제작, 외국 정책정보의 구입 및 라이선스 확보, 인터넷 정보자원의 다운로드와 디지털 아카이빙 등 적용

2) 국립세종도서관. 2017. 『국립세종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수립 연구』. 세종: 국립세종도서관.

구성	내용
자료유형(매체)별 개발지침	- 도서, 연속간행물, 시청각 및 마이크로자료, 지도·사진 자료, 전자자료로 나누어 제시
언어별 및 생산주체별 개발지침	- 언어별 정책자료, 생산주체별 정책자료 개발의 대상과 지침
주제별 개발 및 집서수준 지침	- 10가지 주제별 일반자료 및 정책자료 개발수준 지침
국가장서 보존관리 지침	- 보존관리지침과 제적·폐기지침
전략적 협력개발 지침	- 국내외 정책정보 개발을 위한 협력시스템구축 - 정책정보개발과 공유기능 강화 - 국제적 협력 강화
장서개발정책의 관리주체 및 개정주기	- 장서개발정책은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자료과가 주관 - 검토와 개정 절차 - 5년 주기로 수정·보완

1.1.3 서울도서관

- 2018년 6월 ‘지식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 2022년까지 서울시의 특성과 공공도서관 현황을 반영한 성문화된 장서정책 수립을 위해 장서구성의 우선순위, 효율적인 예산 배분, 장서관리규칙, 협력방안 제시를 목표로 광역-기초의 역할을 규정한 서울시 차원의 장서개발정책 수립 예정
- 현재 장서개발정책은 ‘서울도서관 운영 규정’³⁾(2021년 3월)의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름. 서울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별표 1’ 서울도서관 자료 선정기준에서 자료의 일반적 선정기준, 고문헌과 귀중(희귀)서의 선정기준, 자료의 보존기준, 비도서자료 선정기준, 이용자 희망도서, 수증·기증 및 교환자료 등 6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표 3>과 같음

3) “2021 서울도서관 운영 규정” 서울: 서울도서관.

- 자료의 일반적 선정기준
 - 자료선정의 원칙과 추천자료의 선정 근거(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기타 권위 있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료는 최대한 선정)를 제시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와 각 자치구, 기타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자료와 국내외에서 발간된 서울시에 관한 자료는 최우선으로 입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서울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별표 2' 자료기증 처리기준은 목적, 정의, 기증 절차, 선정 및 제외기준, 기증자에 대한 예우, 선정 제외 기증 자료 처리 등을 제시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선정 및 제외기준은 '별표 1' 서울도서관 자료선정 기준의 '수증·기증 및 교환자료'의 등록기준에 준하여 도서관 자료로서의 보존·관리 및 자료 이용 가치, 이용자 요구 등을 고려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서울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별표 3' 서울도서관 자료 폐기 및 제적 기준은 일반적 기준, 비도서자료, 연속간행물, 회수불능 또는 소재 미확인자료, 주제별 기준(총류자료, 인문·사회과학자료, 자연과학자료) 등 5개로 구분하여 세부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특히 주제별 기준에서 백과사전, 사전, 편람, 연감, 각종 서지 등을 포함한 총류자료, 법학·행정학 분야 등 빈번하게 개정되는 기본도서로 20년이 경과된 자료, 부동산, 시국해설, 대학 명감, 연구 지침에 관한 자료로서 10년이 경과된 자료, 순수과학의 제이론 및 방법론에 관한 자료로서 역사적 연구에 중요하지 않은 10년이 지난 자료 등에 대한 폐기를 명시하고 있음

<표 3> 서울도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의 구성과 내용

구성	내용
제1조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서개발을 위한 자료의 선정·수집·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규정 - 장서개발 및 보존관리에 대한 정책적 의지 표명 - 장서개발과 도서관의 사명, 목적, 목표 등의 상관관계에

구성	내용
	<p>대한 이해 촉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직원의 장서개발 기본원칙 및 추진전략 등에 대한 인식 공유 - 장서개발의 중장기 목표인 장서수준(collection level)에 대한 준거로 활용 - 자료선정에서 보존관리, 제적·폐기까지의 일관성과 지속성 유지 - 자료의 선정, 등록, 서고관리, 제적·폐기, 개인문고 등의 실무기준으로 활용 - 장서구성에서의 자료유형, 주제, 이용집단별 편향성 차단 내지 최소화 - 자료예산 배정에서의 선택과 집중, 우선순위 등에 대한 근거 확보 - 신입 직원 및 담당자의 교육훈련 및 역량개발, 장서관리 평가도구로 활용 - 자료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과 홍보자료로 활용 - 이해관계집단(지역주민, 이용자, 행정기관, 매스컴 등)과의 커뮤니케이션 수단 -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설명책임 이행과 인식도 제고
제2조 용어정리	- 선정, 수집, 이관, 제적, 폐기
제3-9조 자료선정위원회	- 기능, 구성, 회의, 간사, 서면결의, 운영규칙
10조-11조 기준	- 선정기준, 기증자료 처리기준
12조 장서점검	- 장서점검 계획 수립
13조 교환과 이관	- 복본, 소장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자료
14조 폐기, 제적	- 대상자료

1.1.4 충남도서관

- 충남도서관은 충남의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역에서 지식과 정보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수행하며, ‘충남도서관 장서개발 지침(안)’이 있음(충남도서관, 2018). 2018년에 마련된 지침은 총 9장(개요, 목적 및 필요성, 봉사 대상 현황, 장서개발 기준 및 목표, 자료관리, 장서구성, 장서평가, 장서폐기, 갱신주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표 4>와 같음
- 자료 선정기준에서 자료의 일반적 선정기준, 자료의 보존기준, 비도서자료 선정기준, 이용자 희망도서, 기증 및 교환자료 등 5개 기준을 제시
-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기준에서 일반적 기준, 비도서자료, 연속간행물, 회수불능 또는 소재 미확인자료, 주제별 기준 등 5개로 구분하여 세부 지침을 제시
-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별표 1’ 충남도서관 자료 선정기준에서 자료의 일반적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사회 각계각층에 봉사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선정을 원칙으로 하며 최신성을 위하여 신간자료 우선으로 선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추천자료의 선정 근거(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기타 권위 있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료는 최대한 선정)를 명시하고, 외국 자료 및 어린이 자료선정 시 고려사항을 제시함. 또한 충청남도 및 각 시군, 기타 충청남도 소재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자료와 국내외에서 발간된 충청남도에 관한 자료는 최우선으로 입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충남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별표 2’ 충남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기준에서 일반적 기준, 비도서자료, 연속간행물, 회수불능 또는 소재 미확인자료, 주제별 기준 등 5개로 구분하여 세부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일반적 기준으로는 이용 가치를 상실한 자료, 중복되는 자료, 개정판이 나왔음

경우, 결본, 오손 또는 훼손자료, 보존기간이 지난 자료 등 세부 지침을 제시

- 주제별 기준에서는 총류자료, 인문·사회과학자료, 자연과학자료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제시

<표 4> 충남도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의 구성과 내용

구성	내용
개요	- 근거, 적용 기간·대상, 주요 내용(목적, 장서확충 및 자료구성, 특성화 등)
목적 및 필요성	- 장서균형 및 일관된 정책 수립 - 효율적 예산집행, 자료선정·평가·관리·폐기기준 마련 등 - 지역대표도서관, 내포신도시 교육·독서문화 제고와 자료 특화 - 매년 장서확충 계획의 기본방침 역할
장서개발 기준 및 목표자료의 관리	- 근거(도서관법 시행령, 한국도서관기준, 전국도서관 평가기준)와 장서확충 목표
장서구성	- 구성비, 기본방침, 자료유형별·주제
장서평가	- 장서점검, 불용·복본자료 처리 등
장서폐기	- 목적, 시기, 기준, 절차, 폐기 처리
갱신주기 및 담당자	- 5년 주기로 개정

1.1.5 울산도서관

- 울산도서관은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복합 문화·교육 공간, 지역 내 공공도서관 총괄 지원 도서관, 지식 정보 허브를 지향하며 울산 지역 특성화 자료를 확보, 제공하고 지역도서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자료선정기준은 별표에서 6가지(일반적 선정기준, 고서와 귀중본, 보존기준, 비도서자료, 이용자 희망도서, 기증 및 교환자료)를 규정함. 특히, 일반적 선정 기준에서 울산시와 각 기초자치단체, 기타 울산시 소재 공공기관이 발간한 자료와 국내외에서 발간된 울산에 관한 자료를 최우선 입수하도록 명시함

- 폐기·제적기준은 별표에서 5가지(일반적 기준, 비도서자료, 연속간행물, 회수불능 또는 소재 미확인자료, 주제별 기준)로 구분하였고, 주제별로는 3개 영역(총류,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으로 나누어 제시함
- 울산도서관은 「울산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⁴⁾에 장서개발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며 세부 내용은 <표 5>와 같음

<표 5> 울산도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의 구성과 내용

구성	내용
제1조 목적	- 효율적 장서개발
제2조 정의	- 선정, 수집, 이관, 폐기, 제적, 기증자료
제3조-11조 자료선정위원회 설치	- 설치, 기능, 임기, 회의, 간사, 서면결의, 수당 등, 운영세칙
제12조 자료선정기준 (별표1)	- 일반기준, 고서와 귀중본, 보존기준, 비도서, 희망도서, 기증·교환자료
제13조 이용불능자료	- 별표 2(회수불능자료 제적)
제14조 기증자료	- 자료기증 동의서 등
제15조 장서점검	- 2년에 1회 점검
제16조 자료의 교환과 이관	- 자료의 교환·이관기준
제17조 자료폐기·제적 (별표 2)	- 일반, 비도서, 연간물, 회수불능·소재 미확인자료, 주제

4) “2020 울산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울산광역시: 울산도서관.
[http://library.ulsan.go.kr/viewer/skin/doc.html?fn=BBS_202006041011544461&rs=/viewer/result/]

1.1.6 경남대표도서관

- 경남대표도서관은 장서개발지침은 없고, 「경남대표도서관 장서관리 규정」⁵⁾이 있다. 총 8조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 내용은 <표 6>과 같음
- 도서관 진흥을 위한 협력·지원, 경남통합전자도서관 구축·운영, 개인적 독서에 서 사회적 독서로의 전환 토대를 마련하는 올해의 책 함께 읽기 등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반을 확립하고 지역 독서문화 발전을 선도함
- 경남대표도서관은 경남대표도서관 장서관리 규정에 제시된 장서구성 기본방침, 자료선정, 기증자료 처리,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기준에 따름
- 경남대표도서관 장서관리 규정의 장서구성 기본방침에서는 각 주제별 장서의 균형 유지, 어린이 도서관의 장서 내 구성 비율(30% 내외), 특성화 자료 및 장애인 대체자료의 장서 내 구성 비율(10% 범위 내)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비도서 자료는 자료 이용 실정에 맞추어 구성하며, 신간자료는 우선 구입하고, 이용자 희망도서는 최대한 반영하는 것을 명시함
- 경남대표도서관 장서관리 규정의 자료선정기준에서는 자료의 유형별, 주제별 선정기준과 자료선정 제외기준을 명시함. 자료의 유형별 선정기준에서는 일반 도서, 어린이도서, 연속간행물 및 비도서자료에 대한 선정기준을 제시함. 또한 자료의 주제별 선정기준에서는 종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로 나누어 선정기준을 제시함. 자료선정 제외기준에서는 유형별 선정 제외 자료와 내용별 선정 제외 자료를 명시함
- 경남대표도서관 장서관리 규정의 자료 폐기 및 제적 기준에서는 폐기 및 제적의 범위와 일반기준을 제시하고, 주제별 폐기 및 제적 기준은 종류 및 참고자

5) “2022 경남대표도서관 장서관리 규정” 창원: 경남대표도서관.
[https://lib.gyeongnam.go.kr/index.lib?menuCd=DOM_000000207004000000]

료, 인문·사회과학자료, 자연·기술과학자료, 오·웹손자료, 대체 가능한 자료 등을 포함하여 명시하고, 폐기나 제적의 절차와 방법을 간략히 제시

<표 6> 경남대표도서관 장서관리 규정의 구성과 내용

구성	내용
제1조 목적	- 체계적·일관적 장서관리, 최적 유지
제2조 정의	- 선정, 수집, 이관, 제적, 폐기
제3조 장서구성 기본방침	- 주제별 균형, 어린이도서·특성화·대체자료 구성비
제4조 자료선정	- 일반적, 자료유형별, 주제별 기준, 제외기준
제5조 희망도서 처리	- 신청방법 등
제6조 기증자료 처리	- 자료기증서 등
제7조 장서점검	- 정기적(시기는 별도로 정함)
제8조 자료의 폐기 및 제적	- 일반, 제적·폐기대상 자료, 주제별 기준

1.2 국외 장서개발지침 관련 사례

1.2.1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공도서관(San Francisco Public Library)

- 샌프란시스코 공공도서관은 정보, 지식, 독자적 학습, 독서의 즐거움을 위해 다양한 커뮤니티에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장서 개발계획을 수립·적용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표 7>⁶⁾과 같음

6) San Francisco Public Library (2016, september 30). San Francisco Public Library Collection Development Plan

<표 7>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공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구성 및 내용

구성		내용
서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서개발계획의 목적 - 지역사회와 도서관 : 지역사회의 요구 충족을 위한 도서관의 노력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샌프란시스코 공공도서관의 사명 - 도서관의 사명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로서의 장서 개발정책
장서	메인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인도서관의 각 센터와 센터 별로 포함되는 자료에 대한 간략한 개요, 특징, 소장 장서의 범위와 유형 등
	분관 및 이동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7개의 분관 및 이동도서관별 중점 수집 자료 대상 이용자 형태별 수집 자료 등
	전자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자료의 정의, 수집대상 전자자료, 전자자료 수집 기준, 외부 웹사이트 연결 시 고려사항, 도서관 소장 자료의 디지털화 등
선정 및 유지	장서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에 대한 요구 정도에 따른 5단계(0~4)의 수집 수준을 명시
	선정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에 대한 책임 및 권한
	선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성(지역사회 요구에의 부합 여부), 지역사회의 관심, 예술적 탁월성, 문학적 가치를 포함한 24개의 선정 기준을 제시
	구입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희망도서 구입 요청
	기부 및 기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장서 구입 및 도서관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기부 - 자료 기증 - 기부 및 기증에 대한 도서관의 권리와 책임 등
	자료 재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의 특정 자료에 대한 이용자의 자료 재검토 요청 절차
	장서 유지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서 평가 기준 제시 - 제적 자료의 관리 기준
	예산 및 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예산의 출처 - 예산 승인 및 예산 사용의 범위 - 장서 우선순위 결정 요소
검토 및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서개발계획의 검토 및 개정

[<https://sfpl.org/sites/default/files/pdf/about/policies/collection-development-plan.pdf>]

- 샌프란시스코 공공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의 목적은 도서관 시스템 전체 자료의 선택 및 보존을 위한 가이드 역할,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며 모든 연령대에 다양한 형식과 언어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음. 또한, 모든 사용자에게 자유롭고 공평한 접근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필요와 이익을 예측하여 자료를 선택함

1.2.2 미국 보스턴 공공도서관(Boston Public Library)

- 보스턴 공공도서관은 1848년에 설립된 미국 최초의 공공도서관으로 25개의 분관을 가진 중앙도서관임. 장서개발정책은 <표 8>과 같이 11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Boston Public Library, 2013)⁷⁾
- 장서개발정책의 주요 내용은 목적과 배경, 장서에 대한 책임의 주체, 수집 범위, 수집 언어, 장서디지털화, 특성화 장서, 연구 및 특별장서, 제적 및 장서보존, 기증, 지적자유 등과 관련된 지침을 포함하고 있음
- 장서개발정책의 목적은 지역의 역사적 기록을 보존·제공하며 문화, 교육, 정보 요구에 부응하는 데 있음. 또, 자료의 선택과 구입 등을 지속·정기적으로 검토 평가하며 미래를 위한 자료를 보존함

<표 8> 미국 보스턴 공공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구성 및 내용

구성	내용
목적과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서개발정책의 목적 및 배경 - 보스턴 공공도서관의 장서 구성 및 대상 이용자
장서에 대한 책임의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서개발을 위한 감독 및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 - 보스턴 공공도서관 특별장서위원회의 역할

7) BOSTON PUBLIC LIBRARY (2013, January 8). BOSTON PUBLIC LIBRARY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https://d4804za1f1gw.cloudfront.net/wp-content/uploads/sites/30/2017/01/30081802/collectiondev_policy.pdf\]](https://d4804za1f1gw.cloudfront.net/wp-content/uploads/sites/30/2017/01/30081802/collectiondev_policy.pdf)

구성	내용
수집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및 형태에 의한 예산 할당 기준 - 수집을 위한 평가기준(16가지) - 특별 장서 수집을 위한 추가 기준(2가지) - 전자자원 수집을 위한 추가 기준(5가지)
수집 언어	-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된 자료 수집
장서디지털화	- 디지털화 대상자료의 선정기준(9가지)
특성화 장서	- 특성화 장서의 지속적 개발 및 보존, 식별 기준(6가지)
연구 및 특별장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및 특수자료의 범위와 수집 - 미국 정부간행물 기탁도서관으로서 정부간행물 수집 및 제공, 지도, 연구 및 특별 장서의 형태
제적 및 장서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적의 이유와 목적 - 제적 기준(4가지)과 처분기준
기증	- 기증자료 평가기준 및 관리
지적자유	- 지적 자유의 존중과 자료 재검토 요청
부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자료위원회 책무, 특수자료 구입에 의한 수집·처분 과정 - 지도센터의 수집정책 및 권한 - 장서의 처분, 기증, 재검토 요청, 기부지침 - 도서관 권리장전, 읽을 자유(Freedom to Read), 볼 자유(Freedom to View) 선언문

1.2.3 미국 뉴욕주립도서관(New York State Library)

- 뉴욕주립도서관은 연구도서관을 지향하기 위해 장서개발의 목적과 범위를 서문에서 제시하고 개정주기를 5년으로 설정함. 장서개발정책⁸⁾은 <표 9>처럼 7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일반정책에서는 자료유형을 23개(녹음자료, 데이터베이스, 학위논문, 정부간

8) 뉴욕주립도서관 홈페이지. 장서개발정책
[<https://www.nysl.nysed.gov/library/policy/CollectionDevelopmentPolicy.pdf>]

행물, 문학작품, 지도, 악보, 희귀도서 등)로 나누어 수집 범위 및 절차, 예외 사항 등을 제시함

<표 9> 뉴욕주립도서관 장서관발정책의 구성과 내용

구성		내용
서문	목적과 범위 진술	- 주립도서관의 연구도서관 지향 장서관발 목적·범위, 개정주기 5년 제시
일반 정책	예산배정 방식	- 자료수집을 위한 예산배정 방식
	자료포맷	- 원칙적으로 연구도서관은 모든 포맷(종이, 마이크로, 전자)을 구입함
	핵심장서	- 주립도서관 목적 달성의 필수적인 단행본, 학술지, 전자자원 핵심리스트
	자료유형(23가지)	- 자료유형별(녹음자료, SW, DB, 학위논문, 필름과 비디오, 정부간행물, 색인초록지, 문학작품, 가제자료, 필사자료, 지도, 마이크로자료, 멀티버전, 악보, 뉴욕주 자료와 신문, 특허, 희귀서, 소급장서, 표준·명세서, 녹음도서와 점자자료, 시각자료) 수집 원칙, 범위와 제한, 복본, 포맷과 버전, 선택적 및 망라적 수집 여부
장서관수준 정의와 주제별 상세표		- 장서관수준을 10단계(수집 제외, 최소(균등과 비균등), 기본정보(입문과 상급), 기본연구 또는 기본교육지원, 중급연구 또는 중급교육지원, 상급연구 또는 상급교육지원, 연구, 망라적)로 정의하고 주제별 집서관수준 제시
필사·특수자료 개발정책		- 필사자료, 희귀도서 등 특수장서관 가치, 장서관수준, 현재 강점, 추가 개발 영역
주 간행물 개발정책		- 뉴욕주 간행물 기탁도서관으로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위원회, 공공 단체 및 주정부 기관 간행물 수집의 책임과 수집 형태
보존정책		- 보존철학(보존의 윤리적 기반, 보존 우선순위), 보존수선(예방적 수선실무, 보존처치실무, 보존교육), 도서관 자료 이용, 도서관 자료 전시지침
부록		- 기증정책(수증의 범위 및 절차), 제적정책(제적의 범위 및 기준)

- 장서수준은 10단계(0~5단계), 즉 수집 제외, 최소수준(균등하지 않은 범위), 최소수준(균등한 범위), 기본정보수준(입문), 기본정보수준(상급), 기본연구 또는 기본교육지원수준, 중급연구 또는 중급교육지원수준, 상급연구 또는 상급교육지원수준, 연구수준, 망라적 수준을, 장서수준 상세표에서는 DDC를 적용하여 주류별로 '장서수준 정의'에 따른 집서수준을 제시함
- 뉴욕주를 다루는 주제에 중점을 두어 주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주립도서관의 책임을 명시한 점이 특징임

1.2.4 캐나다 토론토 공공도서관(Toronto Public library)

- 캐나다 토론토 공공도서관 자료선정 정책⁹⁾은 <표 10>과 같이 8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정책의 목표를 직원에게는 자료수집 지침으로 활용하고, 이용자에게는 자료선정 결정에 관한 원칙에 친숙하도록 알리는데 둠
- 수집자료유형, 자료선정정책을 적용하는 대상에 대한 기술과 함께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였고 자료선정정책 외에 보존, 디지털화, 콘텐츠 수집 및 지침은 별도로 제시하고 있음

<표 10> 캐나다 토론토 공공도서관 자료선정 정책의 구성 및 내용

구성	내용
정책목표	- 직원을 위한 자료수집지침, 이용자에게 자료선정 원칙에 대한 홍보
기본원칙	- 도서관 사명에 기반한 자료선정 기본원칙
정책진술	- 자료선정정책 및 고려사항
범위	- 수집자료의 유형
적용	- 정책의 적용대상(도서관 직원과 조직)

9) 토론토 공공도서관 홈페이지. 자료선정 정책
[<https://www.torontopubliclibrary.ca/terms-of-use/library-policies/materials-selection-policy.jsp>]

세부지침	- 선정기준, 자료유형, 제적, 내용 비(非)보증, 장서접근, 기증과 기부, 고객 신청, 자원공유·상호대차
설명책임	- 자료선정정책에 대한 설명책임 주체를 도서관장으로 명시
부록	- 참고문헌, 토론토 공공도서관 사명, 캐나다도서관협회 지적자유와 도서관 성명서, 온타리오도서관협회의 공공도서관 어린이 권리에 관한 성명서, 용어의 정의, 연락처

1.2.5 영국 버밍엄도서관(Library of Birmingham)

- 버밍엄도서관 아카이브·장서개발정책(Archives & Collections Development Policy)은 <표 11>처럼 10개 영역(서문, 정책의 범위, 법률과 기준, 수집기준, 기록물 생산자, 비수용자료, 수집방법, 자료이관 및 폐기, 기증자 접촉, 정책문서 리뷰)으로 구성되어 있음(Library of Birmingham, 2017)¹⁰⁾
- 주요 내용은 정책문서 명칭이 장서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카이브’와 함께 사용된 점이 특징임. 수집기준은 간략하고 실무에 적용되는 기준은 별도로 존재하며, 도서관이 장서개발 차원에서 수용하지 않는 자료 범위를 상세하게 제시한 점도 특징임. 정책문서의 검토주기를 2년으로 명시함

<표 11> 영국 버밍엄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구성 및 내용

구성	내용
서문	- 버밍엄 아카이브·장서의 성격, 지역사회 기여, 자료수집 의지 등
정책의 범위	- 정책의 적용대상, 수집 제외자료, 수집매체 유형(종이, 시청각, 사진, 전자매체 등)에 관한 명시, 관련정책(장서관리정책, 정보수집정책, 장서개발계획, 접근정책, 전시 및 대출정책, 디지털 보존정책, 디지털화 기준, 수선·보존정책)과 동의어 내지 호환되는 정책임을 명시
법률과 기준	- 버밍엄 아카이브·장서에 적용·준수하는 법령(Public Records Acts, Local Government Acts, Education Reform Act, Local

10) 버밍엄도서관 홈페이지. 장서개발정책 [<https://www.birmingham.gov.uk/>]

구성	내용
	Government(Records) Act 등)과 기준(National Standard for Access to Archives, Recommendations for the storage and exhibition of archival documents) 명시
수집기준	- 지리적 범위, 아카이브 평가기준 제시
기록물 생산자	- 아카이브·장서 수집에 기여하는 이해집단(시 공공기록 보관소, 버밍엄 교구 기록사무소, 지방정부 법에 따른 기부, 인종·민족적 소수자, 장애인, 자원그룹, 자선단체, 예술조직체)
비수용자료	- 대중 접근제한자료, 위험물질자료, 수선 불가 손상자료, 소유권 쟁점 기록, 장서의 구성요소나 중요한 주석이 포함되지 않은 출판·인쇄자료, 아카이브가 필수적이지 않은 신문·시청각자료
수집방법	- 기증, 납본, 구입, 법령에 따른 공공기관의 버밍엄도서관 이관
자료이관·폐기	- 다른 리포지터리로의 이관, 폐기
기증자 접촉	- 기증자 및 기탁자와의 접촉과 연락
정책문서 리뷰	- 정책문서 검토주기를 2년으로 명시

1.3 국내외 장서개발지침 사례 요약 및 시사점

- 이상에서 요약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도서관 장서개발지침(정책)의 특징과 시사점을 제시함. 국내외 주요 도서관의 장서개발지침(정책) 사례를 정리하면 <표 12>와 같음

<표 12> 국내외 장서개발지침 사례 요약¹¹⁾

국가명	기관명	특성
한국	국립중앙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서개발지침의 이념적 기초에는 국가대표도서관, 납본도서관, 보존도서관, 디지털도서관으로서의 역할 - 장서개발 범위는 모든 도서관자료의 선정과 수집에서 제적과 폐기까지를 포괄 - 장서개발의 방법은 납본, 구입, 수증, 국제교환·기탁, 매

11) 서울특별시. 2019. 『서울시 장서개발정책 수립 연구』. 서울: 서울특별시, p.82-84.

국가명	기관명	특성
		체 변환, 자체수집, 디지털 형태의 보존 등을 적용
	국립세종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선정기준에서 자료의 일반적 선정기준, 고서와 귀중본의 선정기준, 자료의 보존기준, 비도서자료 선정기준, 수증·기증 및 교환자료 등 5개 기준을 제시함 - 자료의 폐기 및 제적기준에서 일반적 기준, 주제별 기준 등으로 구분하여 세부지침을 제시함
	서울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선정기준에서 일반적 선정기준, 고문헌과 귀중서 선정기준, 자료 보존기준, 비도서자료 선정기준, 이용자 희망도서, 수증·기증 및 교환자료 등 6개 기준을 제시함 - 자료 폐기 및 제적기준은 일반적 기준, 비도서자료, 연속간행물, 회수불능 또는 소재 미확인 자료, 주제별 기준 등 5개로 구분하여 세부지침을 제시함
	충남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선정기준에서 자료의 일반적 선정기준, 자료의 보존기준, 비도서자료 선정기준, 이용자 희망도서, 수증·기증 및 교환자료 등 5개 기준을 제시함 -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기준에서 일반적 기준, 비도서자료, 연속간행물, 회수불능 또는 소재 미확인 자료, 주제별 기준 등 5개로 구분하여 세부지침을 제시함
	울산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선정기준에서 일반적 선정기준, 고서와 귀중본 선정기준, 자료 보존기준, 비도서자료 선정기준, 이용자 희망도서 선정기준, 수증·기증 및 교환자료 기준 등 6개를 제시함 - 자료의 폐기 및 제적기준은 일반적 기준, 비도서자료, 연속간행물, 회수불능 또는 소재 미확인자료, 주제별 기준 등 5개로 구분하여 세부지침을 제시함
	경남대표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서구성 기본방침에서 주제별 장서의 균형 유지, 어린이도서의 구성비율, 특성화 자료 및 장애인 대체자료의 구성비율을 명시함 - 자료 선정기준에서는 자료의 유형별, 주제별 선정기준과 자료선정 제외기준을 제시함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공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의 선정기준은 지역사회의 관심, 예술적 탁월성, 문학적 가치를 포함한 24개의 선정기준을 제시 - 장서수준을 5단계로 제시함
	보스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수집을 위한 평가기준을 제시하며, 다양한 집단의

국가명	기관명	특성
	공공도서관	<p>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성인과 청소년을 위한 영어 외의 언어로 된 자료를 수집함을 명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스톤 공공도서관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핵심전략으로 저명한 장서에 대한 식별과 홍보를 강조하며 저명한 장서 식별을 위한 기준을 제시함
	뉴욕주립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정책에서 녹음자료, 서지, 핵심장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학위논문, 필름 및 비디오, 정부간행물, 색인·초록, 문학, 가제식 자료 서비스, 필사자료, 지도, 마이크로 자료, 복본, 악보, 뉴욕주 자료, 신문, 특허, 희귀도서, 소급장서, 표준과 명세서, 녹음도서 및 점자자료, 시각자료를 포함한 자료유형별 간략한 정책 내용을 제시함 - 장서수준을 10단계로 제시함 - 상세표에서 10개 주류로 구분하여 현재 장서수준을 명시함
캐나다	토론토 공공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의 목적, 기본적 원칙, 정책 진술문, 자료수집 포맷, 자료선정정책 적용 대상에 관한 기술과 함께 구체적 지침을 간략히 제시함 - 자료선정정책의 설명 책임 주체를 명시함
영국	버밍엄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밍엄 도서관과 기록관 장서정책의 목적, 원칙, 범위, 특수 이용자 그룹을 포함한 다양한 커뮤니티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장서 제공, 선정기준, 수집 제외 기준에 대해 간략히 기술함

- 국내외 도서관 장서개발지침 또는 정책 사례를 분석한 결과 <표 13>을 보면 차이가 있음
 - 국내 도서관은 장서개발정책이나 지침보다 실무지침(선정, 보존, 폐기, 평가 등) 수준에 근거하여 장서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립중앙도서관 이외 장서개발의 기본원칙과 전략적 목표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대부분 도서관의 장서개발지침 내용은 자료선정기준, 기증자료, 처리기준, 제적·폐기기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큰 차이가 없음

- 반면, 국외 도서관의 경우 실무지침 수준이 아닌 망라적인 수준의 장서개발 정책이나 지침을 개발하여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3> 국내외 도서관 장서개발지침 비교

구분		정책 문서	서문	기본 지침	특화 장서	선정(수집)기준			제적· 폐기 기준	장서 평가	개정 주기
						일 반	주 제	유 형			
국내	국립 중앙	●	●	●	●	●	●	●	●	X	●
	국립 세종 (안)	●	●	●	●	●	●	●	●	X	●
	서울	●	●	●	●	●	●	●	●	X	●
	충남	▲	●	●	●	●	●	●	●	●	●
	울산	X	X	X	X	●	X	●	●	●	X
	경남 대표	X	X	X	X	●	●	●	●	●	X
미국	샌프란 시스코	●	●	●	●	●	●	X	●	●	●
	보스턴	●	●	●	●	●	X	●	●	X	X
	뉴욕 주립	●	●	●	●	X	●	●	●	X	●
캐나다	토론토	▲	●	●	X	●	X	X	●	X	X
영국	버밍엄	●	●	●	X	●	X	X	●	X	●

- 지역대표도서관들은 실무지침 수준의 장서개발지침을 장서구성의 틀을 제공해주는 장서개발지침으로 수립해야 함. 「도서관법」 제23조에서 규정된 지역대표도서관의 업무 중에서 장서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것은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지역도서관 자료수집 지원 및 이관자료의 보존’임. 이러한 지역대표도서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망라적인 수준의 장서개발지침을 운용하여야 함

- 이를 위해 자료수집력 강화, 장서개발 충실화, 장서구성의 편향성 최소화, 장서보존 최적화에 기본원칙을 두고 서문, 장서개발의 주체와 방법, 장서개발 기본원칙, 수집방법별 개발지침, 자료유형(매체)별 개발지침, 주제별 개발지침, 취약계층별 개발지침, 연계·협력지침, 보존관리 및 보존서고 지침, 정책문서관리주체 및 개정주기 등의 영역으로 각 도서관의 특성에 맞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¹²⁾

12) 윤희윤, 김종애, 오선경. 2020. 대도시 공공도서관 장서개발정책 분석과 제언. 『정보관리학회지』, 37(3): 51-74.

2. 공공도서관의 디지털자료 수집추이 분석

2.1 국내 공공도서관

- 「2021년(2020년 기준)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비 예산액은 약 1천18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3억원(1.3%) 감소했고, 1관당 총 자료구입비 예산액은 약 8천693만원으로 대략 407만 원(4.5%) 감소함
- 2021년 1관당 도서 구입비 예산액은 약 6천714만원으로 약 496만원(6.9%) 감소했지만, 2020년 1관당 전자자료 구입비 예산액은 약 936만원으로 약 256만원(37.6%) 증가함
- 1관당 자료구입비에서 도서, 비도서, 연속간행물의 구입비가 점진적으로 줄어든 것에 비하면, 전자자료의 예산액은 지난 4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이 17.3%의 성장세를 보임. 2017년과 비교했을 때, 1.85배로 증가하였음

<표 14>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1관당 자료유형별 자료구입비

(단위: 천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감
		예산	증감	예산	증감	예산	증감	예산	증감	
자료구입비 (백만원)	85,506	90,586	5.9	100,889	11.2	103,211	2.3	101,892	-1.3	4.5
1관당 자료구입비	84,659	86,935	2.7	92,053	5.9	91,015	-1.1	86,939	-4.5	0.8
도서	68,183	69,511	1.9	74,251	6.8	72,108	-2.9	67,142	-6.9	
비도서	3,722	3,901	4.8	3,745	-4.0	3,642	-2.8	2,985	-18.0	
전자자료	5,060	5,960	17.8	6,430	7.9	6,805	5.8	9,367	37.6	17.3
연속간행물	7,695	7,563	-1.7	7,627	0.8	8,643	13.3	7,445	-13.9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년(2020년 기준)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p.35-36

- 국내 광역 대표도서관의 자료구입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자료구입비에서 전자자료 구입비 예산 비중이 2020년을 기준으로 많게는 47.1%에서 적게는 26.2%에 달함. 3년 전과 비교하여 도서관 대부분에서 전체 자료구입비에서 차지하는 전자자료 구입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표 15>에서 보듯이 4개 대표도서관의 경우, 2020년 기준 전체 자료구입비에서 전자자료 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37.9%인 반면, 역사가 오래된 국내 주요 4개관의 2020년 기준 전자자료 구입비 비중은 평균 15.3%임

<표 15> 주요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비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도서			비도서			전자자료			전자자료 구입비 증감률*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서울도서관	438,600	591,638	391,000	25,000	10,000	10,000	233,000	248,000	270,000	33.4->40.2
충남도서관	475,000	600,000	403,750	22,000	27,000	20,027	269,600	240,300	229,080	35.2->35.1
울산도서관	2,588,576	400,000	350,000	34,499	26,500	62,840	450,391	143,500	170,000	14.7->29.2**
경남대표 도서관	380,000	300,000	160,000	5,030	5,000	2,000	114,970	195,000	143,960	23.0->47.1
시민도서관	351,000	369,000	333,500	14,600	10,200	3,000	105,000	139,000	119,600	23.3->26.2
대구중앙 도서관	332,500	399,400	136,000	2,400	2,400	2,400	25,728	25,728	25,728	7.1 ->15.7
정독도서관	220,800	208,320	192,320	22,000	22,000	20,000	21,075	21,136	23,720	8.0 ->10.0
종로도서관	179,000	153,000	149,000	15,000	9,000	6,000	13,045	12,705	15,690	6.3 ->9.2
부산도서관			400,000			24,000			395,000	

출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부산도서관 2020년 11월 개관

*전체 자료구입비에서 전자자료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의 증감률

*울산도서관의 2018년 도서구입비, 비도서구입비, 전자자료구입비는 개관장서구입비임.

- <표 16>은 광역 지역대표도서관과 주요 도서관의 자료유형별 소장현황임. 오디오북을 포함한 전자책의 비중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충남도서관은 3년 전과 비교하여 전자책 수가 3.5배, 울산도서관은 1.5배 그리고 경남대표도서관은 2배 이상 증가했음. 그 외 주요 도서관도 3년 동안 전자책수가 30~50%까지 증가했음

<표 16> 주요 공공도서관의 자료유형별 소장현황

(단위: 권, 점)

구분	도서			전자자료					
				전자책(오디오북포함)			전자저널, 기타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서울도서관	406,827	431,510	462,459	28,846	19,148	19,865	27,120	28,609	11,791
충남도서관	108,684	159,900	189,501	6,000	18,145	21,275	48	48	307
울산도서관	151,776	181,557	204,668	9,918	15,233	14,585	214	1,659	1,788
경남대표도서관	99,240	149,426	170,293	6,500	10,891	13,161	0	16	988
시민도서관	762,215	763,547	778,749	25,103	25,224	25,905	4636	4558	2,423
대구중앙도서관	628,277	528,293	520,745	19,533	22,087	25,986	3,283	3,305	3,469
정독도서관	494,318	506,115	501,769	15,242	16,035	21,098	2,218	2,213	2,169
종로도서관	252,902	261,313	268,601	15,242	16,035	22,264	238	233	220
부산도서관			241,386			6,762			237

출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부산도서관 2020년 11월 개관

2.2 국외 공공도서관

- 미국 도서관박물관기구(IMLS)가 매년 조사하는 『공공도서관 조사 회계연도 2019년』 자료에 따르면(미국 9,057개 공공도서관 자료 통계) 미국 전역의 공공도서관의 자료유형별 장서 보유현황은 <표 17>과 같음. <표 17>에 의하면 인쇄자료(print materials)는 6억 8천6백90만 부, 전자책(e-book)은 6억 1천5백70만 부, 디지털 오디오북(audio downloadable)은 3억 2천6백10만 부, 디지털 비디오(video downloadable) 2천7백50만 부이며, 이를 비율로 환산

하면 인쇄자료 38.9%, 전자책 34.9%, 디지털 오디오북 18.5% 그리고 디지털 비디오가 1.6%임

- 종이책 도서가 전자책과 비교하여 겨우 4%p 우세에 불과하며, 전자책과 디지털 오디오북과 비디오자료를 합하면 전체 장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임. 이는 공공도서관의 장서에서 전자책과 디지털자료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넘어서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었음을 의미함
- 그러나 대출자원으로서는 인쇄자료가 전자자원보다 매력적으로 보임. 전체 대출에서 전자자료의 대출 비중은 15.8%에 불과함. 요약하면, 전자자료가 공공도서관 장서 수집 부분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용과 대출 부분에서는 여전히 인쇄자료가 대출 대부분을 차지함. 그러나 전자책의 공급실적과 코로나 이후의 도서관과 이용자들의 인식변화 등을 고려하면 매년 전자출판물 이용률은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임

<표 17> 미국 공공도서관의 자료유형별 소장현황

(단위: 권, 점)

구분	Total, 2019년	No. of items per person
Total collection	1,765.5 million	5.6
print materials	686.9 million	2.2
E-book	615.7 million	1.9
Audio: physical	40.9 million	0.1
Audio: downloadable	326.1 million	1.0
Video: physical	68.5 million	0.2
Video: downloadable	27.5 million	0.1
Circulation	2171.9 million	6.9
Physical circulation	1829.0 million	5.5
Electronic circulation	342.9 million	1.1

출처: Public libraries survey, Fiscal Year 2019, supplementary tables,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 (2021. 6)

- 주요 도시 공공도서관의 전체 장서 대비 전자자료의 현황은 <표 18>과 같음
- 국내 공공도서관의 현상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전자자료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보스톤 공공도서관, 밴쿠버 공공도서관처럼 0.3%, 1% 증가한 도서관이 있지만, 샌프란시스코 공공도서관은 2019년에 비해 전자자료의 비중이 5.5% 증가하였고, 시애틀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전체 장서의 71%가 전자자료임. 특히 시애틀 공공도서관은 코로나로 인해 도서관을 폐쇄하면서 2020년 3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물리적 형태의 자료를 확충하지 않고 디지털 형태의 자료만을 확충하였음. 2020년에는 전자자료를 전년도보다 35% 더 확충함
- 보스톤 공공도서관은 전자자료의 비중이 전년도보다 25,132점이 증가하였지만, 장서 규모가 커서 그 증감률이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

<표 18> 국외 주요 도시 공공도서관의 전자자료 현황

(단위: 권, %)

구분	장서수		전자자료				비고
	2019	2020	2019	비중	2020	비중	
샌프란시스코 공공도서관	3,084,704	3,051,764	507,923	16.5	671,365	22	
보스톤 공공도서관	7,639,160	7,683,639	126,660	1.7	151,792	2.0	
시애틀 공공도서관	1,030,000	1,010,000	530,000	51.5	716,500	70.9	
밴쿠버 공공도서관	-	1,912,896	427,069(2020년) (-eBook 22%, eJournals & eMagazines 16% -Digital Collection의 비중 17%→18% 증가)				

출처: <https://mbic.state.ma.us/programs-and-support/library-statistics/>

<https://sfpl.org/about-us/facts-figures>

<https://www.spl.org/about-us/the-organization/budget-and-operations/annual-reports>

<https://www.vpl.ca/sites/vpl/public/VPLAnnualStatistics2020.pdf>

2.3 시사점

- 정보환경의 변화, 이용자들의 정보이용 행태변화 등과 더불어 2020년부터 시작된 팬데믹으로 인해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 행태가 변화하고 있다. 도서 확충에 많이 투입되었던 자료구입비가 전자자료 구입비로 전환되면서 전자자료 구입비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국내 공공도서관의 2020년 전자자료 구입비가 4년 전과 비교하여 1.85배 증가하였고, 전년과 비교해서는 37.6%의 증가세를 나타냄. 전반적으로 자료구입비의 비중이 도서 중심에서 전자자료로 옮겨가고 있음
 - 국내 광역 대표도서관 4곳의 전자자료 구입비 예산 비중 평균이 2020년 기준 전체 자료구입비의 37.9%임
- 공공도서관의 장서구성에서 전자자료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공공도서관의 장서에서 전자자료가 중요한 자원이 되었음
 - 미국 IMLS 자료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의 소장자료가 인쇄자료 38.9%, 전자책 34.9%로 종이책 도서와 전자책의 비중이 겨우 4%p 차이에 불과함. 하물며 전자책과 디지털 오디오북과 비디오 자료를 합하면 전체 장서에서 차지하는 전자자료의 비중이 도서를 추월함
 - 지역대표도서관 중 충남도서관은 3년 전과 비교하여 전자책 수가 3.5배 증가하였고, 경남대표도서관은 2배 증가하였음. 지역대표도서관 외에 정독도서관, 종로도서관, 부산시민도서관, 대구중앙도서관 등 큰 규모의 공공도서관도 3년 동안 전자책 수가 30~50%까지 증가함
 - 샌프란시스코 공공도서관의 2020년 전체장서에서 차지하는 전자자료 비중이 22%이고 시애틀 공공도서관은 70.9%에 달함. 시애틀 공공도서관은 코로나로 인해 도서관을 폐쇄했던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디지털 형태의 자료만을 확충하였음

3. 국내 출판현황 분석

3.1 발행현황

- 2020년 연간 신간 도서 발행량은 76,724종으로 전년 대비 6.1%(4,991종) 감소함. 유아동(4.1%), 기술과학(3.4%), 예술/대중문화(7.1%) 분야의 발행 종수만이 소폭 증가하였으며, 교육(△16.4%), 문학(△2.5%), 실용(△7.7%), 인문(△0.9%), 사회과학(△11.9%) 분야는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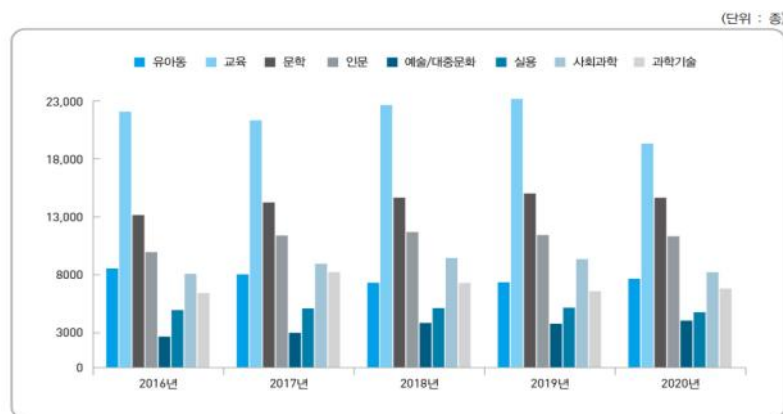
<표 19> KPIPA 연간 발행통계(2016-2020)

(단위: 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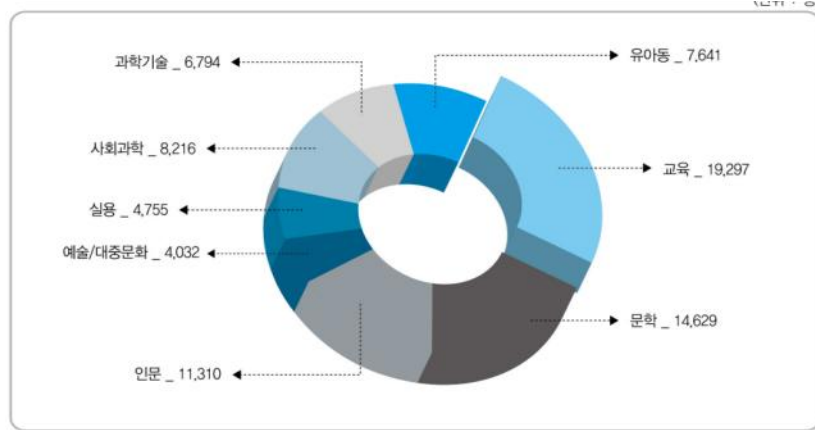
상위분류	기본분류	2016	2017	2018	2019	2020		전년 대비 증감률	5년 증감률
						종수	비중		
유아동	유아, 아동(어린이)	8,535	8,021	7,298	7,337	7,641	10.0	4.1	-10.5
교육	초등학습, 중고학습, 외국어, 취업/수험서/자격증	22,055	21,298	22,617	23,146	19,347	25.2	-16.4	-13.3
문학	소설 시/에세이/희곡 등	13,131	14,221	14,637	14,997	14,629	19.1	-2.5	11.4
인문	철학/심리, 역사/문화, 종교, 기타 인문학	9,940	11,373	11,677	11,417	11,310	14.7	-0.9	13.8
예술/대중문화	예술/대중문화	2,652	2,978	3,835	3,764	4,032	5.3	7.1	52.0
실용	자기계발, 가정/생활, 요리/취미, 건강/스포츠/레저, 여행	4,943	5,085	5,110	5,150	4,755	6.2	-7.7	-3.8
사회과학	정치/사회, 경제/경영	8,062	8,940	9,434	9,331	8,216	10.7	-11.9	1.9
기술과학	IT/컴퓨터, 자연과학, 기술공학	6,409	8,214	7,282	6,573	6,794	8.9	3.4	6.0
합계		75,727	80,130	81,890	81,715	76,724	100	-6.1	1.3

출처: 한국출판문화진흥원(2022). 2021년도 상반기 KPIPA 출판산업 동향. p.70.

- 이 중 교육 분야 도서가 전체의 1/4 이상(25.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16.4%(3,799종)의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인 분야 또한 교육 분야임. 전년 대비 4,991종(6.1%) 감소함
- 지난 5년간의 발행 추이를 보면 교육 분야 도서가 13.3%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2016년과 비교하여 증가한 분야는 사회과학 1.9%, 기술과학 6.0%, 인문 13.8%, 예술/대중문화 52.0% 순이지만, 감소한 분야는 실용 3.8%, 유아동 10.5%, 교육 13.3% 순임
- 5년 전과 비교하여 발행 종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예술/대중문화 분야로 2,652종에서 1,380종이 증가한 4,032종이 발행되었고, 가장 많이 감소한 분야는 교육 분야로 22,055종에서 2,708종이 감소한 19,347종이 발행되었음



[그림 1] KPIPA 발행통계 분야별 발행 종수 추이(2016-2020)



[그림 2] 2020년 KPIPA 분야별 발행 종수

- 2019~2020년 발행실적별 출판사 수를 살펴보면, 1~5종 발행 출판사는 2019년 70.4%에서 2020년 73.5%로 3.1%p 증가했지만, 31종 이상 발행 출판사는 6.3%에서 4.9%로 1.4%p 감소하였음. 2개년의 추이를 보면, 1~5종 출판사 수가 전년 대비 1,126개(20.2%) 증가하여, 소형 출판사가 전체 출판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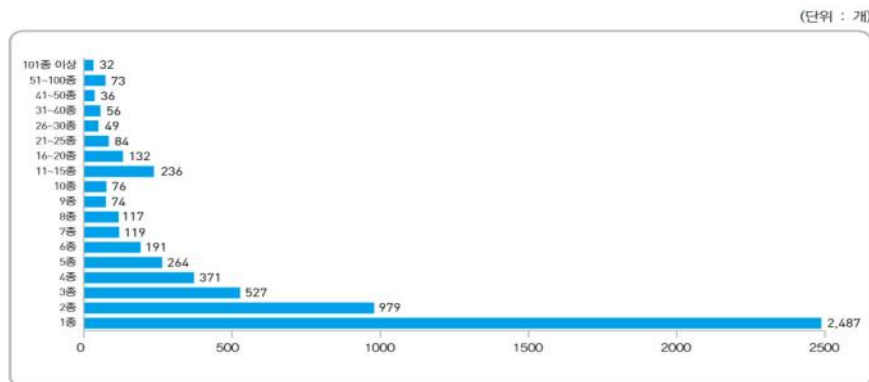
<표 20> KPIPA 연간 발행실적별 출판사 수(2019-2020)

(단위: %)

발행종수	2019		2020년		증감수	증감률
	출판사수	구성비	출판사수	구성비		
1~5종	5,580	70.4	6,706	73.5	1,126	20.2
6~10종	934	11.8	1,028	11.3	94	10.1
11~30종	918	11.6	942	10.3	24	2.6
31종 이상	498	6.3	448	4.9	-50	-10.0
합계	7,930	100.0	9,120	100.0	1,190	15.0

출처: 한국출판문화진흥원(2022). 2021년도 상반기 KPIPA 출판산업 동향. p.xix.

- 2021년 상반기로 제한하여 도서 발행 실적이 있는 출판사 수를 보면, 전체 5,903개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90곳(3.3%)이 증가함. 발행실적별 출판사 수를 살펴보면 1~5종 발행 출판사는 4,628개사로 전체 78.4%를 차지했으며 6~10종 발행 출판사 577개사(9.8%), 11~30종 발행 출판사 501개사(8.5%), 31종 이상 발행 출판사 197개사(3.3%)로 나타남. 발행 종수가 10종 이하의 소규모인 출판사 비중은 88.2%로 전년 동기보다 0.4%p 증가함
- 2021년 상반기 발행실적이 있는 출판사 중 1종을 출간한 출판사의 비중은 42.1%(2,487개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종 이하를 출간한 출판사의 비율은 78.4%(4,628개사)로 도서를 소규모로 출간하는 출판사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그림 3] 2021년 상반기 발행실적별 출판사 비중

3.2 출판 산업 현황

- 「2020년 기준 콘텐츠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¹³⁾, 서적, 신문, 잡지 출판업과 인쇄업, 출판유통업을 포함한 2020년 출판산업 전체의 매출 규모는 약 21조

13)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0년 기준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6천488억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1.4% 증가하였고, 2018년 이후 연평균 증가는 1.6%임

<표 21> 콘텐츠산업 규모 내 출판산업 현황(2018-2020)

(단위: 백만원, %)

중분류	소분류	2018	2019	2020	비중	2020 증감	3년 평균 증감
출판업	㉠ 서적출판업 (종이매체출판업)	1,153,340	1,163,720	1,259,334	5.8	8.2	4.5
	㉡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2,857,646	2,842,049	2,996,222	12.3	-6.1	-3.4
	(종이책 출판업: ㉠+㉡)	4,010,986	4,005,769	3,928,556	18.1	-1.9	-1.0
	㉢ 인터넷/모바일 전자출판제작업	383,026	442,012	518,663	2.4	17.3	16.4
	(순수 출판업: ㉠+㉡+㉢)	4,394,012	4,447,781	4,447,219	20.5	0.0	0.6
	신문 발행업	2,884,617	2,895,827	2,745,850	12.7	-5.2	-0.2
	잡지및정기간행물 발행업	1,148,805	1,179,178	1,144,811	5.3	-2.9	0.2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504,443	512,705	506,115	2.3	-1.3	0.2
	기타인쇄물 출판업	203,844	206,086	213,951	1.0	-1.3	2.4
	소계	9,135,721	9,241,577	9,057,587	41.8	-2.1	-0.4
인쇄업	인쇄업	4,001,951	4,217,916	4,300,049	19.9	1.9	3.7
출판 도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도매업	2,557,298	2,578,890	2,705,937	12.5	4.9	2.5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4,923,440	4,949,724	5,157,462	23.8	4.2	2.3
	소계	7,500,738	7,528,614	7,863,399	36.3	4.4	2.4
온라인 출판유통 출판 임대업	인터넷/모바일 전자출판서비스업*	259,677	294,733	372,287	1.7	26.3	19.7
	서적 임대업(만화 제외)	55,685	58,335	55,526	0.3	-4.8	-0.1
합계		20,953,772	21,341,176	21,648,849	100	1.4	1.6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0년 기준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p.82

*전자출판 산업규모 중 전자책 서비스 매출액 규모만 산출

재인용: 대한출판문화협회(2022). 「2021년 출판시장 통계」. p.69

- 출판 산업 전체 매출액에서 종이책 출판업의 규모는 18.1%를 차지하고 있지

만, 전년 대비 -1.9% 성장을 보였으며, 2018년 이후 조금씩 감소추세를 보임. 그러나 '교과서 및 학습서적'을 제외한 도서 출판업은 전년 대비 8.2% 성장했고, 지난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4.5%였음. 종이책 출판업 매출의 감소는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의 저조가 그 원인임

- 반면, 전자책 출판업은 출판산업 전체 매출액 대비 2.4% 불과하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이 17.3%이고 2018년부터 연평균 증가율이 16.4%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
- 종이 출판업과 전자출판업을 합한 순수 출판업의 규모는 2020년 기준 4조 4천 472억원으로 출판 전체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5%임. 전자책과 '교과서 및 학습서적'을 제외한 서적출판업이 성장세를 보이지만 종이책 출판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과서 및 학습서적'의 매출 감소로 인해 순수 출판업 전체의 저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 종이 출판업, 즉, 도서출판 시장의 지난 10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1% 내외의 성장 혹은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고 있음. 2019년 이후부터는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2020년은 거의 2%에 달하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임. 이는 도서 출판시장이 이제부터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것을 예고함

<표 22> 10년간 도서출판 시장규모 추이(2011-2020)

(단위: 억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도서출판 시장규모*	39,500	40,012	40,057	40,207	40,283	39,977	39,985	40,109	40,057	39,285
전년대비 증감률	1.4	1.3	0.1	0.4	0.2	-0.8	0.0	0.3	-0.1	-1.9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2008~2019년 각 연도 자료를 재구성

*도서출판시장 규모는 서적출판업(종이매체출판업)과 교과서 및 학습서적출판업 매출액의 합계임

재인용: 대한출판문화협회(2022), 「2021년 출판시장 통계」, p.69

- 주요 전자책(웹툰, 웹소설) 플랫폼 기업의 매출 추이는 아래 표와 같음
- 국내의 플랫폼 기반 전자책을 제공하는 주요 기업은 8개사가 있으며, 이들 주요 기업이 전자책(만화, 웹툰, 웹소설 등) 제공을 통해 올린 매출은 2021년 기준 4천969억원으로 전년 대비 22.7% 증가함
- 주요 전자책 플랫폼 기업의 지난 3년간 매출액 추이를 보면, 2020년은 전년도에 비해 30.0%의 성장, 2021년은 22.7%의 성장세를 보여, 3년간 매출액이 59.6% 증가했음
- 3년간의 매출 추이를 보면 기업 대부분의 매출액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이 중 특히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이는 기업은 '밀리의서재'로 2019년 대비 2021년 매출 규모가 2.63배로 증가했음

<표 23> 전자책 플랫폼 부분 주요 기업의 3년간(2019-2021) 매출액 규모
(단위: 백만원, %)

매출 순위 (2021년)	기업	매출액			2021년 전년대비 증감률	비고
		2021년	2020년	2019년		
1	리디(주)	199,073	153,775	114,715	29.5	
2	(주)탑코	65,856	58,808	53,731	12.0	
3	레진엔터테인먼트	61,342	45,362	34,542	35.2	
4	키다리스튜디오	54,016	40,441	25,189	33.6	
5	문피아	43,037	39,731	28,660	8.3	
6	밀리의서재	28,857	17,951	10,966	60.8	
7	미스터블루	28,572	28,876	25,917	-1.1	
8	조아라(웹소설)	16,158	19,992	17,700	-19.2	
	소계(8개사)	496,911	404,936	311,420	22.7	
	(주)카카오엔터테인먼트	427,034	342,966	-	24.5	
참고	네이버웹툰	335,326	132,288	-	168.4	2020. 5-12월 실적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aa.or.kr>)에 게시된 각 기업의 감사보고서
재인용: 대한출판문화협회(2022). 『2021년 출판시장 통계』 p.23

3.3 시사점

- 유아·아동 분야와 교육 분야의 출판 종수 및 도서발행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예술/대중문화, 인문학, 기술과학, 사회과학 분야 등의 발행량은 증가함
 - 2016~2020년 5년 동안 도서발행량을 비교하면 75,727권에서 76,724권으로 큰 변화가 없지만, 2020년의 경우 전년 대비 -6.1%임
 - 5년 동안 가장 많이 감소한 분야는 전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초등 학습, 중고학습, 외국어, 취업/수험서/자격증 관련 분야로 13.3% 감소함. 이 분야는 출산율 및 학령인구 감소로 발행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 2016과 비교하여 2020년 발행량을 보면, 예술/대중문화, 인문, 기술과학, 사회과학 분야 순으로 발행량이 증가했고, 교육, 유아, 실용 분야 순으로 감소함
- 출판산업은 전반적으로 저성장 혹은 마이너스 성장이지만 전자책 출판업은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
 - 비록 전자책 출판업의 매출액이 전체 출판산업 매출액의 2.4% 불과하지만, 2020년의 경우, 전년 대비 17.3% 증가하였고, 2018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이 16.4%임
 - 도서 출판시장의 2011~2020년 동안의 추이를 보면, 1% 내외의 성장 혹은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고 있고, 2019년 이후부터는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임
 - 국내 주요 전자책 플랫폼 8개 기업의 2019~2021년 3년간 매출액이 59.6% 증가하였고, 2021년은 전년 대비 22.7% 성장함

III 장

부산도서관의 기본방향과 현황

1. 부산도서관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적 목표

1.1 부산도서관의 중장기 비전

1.1.1 도서관의 도서관

- 부산도서관은 도서관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국·내외 도서관의 협력을 실행함
- 부산지역 도서관과 독서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부산지역 내 공공도서관의 분담수서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함

1.1.2 연구도서관

- 부산도서관은 부산지역 도서관 관련 정책연구를 시행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단위도서관의 서비스 모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실행함

- 지역 내 존재하는 고유의 지식자원 DB를 개발하여 실행하고, 부산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독서프로그램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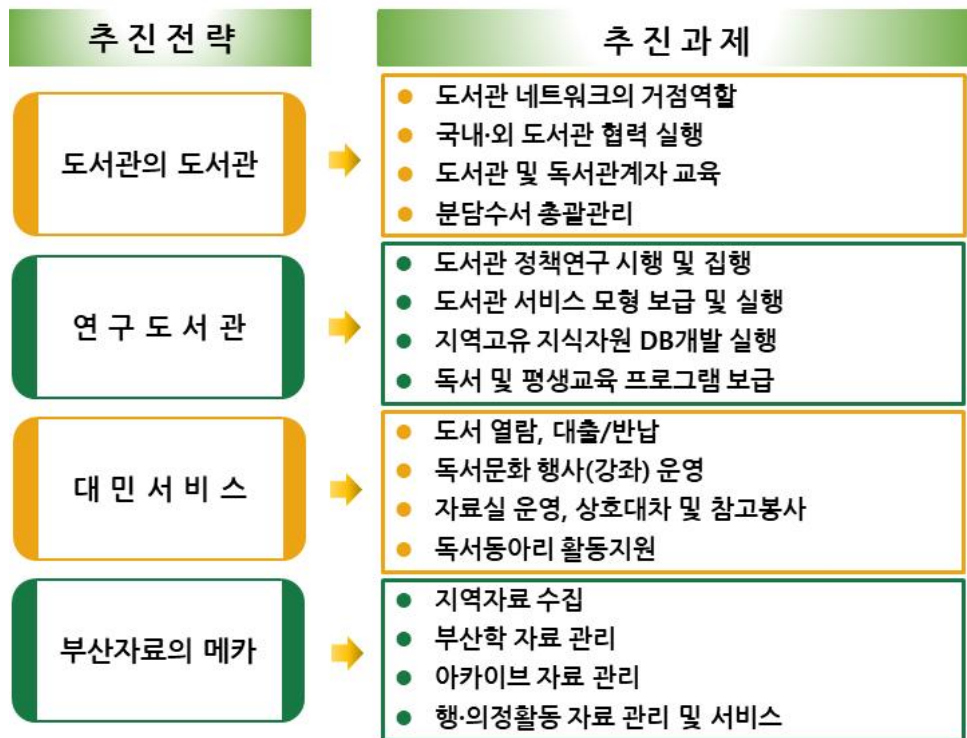
1.1.3 대민서비스

- 부산도서관은 부산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서 열람과 대출·반납 업무와 독서문화 행사 등 도서관 기본 업무를 실시함
-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실을 운영하며 상호대차 서비스와 참고봉사 서비스를 실시하며, 독서동아리 활동을 지원함

1.1.4 부산자료의 메카

- 부산도서관은 부산지역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부산학 자료의 메카로서의 기능을 수행함
- 아카이브자료를 관리함과 동시에 행정 활동과 의정활동 자료를 관리하고 서비스함

비전 부산의 미래를 담는 문화·교육·지식정보의 보고



[그림 4] 부산도서관의 중장기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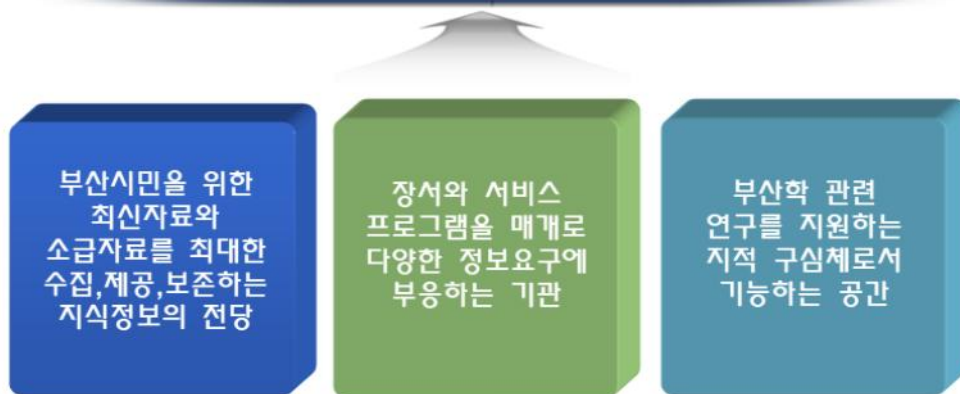
1.2 부산도서관의 기본 방향과 목표

1.2.1 도서관의 사명과 비전

- 부산도서관은 부산시민을 위한 최신자료와 소급자료를 최대한 수집, 제공, 보존하는 지식정보의 전당, 장서와 서비스 프로그램을 매개로 다양한 정보요구에 부응하는 기관, 부산학 관련 연구를 지원하는 지적 구심체로서 기능하는 공

간 등의 역할 수행을 통해 부산시 차원의 도서관과 독서정책실행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함

부산시 차원의 도서관과 독서정책 실행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



[그림 5] 부산도서관의 사명

- 부산도서관의 사명선언문과 비전선언문은 다음과 같음

부산도서관 사명선언문

부산도서관은 모든 시민을 위한 도서관이며, 세계적 랜드마크로서 부산의 자부심을 상징한다. 부산의 모든 도서관의 중심으로서 부산도서관은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부산시와 함께 성장한다. 나아가 부산도서관은 21세기 지식문명을 경험하게 하고, 부산시와 시민의 삶을 바꾸고 풍요롭게 한다.

부산도서관 비전선언문

부산시민의 정보접근, 문화향유,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비전을 선언하고 이를 부산시민과 공유한다.

첫째, 부산도서관은 부산시민을 위한 정보관문으로서, 시민들에게 지역도서관 네트워크

워크에 기반한 양질의 자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창의성, 상상력을 자극하고 시민의 역량 개발을 촉진한다.

둘째, 부산도서관은 부산시민이 다양한 문화를 일상적으로 체험하고 향유하는 과정을 국내외의 정선된 정보자원과 다양한 매체로 지원한다. 또한 부산시의 독서문화 창달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동시에 부산학의 메카로서 기능한다.

셋째, 부산도서관은 부산시민 남녀노소의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거점도서관으로서, 건강한 지역공동체의 성장, 다양한 지역사회의 유기적 협력, 지식기반사회를 견인하는 도서관 네트워크를 통하여 시민 평생교육의 허브가 된다.

1.2.2 도서관의 기본방향과 역할

- 부산의 랜드마크
 - 부산을 대표하는 도서관이자 부산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서 세계 일류 수준의 도서관 문화를 선도하는 도서관
- 부산의 도서관 네트워크 컨트롤타워
 - 부산의 도서관정책 및 운영의 컨트롤타워
 - 부산의 공공도서관 행정을 일원화하여 부산시 전역에 도서관 혜택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공공도서관 협력망 구축
 - 부산시 각종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및 도서관 지원·협력
- 부산자료의 수집·정리·디지털화·보존 및 제공
 - 부산시의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 자료의 보존
 - 부산학 자료(구술사 자료 포함)의 발굴·수집·디지털화·보존 및 제공
- 부산시민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과 독서 운동 전개
 - 부산시민에게 선진국 수준의 도서관 서비스 제공
 - 부산시 전역 대상 독서 운동 중심 주체로서 기능

- 부산시 도서관의 업무향상과 사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센터
 - 부산시 도서관 업무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 부산시 사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계속교육 센터
 - 국립중앙도서관과의 자료수집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1.2.3 도서관의 기능

- 도서관정책 기능
 - 도서관정책 기능은 크게 도서관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능과 조사·연구기능을 포함함
 - 중앙정부 차원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매년 광역자치단체가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역대표도서관은 광역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내 도서관정책개발 및 집행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 또한 지역 내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 활용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도서관협력 및 서비스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부산광역시의 도서관정책개발 및 시행
 - 국가 차원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기본으로 수립된 지역대표도서관 차원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부산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업무 지원
 - 조사·연구기능
- 지원 협력 기능
 - 지원 협력 기능은 지역별 도서관 시책에 따른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 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관종의 도서관 간 지식정보자원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도서관 이용자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부산광역시 각급 도서관 운영 지원
 - 부산광역시 내 공공·학교·대학·전문도서관 사이의 협력 사업

- 도서관 정보화 지원 및 정보교육 지원
- 부산광역시 내 타 문화시설과의 연계 협력 지원
- 시청·교육청과의 협력업무 추진

■ 자료 보존 기능

- 부산광역시 내 공공도서관 자료 중 공동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활용 및 보존 서고 운영
- 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발행한 자료 수집 제공(지역 납본 센터)
- 부산광역시에 특화된 지식자원 디지털 아카이빙

■ 정보서비스 기능

- 장서개발정책 수립·갱신·시행
- 대 시민 및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 부산학도서관 운영
- 광역 차원의 지역 정보 통합 서비스
- 디지털도서관 서비스

2. 부산도서관 장서의 수집 · 이용 · 보존현황 분석

2.1 자료 현황

2.1.1 수입구분별 현황

1) 수입구분별 장서 현황

- 2022년 4월말 기준 부산도서관의 수입구분별 장서현황은 <표 24>와 같음. 도서를 기준으로 볼 때, 구입이 175,754권(57.9%)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이관으로 116,615권(38.4%)이고, 기증은 10,115권(3.3%), 납본 1,042권(0.34%) 순으로 나타났음. 도서 이외에 비도서도 12,834점을 구입함

<표 24> 수입구분별 장서현황*

(단위: 권/종/%, 기준: 2022.4.29)

구 분	합 계	구 입	기 증	이 관	납 본
도 서	303,526	175,754	10,115	116,615	1,042
비율	100	57.9	3.3	38.4	0.34
비도서	12,834	12,834	0	0	0

*구독형 온라인 자료, 연속간행물은 제외

2) 2021년도 장서 구입 현황

- 2021년도 자료 확충을 위해 6억 5천만 원을 자료구입비로 사용하였으며, 유형별로 보면 도서구입에 4억원, 비도서 구입에 2억 5천만원을 사용함
- 도서구입비는 아동, 청소년, 어르신 자료를 포함한 일반자료 구입에 3억 9천만 원을 사용하여, 26,411권을 확충하였고, 특화도서 구입에는 9백7십만원을 사용하여 485권을 확충하였음

- 전자책 및 오디오북 구입에는 2억 2천6백여만 원을 사용하여 2,172종을 확충하였고, DVD에는 2천4백여만원을 사용하여 934종을 확충함
- 전체적으로 2021년 자료구입비 6억 5천만원을 사용하여 도서 26,896권과 비도서 3,106종을 확충함

<표 25> 2021년도 자료구입 현황

(단위: 천원/권/종, 기준: 2021.12.30)

구 분	구입내역	소요예산	구입자료수
도 서	일반 (아동·청소년·어르신 등) 지역출판물 374권(7회, 5,168천원)	390,281	26,411
	커피(특화)도서	9,719	485
	소 계	400,000	26,896
비도서	전자책·오디오북	225,619	2,172
	DVD	24,381	934
	소 계	250,000	3,106
합 계		650,000	30,002

*구독형 온라인 자료, 연속간행물은 제외

3) 2022년도 장서 확충 계획

-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공공도서관이 구하기 힘든 고가 및 전문자료, 정책개발 및 연구지원자료, 도서관 관련 연구자료, 부산관련자료를 포함하여 공공도서관 공동이용 전자자료 등도 함께 확충할 계획임
- 또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전 연령 시민 이용자료, 정보 소외 계층자료, 신간 자료, 시민 희망 자료, 스테디(베스트)셀러 도서 등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임
- 2022년도 자료구입비 사업예산은 7억 5천만원이며, 이를 도서 구입에 4억 5천

만원을 투입하고 비도서자료 구입에 3억원을 투입할 계획임. 이를 통해 22,500여권의 도서와 3,000여종의 비도서가 확충될 것으로 예상함

- 자료구입은 자료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및 구입을 진행하고, 일반도서(70%)와 아동도서(30%)는 적정범위 내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구입할 계획임
- 일반도서의 구입은 장서구성, 자료이용현황, 출판율 등을 참조하되 유동적으로 적용함

<표 26> 2022년도 주제분야별 장서구입계획(안)

(단위: %)

구 분	합계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구입계획	100	6	6	2	19	5	8	5	3	39	7
장서구성	100	6.3	6.3	3.2	19.8	4.6	9.1	6.3	2.9	33.5	8.0
이용현황	100	5.5	6.0	1.4	18.9	5.7	7.6	2.7	2.5	43.9	5.8

*구독형 전자책 등의 온라인 자료, 연속간행물은 제외

- 아동도서는 유아(30%)와 초등(70%)으로 구분하여 적정 비율을 적용하여 구입하고, 장애인도서, 국외도서 등은 각각 예산의 5% 범위 내외, 시민희망도서 및 지역서점 바로대출은 예산의 10% 범위 내외에서 구입함. 이외에도 부산지역 출판사 발행자료 및 부산관련자료는 적극적으로 구입함
- 비도서는 전자책과 오디오북 등을 격월 정기구입하고, 시민 희망자료는 월 2회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 수렴하여 구입함

2.1.2 주제별 현황

- 2022년 4월 말을 기준으로 도서 자료의 주제별 장서현황은 <표 27>과 같이 문학(33.4%), 사회과학(19.9%), 기술과학(9.2%), 역사(8.3%), 총류(6.3%), 철학(6.2%), 예술(5.9%) 순으로 나타났음

<표 27> 도서의 주제별 현황

(단위: 권/%, 기준: 2022.4.29)

구 분	합 계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꿈 뜨 락	35,257 (11.9%)	802	391	212	2,588	2,704	1,056	616	974	23,647	2,267
책 마 루	51,023 (18.3%)	643	1,038	178	1,883	1,023	582	287	85	35,525	9,779
책누리터	70,336 (26.6%)	4,063	7,743	4,069	23,915	4,247	12,252	7,169	2,866	3,582	430
부산애들	9,801 (3.3%)	146	94	132	2,268	133	486	1,635	33	2,519	2,355
보존서고	137,109 (39.9%)	13,503	9,672	5,339	29,713	5,909	13,556	8,289	4,756	36,177	10,195
합 계	303,526	19,157	18,938	9,930	60,367	14,016	27,932	17,996	8,714	101,450	25,026
비 율	100	6.3	6.2	3.3	19.9	4.6	9.2	5.9	2.9	33.4	8.3

- 2022년 4월 말 기준으로 비도서자료의 주제별 장서현황은 <표 28>과 같이 문학(31.4%), 예술(18.2%), 사회과학(17.8%), 철학(7.2%), 기술과학(7.0%), 역사(6.2%), 언어(4.6%) 순으로 나타났음

<표 28> 비도서자료의 주제별 현황

(단위: 종/%, 기준: 2022.4.29)

구 분	합 계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전 자 책	9,600	344	856	137	2,124	438	842	274	592	3,408	585
오디오북	1,183	22	68	3	160	38	50	15	2	620	205
영상(DVD)	2,051	0	0	0	0	0	0	2,051	0	0	0

구분	합계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합계	12,834	366	924	140	2,284	476	892	2,340	594	4,028	790
비율	100	2.9	7.2	1.1	17.8	3.7	7.0	18.2	4.6	31.4	6.2

전자책, 오디오북은 5user

구독형 온라인 자료, 연속간행물은 제외

2.1.3 유형별·매체별 현황

- 2022년 4월 29일 기준 자료의 유형별·매체별 장서현황은 <표 29>와 같이 매체별로는 도서가 303,526권으로 전체 소장자료의 83.8%를 차지하고 비도서자료는 58,523점으로 16.2%를 차지함.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도서가 257,002권으로 84.7%를 차지하고 아동도서는 36,723권으로 12.1%를 차지함
- 부산관련자료는 전체 자료의 3.2%에 불과한 9,801권임
- 비도서자료는 전자책이 85.6%로 압도적이며, 그 외에도 오디오북이 6,165점으로 10.5%를 차지함

<표 29> 자료의 유형별·매체별 현황

(단위: 권,종/%, 기준: 2022.4.29)

구분	합계	도서(권)				비도서(종)					
		소계	일반	아동	부산	소계	소장형 전자책	온라인 오디오북	DVD	구독형 온라인	연속 간행물
자료수	362,049	303,526	257,002	36,723	9,801	58,523	50,130	6,165	2,051	28	149
비율	100	100 (83.8)	84.7	12.1	3.2	100 (16.2)	85.7	10.5	3.5	0.05	0.3

- 소장자료 이외에도 구독형 온라인자료(네트워크형 전자책, 전자잡지, 원문DB 등) 28종을 구독하여 시민에게 서비스 중임

- 부산광역시 도서관 책이음 회원(부산시민 누구나)이면 홈페이지 또는 부산도서관 관내에서 이용 가능한 구독형 온라인자료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30> 구독형 온라인자료(Web DB) 현황

(단위: 종, 기준: 2022.4.29.)

구 분	DB명	내용
독서 (5)	구독형 전자책	구독형 전자도서(전자책, 오디오북) 약 55,000종
	시요일	시 큐레이션 콘텐츠 약 43,000편
	하이라이즈 라이브러리	어린이를 위한 영어원서 약 2,000권
	북코스모스	경제경영, 자기계발 등 도서요약본 약 6,000종
	오디오 라이브러리	미디어창비에서 제공하는 완독형 오디오북 약 800종
인문·예술 (7)	SERI&U 지식도서관	국내 인문·교양 강연 약 2,600편
	한국영상자료원 DB	한국 고전영화, 시나리오 원문 등 약 14,000건
	Medici.tv	오페라, 댄스, 콘서트 등 클래식음악 콘텐츠 약 2,500편
	Music and Dance Online	스트리밍 음악 약 1,100만개, 연구자료 45만 페이지
	Classical Scores Library	다양한 유형의 악보 검색 및 브라우징
	Wavve ON	실시간 방송, 영화, 드라마 콘텐츠 약 25만종
	Naxos Music Library	클래식 스트리밍 음악 약 260만개 및 음악학 관련 자료
신문·잡지 (4)	모아진	전자잡지 215종, 과월호 포함 약 20,000권
	The Vogue Archive	창간호~최신호까지의 패션 매거진 Vogue(미국판)
	Pressreader	전세계 신문, 잡지 약 7,000종 제공
	전자신문(키오스크)	전자신문 10종(중앙4종, 경제3종, 지방2종, 전문1종)
이러닝 (2)	다락원 사이버학원	영어/중국어/일본어/기타 외국어 등 250강좌
	아이티고 IT강좌	IT자격증, 실무 관련 약 1,400강좌
학술 (10)	DBpia	학술지 약 2,000종, 학술논문 230만편
	KISS	학술지 약 3,300여종(비정기간행물포함), 학술논문 140만편
	e-article	학술지 약 900종, 학술기관 600개
	스콜라	학술지 약 1,200종, 학술논문 40만편
	KoreaA2Z	한국학 12개 주제분야 100종 콘텐츠
	KRpia	한국학 및 인문사회과학 약 900종 콘텐츠
	ProQuest Central	약 160개 주제분야 원문 데이터베이스
	Ebook Central	전주제분야 학술 전자책 약 18만종
	국립중앙도서관 원문DB	일반도서, 고서, 공공간행물 등 약 800만건
	국회도서관 원문DB	일반도서, 학위논문, 세미나자료 등 약 400만건

2.2 지역자료 현황

2.2.1 납본 현황

- 「도서관법」 제20조, 제26조와 「부산도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에 근거하여 부산시 공공간행물 및 시 예산을 지원받아 발행한 자료를 대상으로 납본을 받고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할 자료의 대행도 실시함
- 2021년 한 해 동안 부산도서관에 제출된 공공간행물은 총 778종 1,760권이며, 이중 부산도서관 제출된 자료는 1,473권이고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대행 자료는 287권임
- 부산도서관에 납본된 자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료는 연속간행물로 전체 자료의 65%를 차지하고, 단행자료는 489권으로 33.2%를 차지함

<표 31> 납본 현황

(단위: 권/점, 기준: 2021.1.1~2021.12.31)

구 분	합계	단행자료	연속간행물	비도서	온라인자료	기타
부산도서관	1,473	489	957	22	5	-
국립중앙도서관	287	49	235	3	0	-
계	1,760	538	1,192	25	5	-

2.2.2 기증 현황

- 개관 이후부터 2022년 4월 29일까지 부산도서관 장서로 등록한 기증자료는 10,115권이며, 주제별 현황은 역사 2,854권(28.2%), 사회과학 2,339(23.1%), 문학 1,941권(19.2%), 예술 1,449권(14.3%)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32> 기증자료 주제별 현황

(단위: 권/%, 기준: 2022. 4. 29 기준)

연도		합계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2021	권수	8,798	472	93	122	2,139	169	487	1,398	26	1,659	2,233
	비율	100	5.4	1.1	1.4	24.3	1.9	5.5	15.9	0.3	18.9	25.4
2022	권수	1,317	76	12	11	200	5	54	51	5	282	621
	비율	100	5.8	0.9	0.8	15.2	0.4	4.1	3.9	0.4	21.4	47.2
합계	권수	10,115	548	105	133	2,339	174	541	1,449	31	1,941	2,854
	비율	100	5.4	1.0	1.3	23.1	1.7	5.3	14.3	0.3	19.2	28.2

- 기증자를 주체별로 살펴보면, 개인이 86명, 기관이 180개소이며, 총 기증자료는 37,509권임

<표 33> 기증 주체

(단위: 권, 기준: 2022.4.29)

연도	합계		개인		기관	
	명/개소	권수	명	권수	개소	권수
2021	162	3,935	64	1,477	98	2,458
2022	104	33,574	22	33,240	82	334
합계	266	37,509	86	34,717	180	2,792

2.3 이용 현황

2.3.1 도서관 회원 현황

- 부산도서관의 전체 회원가입자는 965,088명(2022년 4월 29일 기준)이고,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 847,087명(87.8%), 청소년 70,119명(7.3%), 어린이 47,882명(5.0%) 순임. 2021년 동안 연간 도서관 대출자 수는 1,770,771명이었음

- 부산도서관의 봉사지역인 부산시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인구 대비 회원가입 현황은 청소년 44.1%, 성인 29.6%, 어린이 14.9% 순으로 나타남

<표 34> 책이음 회원 현황*

(단위: 권/점, 기준: 2022. 4. 29)

구 분	어린이		청소년		일반		도서관 대출자**	부산시 인구수***
	봉사대상	회원수	봉사대상	회원수	봉사대상	회원수		
회 원	321,565	47,882	159,085	70,119	2,859,564	847,087	1,770,771	3,340,214

*책이음 회원 중 단체, 기타는 제외

**도서관대출자수: 2021.01.01.~12.31

***부산시 인구수는 외국인 제외

2.3.2 자료 이용 현황

1) 주제별 대출 현황

- 2021년 한 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자료의 주제별 대출 현황은 <표 35>와 같음. 총 대출 권수는 484,003권으로 1일 평균 대출 권수는 1,618권임
- 주제별 대출 현황을 보면, 문학(43.9%)과 사회과학(18.9%)에 집중되었고, 이 두 주제의 대출이 전체 대출의 62.8%를 차지했지만, 나머지 8개 주제 분야의 대출은 37.2%에 불과함
- 전체 대출에서 디지털존의 비도서자료(전자책·오디오북·DVD)의 대출 141,862건으로 전체 대출의 29.3%에 달함
- 디지털존의 자료 이용 현황을 보면, 문학(31.9%), 사회과학(25.5%), 총류(12.2%), 철학(9.9%)의 순으로 나타남. 즉, 전체 자료 이용 현황과 달리, 디지털존의 자료 이용은 문학의 비중이 크게 줄어든 반면, 사회과학, 총류, 철학

등의 자료 이용이 많았음

<표 35> 자료실 자료 이용(대출) 현황

(단위: 권/점/%, 기준: 2021.1~12)

구 분	합 계	총류	철학	종교	사회 과학	자연 과학	기술 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꿈 뜨 락	147,725 (30.5%)	1,948	1,702	1,077	10,012	15,902	5,327	2,153	4,734	92,074	12,796
책 마 루	91,834 (19.0%)	656	799	208	2,627	1,488	1,681	246	133	73,888	10,108
책누리터	101,929 (21.1%)	6,906	12,456	3,471	42,527	5,391	19,293	7,272	3,773	807	33
부산애들	621 (0.1%)	5	23	17	82	23	70	54	4	160	183
보존서고**	32 (0%)	0	0	0	3	0	2	5	0	5	17
디지털존*	141,862 (29.3%)	17,262	14,111	2,107	36,227	4,573	10,447	3,269	3,567	45,322	4,977
합 계	484,003	26,777	29,091	6,880	91,478	27,377	36,820	12,999	12,211	212,256	28,114
비 율	100	5.5	6.0	1.4	18.9	5.7	7.6	2.7	2.5	43.9	5.8

*디지털존: 비도서 구입자료(전자책·오디오북·DVD) 대출내역임.

**보존서고 자료대출 시행 : '21. 12. 14 ~

구독형 온라인자료 이용 244,869건 제외

2) 대출자별 대출 현황

- 이용자의 유형에 따른 자료이용 현황을 보면, 일반 이용자가 전체 이용의 78.6%를 차지하고, 이어서 초등학생 12.7%, 중·고등학생 6%, 유아 2.7% 순으로 나타남
- 주제별 대출 현황을 보면, 대출자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이용자는 문학 자료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특징적인 것은 일반인은 문학-사회과학-기술과학의 순으로 이용이 많았지만, 초등학생은 문학-자연과학-역사 순으로 나타남

<표 36> 대출자 유형별 자료 이용 현황

(단위:명/%, 기준: 2021.1.1.~12.31)

구분	합계 (비율)	총 류	철학	종 교	사회 과학	자연 과학	기술 과학	예 술	언 어	문학	역사
일반	268,833 (78.6)	8,012	13,568	4,263	48,514	14,917	22,386	8,016	6,622	125,337	17,198
중고등 학생	20,557 (6.0)	655	719	142	2,773	2,056	1,494	586	294	10,427	1,411
초등생	43,441 (12.7)	711	619	343	2,775	5,090	2,125	968	1,415	25,086	4,309
유아	9,093 (2.7)	98	102	15	1,074	739	339	138	221	6,133	234
합계	341,924 (100)	9,476	15,008	4,763	55,136	22,802	26,344	9,708	8,552	166,983	23,152

3) 구독형 온라인자료 이용 현황

- 구독형 온라인자료의 2021년 1년 동안의 이용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 열람 횟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전자잡지와 신문에 관한 DB로 전체 열람 건수의 42.6%인 104,311건으로 집계되었음. 10종의 학술 DB의 원문 검색 건수도 64,766건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4%로 나타남

<표 37> 구독형 온라인자료(Web DB) 이용 현황

(단위: 건, 기준: 2021.01.01.-12.31)

구분	DB명	콘텐츠열람수 (누계)		DB명	원문검색 수(누계)
독서 (4)	구독형 전자책	9,962	학술 (10)	DBpia	28,225
	시요일	19,405		KISS	13,568
	하이라이트 라이브러리	10,863		e-article	2,256
	오디오 라이브러리	2,901		스콜라	3,363
	소계	43,131		KRpia	1,532
인문·예술 (6)	지식 INSIGHT	7,303		KoreaA2Z	5,964
	한국영상자료원 DB	378		ProQuest Central	2,023
	Medici.tv	6,088		Ebook Central	3,079
	Music and Dance Online	1,508		국립중앙도서관 원문DB	3,876

구 분	DB명	콘텐츠열람수 (누계)	DB명	원문검색 수(누계)
신문·잡지 (2)	Wavve ON	5,038	국회도서관 원문DB	880
	Naxos Music Library	634		
	소계	20,949	소계	64,766
	모아진	27,334		
	Pressreader	76,977	총누계(연중)	244,869
	소계	104,311		
	다락원 사이버어학원	9,930		
이러닝 (2)	아이티고 IT강좌	1,782		
	소계	11,712		

일부 DB(Classical Scores Library, The Vogue Archive, 키오스크 전자신문) 이용통계 추출 불가
구독형 전자책은 2021. 11. 2. ~ 12. 31(2개월) 시범서비스 기간의 열람수, 월 4,981건

2.4 이관 현황

- 2022년 4월 29일 기준, 부산도서관은 2020년 12개관, 2021년 3개관의 공공도서관으로부터 총 116,615권을 이관 받음
- 이를 주제별로 살펴보면, 문학 29,553권(25.3%), 사회과학 24,231권(20.8%), 총류 12,249권(10.5%), 기술과학 11,340권(9.7%), 역사 9,583권(8.2%) 순으로 많았음

<표 38> 이관자료 주제별 현황

(단위: 권/%, 기준: 2022.4.29)

구분	합계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자료수	116615	12249	7,677	4,473	24,231	5,635	11,340	7,495	4,379	29,553	9,583
비율	100	10.5	6.6	3.8	20.8	4.8	9.7	6.4	3.8	25.3	8.2

- 부산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3조에 의한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지역의 도서관 자료 수입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 자료의 보존을 위해 정기적으로 자료이관을 시행함. 이용률은 저조하나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의

이관을 통해 단위도서관의 서고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쾌적한 자료실을 조성함과 동시에 지역자료의 전문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있음

- 부산도서관 보존서고는 지하층 2개 층과 지상층 1개 층을 포함하여 운영 중이며 최대 수장량은 1,500,000책, 2021년 12월 기준 수장량은 등록자료 기준 116,615책(점)임
- 2018년 ‘부산도서관 보존서고 자료이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이관방법 및 이관자료 정리지침 등을 수립함. 이관시 이관자료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물품관리전환합의서’를 제출하고, 부산도서관 자료로 등록·관리를 원칙으로 하며, 이관자료는 2책, 이관도서관 MARC 반입 등 자료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을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이 공동으로 합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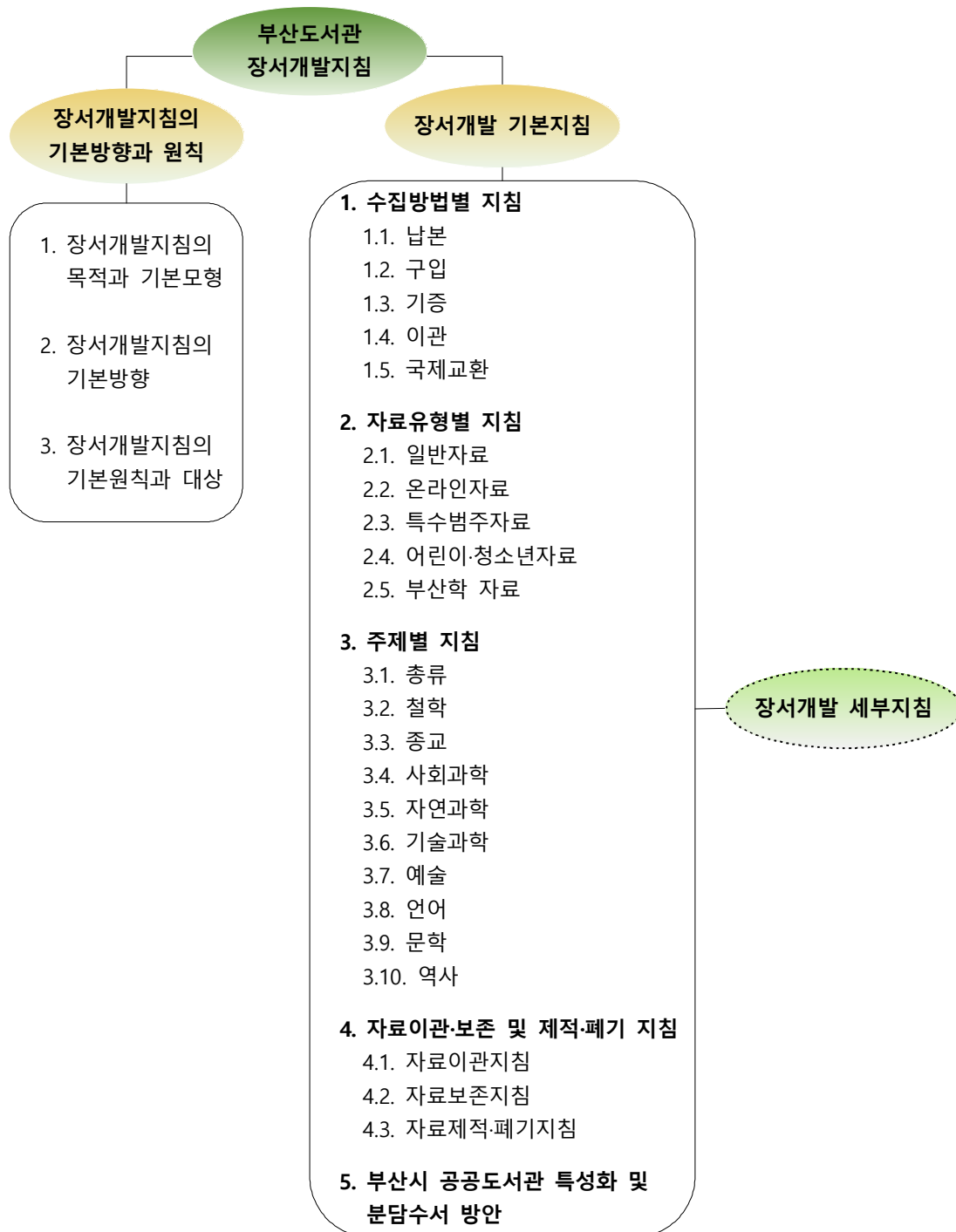
Ⅳ장

부산도서관 장서개발지침의 기본방향과 원칙

- 국내 대표도서관과 국외 대규모 공공도서관의 장서개발지침과 국내 출판 현황 및 국내외 공공도서관의 디지털자료 수집 추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부산도서관 장서개발지침의 기본방향, 원칙 그리고 지침을 제안함

1. 장서개발지침의 목적과 기본모형

- 장서개발과 관리에 대한 부산도서관의 기본 원칙과 실천 의지를 정립한다.
- 장서개발지침 수립을 통해 관내 및 국내외 도서관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장서개발에 있어서의 주도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 주제별, 자료유형별 장서개발 기준의 설정을 통해 미래의 장서개발을 위한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한다.



[그림 6] 부산도서관 장서개발지침 모형

2. 장서개발지침의 기본방향

- 부산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생산·유통되는 정보자료 중 부산도서관 자료로 수집하고 보존해야 할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현재뿐만 아니라 후대의 이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 부산도서관은 부산지역 차원 지식정보 수집·보존의 최우선기관으로 국내외 지식정보를 최대한 개발하여 수집·보존하는 지식문화 유산기관 및 학술연구정보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부산도서관은 IFLA의 ‘도서관과 지적 자유에 관한 성명’(Statement on Libraries and Intellectual Freedom)과 ‘디지털도서관선언’(Manifesto for Digital Libraries), 한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인 윤리선언’, 「저작권법」의 이념을 다음과 같이 장서개발지침 수립에 반영한다.
 - 도서관 장서에 대한 평등한 접근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며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를 위한 지적·정신적 풍요와 다양성에 대한 학습과 이해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를 위하여 부산도서관은 장서개발을 통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부산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자아 성장 의욕을 고취하며, 도서관 및 이용자의 자유를 지키고 정보접근 및 이용의 평등권을 확립한다.
 - 지역주민과 모든 이용자가 동등하게 각종 자료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서를 개발하며, 이를 위하여 인종, 사상, 종교, 성별, 나이, 직업, 기타 이유를 불문하고 비차별적이고 공정하게 적용한다.
 - 또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이용자의 공정이용을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장서개발과 도서관 서비스의 제공, 국가장서의 보존·관리에 있어 「저작권법」을 준수한다.

- 장서개발지침의 6가지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 도서관 장서개발지침의 이념적 기초에는 부산지역 모든 관종의 도서관을 대표하는 지역대표도서관, 부산시 및 소속 행정기관, 시 예산을 지원받아 발간한 모든 유형의 자료를 제출받는 납본도서관과 연구도서관, 부산의 지식문화를 축적·전수하는 보존도서관, 디지털 정보유통 시대를 선도하는 디지털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반영한다.
 - 장서개발지침의 범위는 자료수집의 차원을 넘어 모든 도서관 자료의 선정과 수집에서 제적과 폐기 그리고 보존까지 포괄하는 정보자원관리로 확장한다. 특히, 부산도서관이 부산지역 차원에서 보존의 최우선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보자원의 보존관리에 집중한다.
 - 장서개발지침의 대상에는 국내외에서 생산되거나 제작되는 도서·비도서 중심의 일반자료와 디지털 콘텐츠를 포괄하는 온라인자료, 이른바 하이브리드형 도서관 자료를 포함하며, 부산학연구의 메카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부산학 자료도 포함한다.
 - 장서개발의 방법은 납본, 구입, 기증, 이관, 국제교환, 매체변환 등을 적용한다.
 - 장서개발지침은 그 수혜 대상을 모든 부산시민으로 하여 최신자료와 소급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한다.
 - 주요 선진 도서관과 국내 대표도서관의 장서개발지침과 도서관 자료 환경 변화를 주시하여 장서개발지침에 지속적으로 반영한다.

3. 장서개발지침의 기본원칙과 대상

3.1 장서개발의 기본원칙

- 자료를 선택할 때는 도서관 및 담당자의 사상, 종교, 정치적 입장, 개인적 이해 관계 등을 초월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성과 공평성을 확보한다.
-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공공도서관이 구하기 힘든 고가 및 전문정보 자료를 확보한다.
-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자료 보존역할 수행을 위해 폐기보다는 보존을 우선시한다. 다만, 관외대출이나 관내 열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훼손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폐기지침에 따라, 기관장이 정하는 자료에 한하여 폐기할 수 있다.
- 부산학 자료, 귀중자료 및 행정간행물 등 모든 유형의 부산 관련 자료를 수집 보존한다.
- 장서개발은 지식문화적 중요성, 학술·연구적 가치, 잠재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주제별 균형을 유지한다. 다만, 장서개발과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지원을 위해 도서관 및 문헌정보학 자료는 4단계(연구수준)까지 수집한다.
- 모든 연령별, 계층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구성한다.
- 디지털자료는 이용 실정 및 시대변화에 맞추어 구성한다.
- 시민 희망 자료와 신간 자료를 신속하게 구입·비치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 담당 부서와 직원은 장서개발지침에 명시된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자료를 수집

하되, 더 상세한 지침과 기준을 준비하여 실무에 활용한다.

- 장서개발정책의 목적은 장서개발업무 수행의 체계성, 일관성, 합리성, 객관성, 현실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사회환경, 지식정보의 생산·유통 패러다임, 이용자 정보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수정·보완한다.

3.2 장서개발의 대상

- 일반자료는 인쇄 및 비인쇄자료 중에서 일반도서, 참고도서, 연속간행물, 회색 문헌(공공간행물, 학위논문, 단명자료 등), 지도자료, 사진자료, 악보 및 음악 관련 자료, 시청각자료(DVD, 블루레이, 슬라이드, 비디오테이프, 비디오디스크 등의 시각자료, 음반·카세트테이프, 오디오테이프, CD 등의 청각자료, 지구의, 표본 등의 모형자료) 등을 말한다.
- 온라인자료는 정보통신망¹⁴⁾을 통하여 공중송신¹⁵⁾되는 자료로서, 웹자료(문자자료, 음성·음향자료, 영상자료, 이미지자료 등), 웹사이트 등을 말한다.
- 특수범주자료는 자료의 속성, 제본형태, 생산과 유통경로, 기대수명 등의 측면에서 특수성을 고려하여, 고문헌과 다문화자료 등으로 구분한다.

1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15)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3 장서개발의 방법

<납본>

- 부산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본받아 부산 도서관장서로 등록하고 보존한다.

<구입>

- 부산도서관은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유산의 확보와 부산지역 연구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시민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국내외 자료를 구입한다. 특히, 지역 내 단위도서관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자료는 부산도서관에서 구입한다.

<기증>

- 부산도서관이 소장하지 않은 자료나 구입이나 교환 등의 방법으로 입수할 수 없는 자료는 기증으로 수집한다. 다만, 부산도서관 자료로서의 보존·관리 및 자료 이용 가치와 이용자 요구 등을 고려하여 세부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는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국제교환>

- 부산도서관은 공공간행물, 학술자료, 한국·부산관련자료, 문화예술인 자료 등을 부산시 교류협력 도시의 도서관과 협력을 통하여 최대한 수집한다.

<매체변환>

- 부산도서관은 구입, 제출(납본), 기증 등의 방식으로 수집한 자료 중에서 원형 보존이 필요하거나 내용적 가치가 우수함에도 파·오손이 심한 경우는 복사·영인본을 제작하거나 디지털화한다. 소장자료 중 고저작물이나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자료 중에서 원형 보존의 필요성과 이용 요구가 공존하는 경우는 원형 보존을 우선하지만, 디지털화도 병행하여 이용요구를 충족한다.

<이관>

- 부산도서관은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자치구군, 교육청)과 행정기관(시·시의회·시교육청, 시 소속 공사·공단, 시 출자·출연 기관, 구·군 및 해당 기관 자료실 등)으로부터 자료를 이관받는다. 더불어 지역공공도서관의 이관희망자료 중 최대 2복본(보존1, 열람 1), 부산지역자료, 귀중자료(고서, 해방 전 자료, 출판 이후 50년 경과한 자료),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도 이관받아 보존한다.

V 장

부산도서관 장서개발 기본지침

1. 수집방법별 지침

1.1 납본

1.1.1 기본지침

- 제출(납본)은 「도서관법」 제26조(도서관 자료의 제출), 「도서관법시행령」 제16조(제출대상 도서관 자료의 종류 등), 그리고 부산도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자료제출)에 근거한다.
- 부산시를 비롯한 조례에 규정된 의무제출 기관이 각종 자료를 전자버전으로 출시한 경우는 유형물과 함께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미제출한 경우는 기관 홈페이지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시민에게 접근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다.

1.1.2 세부지침

- 일반도서 중 「도서관법」 제26조(도서관 자료의 제출)와 「도서관법시행령」 제16조(제출대상 도서관 자료의 종류 등)에 해당하는 자료는 납본 수집을 원칙으로 한다.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은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도서관법」 제26조에 따라 발행일이나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3부를 부산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시 및 구·군, 시교육청과 그 소속 행정기관
 - ② 시 소속 공사 및공단
 - ③ 시의 출자·출연 기관
 - ④ 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자료를 발행·제작한 국가기관 및 법인·개인·단체
- 구·군 및 기관 등이 도서관에 제출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 ① 도서
 - ② 연속간행물
 - ③ 악보, 지도 및 가제식 자료
 - ④ 마이크로 형태의 자료 및 전자자료
 - ⑤ 슬라이드, 음반, 카세트테이프, 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
 - ⑥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유형물
 - ⑦ 점자자료, 녹음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 ⑧ 출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료

1.2 구입

1.2.1 기본지침

- 국내 대중자료 중 신간을 우선 구입(온라인자료의 라이선스 계약 포함)하고, 국내외 학술자료는 엄선 적용한다.
- 부산과 관련된 국내외 자료는 그 유형(매체), 기술된 언어(생산주체), 주제, 내용적 성격(대중성과 학술성)을 불문하고 최대한 구입한다.
- 국내·외 대중자료는 부산시민의 요구도와 자료의 내용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하고, 외국 학술자료는 이용 및 보존 가치를 기준으로 엄선한다.
- 국내 도서는 종류에서 역사까지 최대한 구입하되 주제별 균형을 유지하고, 외국 도서는 인문예술, 사회과학, 과학기술, 종교의 순으로 우선 수집한다.
- 국내 연속간행물 중 잡지는 지식습득, 취미생활, 여가활용, 시사성 등 대중지에 방점을 두고, 신문은 보수 및 진보성향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배한다.
- 시청각자료, 마이크로자료, 대체자료 등은 내용적 가치, 가독장비 확보 여부, 시민의 관심과 요구, 이용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입한다.
- 부산시와 관련된 과거 및 현재의 지도자료(지도, 지구의 등)는 최대한 구입한다.
- 전자도서는 이용통계, 가용예산, 이용자의 요구, 내용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구입방식(구매 혹은 구독)을 결정하며, 구독형 모델을 구입할 경우 서비스의 대상과 범위가 부산시민을 위한 라이선스 확보가 가능한지를 고려하여 구독한다.

- 온라인자료 중 학술지와 학술연구 도서가 수록된 전문 DB, 패키지형 전자잡지, 서지 DB는 부산시민의 요구, 연구도서관 역할을 위한 장서개발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구독·계약한다.

1.2.2 세부지침

- 부산도서관이 구입하는 국내 도서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최근 2년 이내에 발행된 신간 자료의 초판(단, 자료의 가치가 높은 자료일 경우 구간 자료라도 구입) 및 그 이후의 개정판 등(수정판, 보완판, 수정증보판, 완전개정판 등)으로서 이용률이 높은 자료
 - ②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로 객관성이 인정되는 자료로서, 주민의 정보요구와 연령 분포, 문화적 특성, 도서 열람 및 대출통계에 나타난 독서 경향을 반영한 자료
 - ③ 권위 있는 저자, 출판·제작자의 자료로서,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창작물
 - ④ 학문, 지식 및 과학기술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자료
 - ⑤ 지역적 특성 또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자료
 - ⑥ 시판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판권지가 없는 개인 저작물이라도 저명인사의 친필자료로 인정되는 도서
 - ⑦ 발행 연도가 다른 재판(Reprint)이지만, 내용상 변화(추가나 삭제)가 있는 경우
 - ⑧ 총 분량이 50쪽 미만이지만 내용적, 물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도서
 - ⑨ 부산학 자료 등 지역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
 - ⑩ 문헌정보 및 도서관 학문 관련 자료

- 부산도서관 구입에서 배제되는 도서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내용적인 부문>

- ① 가족윤리, 사회윤리, 성 윤리 등을 왜곡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료
- ② 각종 범죄행위를 묘사하거나 비도덕적인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 미화 또는 조장하는 내용의 자료
- ③ 역사적 사실을 지나치게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의 기본체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자료
- ④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는 등 도서관 자료로서 적절하지 않은 자료

<내용 이외의 부문>

- ① 내용, ISBN, 서지사항이 동일한 도서로서, 연도의 상이성과 관계없이 재쇄인 경우
- ② 도서의 형태를 취하지만 내용이 거의 없는 자료(다이어리, 한자연습장, 그림연습장, 독후감 노트, 그림본, 오선지만 그려진 자료, 미세본형 일회성 자료) 및 낱장자료(단어카드, 낱말카드, 퍼즐, 시계보기, 그림그리기)
- ③ 바인더, 링 등의 형태로 제작되어 유실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자료인 경우
- ④ 학습참고서, 학원교재 및 강의자료, 일반도서 중 (예상)문제가 다량 포함된 도서
- ⑤ 공중 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100책 이하의 개인 저작물
- ⑥ 각종 오락용 출판물
- ⑦ 어린이자료 중 스티커북, 색칠책
- ⑧ 물리적인 품질이 조잡하거나 내구성이 없는 자료

- 부산도서관이 구입하는 외국 자료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한국 또는 부산관련자료 및 한국인이 집필한 자료
- ② 문헌정보학 및 관련분야 주요 자료
- ③ 주제별 개설서 및 실용서, 참고정보원 성격의 원본자료
- ④ 세계 주요국에서 간행된 자료로서 정보가치가 우수한 학술서, 참고도서,

서지도구, 학술지, 시사지 등

⑤ 중국·일본·몽골·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지역의 기본자료

⑥ 국가 또는 대륙별 문화, 풍습, 풍물, 지리, 통계에 관한 자료

⑦ 세계 고전의 원본 자료

⑧ 다문화자료(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등)

1.3 기증

1.3.1 기본지침

- 부산도서관은 기관·단체(정부기관, 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전문기관, 도서관 등)와 개인(학술원 및 예술원 회원, 전직 및 현직 교수, 학교장, 전문 연구원, 개인 소장가 등)을 대상으로 국내외 자료를 기증받는다.
- 납본제도 시행 전 발행된 도서관 미소장자료(일반도서, 학술도서, 연구보고서, 연속간행물, 공공간행물, 멀티미디어, 시청각자료 등)는 기증받는다. 다만 도서관 장서개발지침 및 세부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나 복본은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 개인 및 단체가 소유한 자료 중에서 기증을 통한 장서의 질적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기증자료를 등록한다.
- 부산시 자치구·군 및 관련기관에서 발간한 자료 중 미소장본(도서, 연구보고서, 연속간행물, 공공간행물, 멀티미디어, 시청각자료 등)은 보존 가치 및 이용가능성을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수집하거나 기증을 요청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영인·복제, 디지털화 방식으로 확보한다.
- 기증 자료는 도서관 자료로서의 보존관리 및 자료 이용 가치, 이용자 요구 등

을 고려하여, 장서에 편입시킨다.

1.3.2 세부지침

- 기증으로 수집하는 대상자료는 다음과 같다.
 - ① 일반도서, 어린이·청소년도서, 학술참고도서, 연구보고서, 고문헌, 세미나 및 회의자료 등
 - ② 외국에서 발간된 자료 중에서 저자(제작자) 또는 그 내용이 부산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료
 - ③ 부산도서관 미소장 정책자료(부산시 및 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자료 등)
 - ④ ISBN 없이 출판된 독립출판물 및 1인 출판물 중에서 저자 또는 내용이 부산과 관련 있는 자료
 - ⑤ 기타 도서관장이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료 등
- 기증받은 자료 중에서 이용 및 소장가치 고려하여 다음의 자료는 등록에서 제외한다.
 - ① 도서관에서 이미 소장하고 있는 자료로 과도한 복본이 발생하는 도서
 - ② 발행 연도가 오래되어 학술적·이용적 측면에서 그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자료(백과사전류, 사전류, 연감류, 전집류 등)
 - ③ 아동·청소년 도서, 초·중·고등 교과서 및 참고도서 등 도서관 장서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 ④ 만화, 무협지, 수험서, 각종 문제집 및 문제해설서 등 학술적·이용적 측면에서 가치가 극히 낮은 자료
 - ⑤ 내용 및 삽화 등이 유해한 자료
 - ⑥ 단기정보, 일상적인 내용으로 발간된 자료로서, 낱장자료, 팸플릿, 각종 선전용 책자, 상품홍보 등의 자료
 - ⑦ 파손, 낙서 등 자료의 보존에 있어 훼손 및 파손의 정도가 심한 자료
 - ⑧ 판의 변화, 제도 및 법규의 개정, 기술 개발, 새로운 사실의 발견, 기타

환경변화로 이용 가치를 상실한 자료

⑨ 종교 관련 자료 중 경전(원전), 번역서, 주석서, 해설서 등을 제외한 선교용 자료

⑩ 특정 종교인을 위한 교리 문답이나 특정 종교 단체의 편향적 홍보 자료

⑪ 개인 또는 동호회 등에서 저술한 문집, 수필, 시집, 자가 출판물(비공식적 개인 출판), 족보자료 등 개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

- 등록에서 제외된 자료는 관련기관에 재기증하거나 도서교환전 등의 행사에 활용하거나 폐기하는 등 부산도서관 자료기증처리 기준에 따른다.

1.4 이관

1.4.1 기본지침

- 부산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3조(지역대표도서관 업무) 및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9조 5(보존서고)에 따라 보존서고를 운영하며 다른 기관의 자료를 이관받아 보존한다.
- 부산시 공공도서관, 부산시 소속 기관 및 교육청 소속 기관 자료실, 자치구·군 소속 자료실 등은 등록 자료 중 보존이 필요한 자료들을 부산도서관으로 이관할 수 있다.
- 부산도서관과 이관 기관 간 「물품 관리전환 합의서」 작성에 따라 서지데이터를 포함한 자료의 소유권은 부산도서관에 귀속된다. 단, 소유권의 전환을 원하지 않는 기관은 부산도서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자료를 이관할 수 있다.
- 부산도서관은 이관받은 자료를 선별하여, 부산도서관의 장서수집기준에 따라 장서로 편입한다. 장서수집기준에 편입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장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의 경우,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장서 편입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이관 주기는 연 1~2회로 하되, 귀중·희귀자료 등 긴급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 후 수시 처리할 수 있다.
- 이관받은 자료 중에서 최종 장서에 편입되지 못한 자료는 도서관의 장서폐기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1.4.2 세부지침

- 이관 대상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원형 보존이 중요한 자료

가. 귀중서 : 자료의 역사성, 수량의 한정성, 학술연구로서의 가치 등을 고려

- 한국: 1659년(효종연간) 이전의 자료
- 중국: 1644년 송정(崇禎) 이전의 자료
- 일본: 1614년 경장(慶長) 이전의 자료
- 서양: 부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간행 또는 필사된 도서

나. 고서

- 한국: 1945년 이전에 간행 또는 필사된 도서
- 중국: 1911년 이전에 간행 또는 필사된 도서
- 일본: 1867년 이전에 간행 또는 필사된 도서

다. 향토자료 : 부산관련자료

② 보존이 필요한 일반자료

가. 이용률이 저조한 자료

나. 오래된 자료(1980년 이전의 자료)

다. 개정판이 발간된 구판자료(사전, 법령자료, 통계자료)

③ 그 밖에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이관 제외자료는 다음과 같다.
 - ① 과도한 복본자료(3복본 초과), 단 귀중도서는 제외한다
 - ② 오·훼손 상태가 심각한 자료
 - ③ 판의 개정에 따른 내용변화가 크지 않은 자료(각종 자격증, 문제집 등 수험자료)
 - ④ 그 밖에 도서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자료

1.5 국제교환

1.5.1 기본지침

- 부산도서관은 부산시 교류 협력 도시를 대상으로 교류 도시간의 공공간행물, 지역관련자료, 지역문화예술인자료 등을 교류 도시(도서관)와 협력을 통하여 최대한 수집한다.

1.5.2 세부지침

- 국제교환으로 수집하는 대상자료는 다음과 같다.
 - ① 교류 도시의 주요 공공간행물, 정책자료, 통계자료, 학술연구기관 발간자료 등
 - ② 교류 도시의 역사문화자료, 관광자료 등 지역문화자료 등
 - ③ 교류 도시의 유명 문화예술인(작가, 미술, 음악, 영화 등 창작분야 관련자) 관련자료
 - ④ 아동도서,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등 교류국의 순수 창작물
 - ⑤ 기타 교류 도시 희망자료

2. 자료유형별 지침

2.1 일반자료

2.1.1 기본지침

1) 일반도서

- 일반도서는 장서구성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핵심 자료일 뿐만 아니라 장서개발지침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 자료로 수록된 정보가치와 이용집단의 요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개발한다.
- 국내 일반도서는 구입 방식으로 수집하고, 기증, 납본 등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최대한 수집한다. 다만, 자료적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교재 등은 그 자료적 가치를 고려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수집한다.
- 국내 일반도서를 구입할 때는 주제별 출판 비율 및 대출데이터를 연계 분석하여 주제별 및 이용계층별 편향성을 해소한다.
- 국내의 고서, 희귀서, 귀중서, 절판자료 등은 원본 구입 및 기증을 통한 수집을 원칙으로 하되, 그것이 불가능하면 영인·복제, 디지털화 등의 방식으로 개발한다.
- 외국 일반도서는 자료구입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에서 발간하는 자료의 학술적 가치와 이용자 요구를 위주로 엄선 구입한다.

2) 참고도서

- 사전, 백과사전, 편람, 연감, 인명정보원, 지리정보원, 색인·초록지, 도서목록 등을 말한다.
- 연감이나 백서 등은 연도별 결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체크하여 결락을 방지하고, 개정판이 발간된 사전 등은 확보한다.
- 부산시와 관련된 지도, 지도첩 등 지리정보원은 수집한다.
- 색인초록지 등은 디지털 버전을 우선 확보한다.
- 디지털 파일로 유통되는 비매품 정부간행물 중 참고도서는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한 다운로드 및 디지털 아카이빙에 주력한다.

3) 연속간행물

- 연속간행물은 종간을 예정하지 않고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잡지(대중지, 학술지), 소식지, 연간보고서, 연감, 신문 등을 말한다. 부산도서관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각종 연속간행물(대중지, 학술지, 연감, 연보, 신문)을 최대한 수집한다. 다만, 기증자료는 종단위자료의 연속성을 갖는 범위를 준수하며, 날권자료는 결호 확충의 필요시에 허용한다. 국내 연속간행물이 일반자료와 온라인자료로 발간되는 경우, 일반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하고, 소장기능과 접근성의 균형을 추구하기 위하여 온라인자료도 병행 수집한다.
- 최신성, 계속성, 일관성 유지가 가능한 다양한 분야의 간행물로서 이용자 선호도 및 인지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 외국 연속간행물은 부산시 교류 도시와 관련된 자료 및 그 외 다문화, 일반적인 관심을 반영하는 교양지 중심으로 구입하거나 온라인 접근·이용권을 확보한다.

- 비용부담이 큰 국내외 전자형 학술지 DB나 패키지형 학술지는 서비스 대상범위, 구독비용 등을 엄선하여 사이트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부산도서관 관내 또는 부산광역시 도서관 책임음 회원대상의 온라인 접근·이용을 보장한다.

4) 회색문헌

- 공공간행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간한 정책자료, 백서, 연감, 연보, 보고서, 통계집 등을 최대한 수집한다.
- 국내 회색문헌 중 부산시에서 생산된 것은 최대한 수집하고, 그 외연을 광역 및 국가 차원으로 확대한다.
- 지역특색자료(부산학 자료 등)는 최대한 수집한다.
- 단명자료(팸플릿, 리플릿, 포스터, 브로슈어, 초대장, 광고 전단지, 프로그램 및 카드 등)는 부산시와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한다. 사실적 정보나 서술적 정보 혹은 디자인이나 로고, 초상화 등과 같이 시각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충분한 자료를 우선 수집하고 원형 보존이 어려울 경우, 사진 복사 또는 디지털 파일로 확보한다.
- 기타 각종 연구 및 조사보고서, 학술대회 및 세미나 자료집, 회의자료 등의 회색문헌은 선택적으로 수집한다.
- 무료 제공 또는 오픈 액세스 회색문헌은 포털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수집한다.

5) 지도자료

- 지도자료(지도, 차트, 지도책, 지구仪, 지도제작과 관련된 자료, 지리정보원 등)는 원본 수집을 우선한다.
- 부산시와 관련된 고지도 및 역사지도 자료는 최대한 수집하고 외국에서 생산된 부산 관련 지도는 구입, 기증 요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한다.
- 지도 중 세계지도, 대륙별 지도, 해양지도, 한국지도, 부산시 및 자치구·군의 교통·생활·여행과 관광 등의 지도는 최소한 1매씩 확보한다.
- 낱장지도, 차트, 지도책, 항공탐사 및 원격탐사 이미지, 지도 및 지도 제작과 관련된 문헌, 지리정보원 등이 포함된다. 한국 역사를 보완·조명하는 역사적 지도자료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발한다.
- 고지도 등은 구입을 우선하고 기증이나 수탁 등의 방안도 강구한다. 고지도는 특수범주자료에서도 기술한다.
- 최신 지도자료는 일반자료와 온라인자료를 불문하고 법적 납본, 지도 제작 및 유통기관의 기증, 구입 등을 통하여 최대한 수집한다.
- 인쇄본과 전자버전이 공존하는 최신 지도자료는 전자버전을 우선 수집한다.

6) 사진자료

- 인물, 역사적 사건, 건축물, 자연환경, 문화유산, 각종 행사 등을 촬영한 낱장 형태의 시각자료를 말한다.
- 부산시의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 건축물, 자연환경, 문화유산, 주요 행사 등을 촬영한 낱장 형태의 사진자료는 실물 구입을 우선하되 기증요청, 유증, 복사본

제작, 사진촬영, 디지털화 방식을 병행하여 수집력을 높인다.

- 주요 사진자료 중 보존 가치가 우수함에도 변색이나 오·훼손 등으로 원형 보존이 어려울 때는 디지털 매체변환을 통해 보존력과 가시성을 높인다.
- 사진자료는 원본 수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입, 기증 등의 방식으로 수집한다. 특히 한국의 역사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 및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사진자료는 원본 또는 사본을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보존하는 동시에 디지털화하고, 사료적 배경 등을 해제·기술한다.

7) 악보 및 음악 관련 자료

- 인쇄자료 중심의 음악 장서를 보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중요한 희귀성 음악자료, 유용한 참고자료 등을 포함하여 수집한다.
- 국제적으로 저명한 한국 출신 작곡가의 악보·습작·사적자료, 유명한 음악 출판사나 연주단체의 관련 자료, 작곡가 및 연주자의 원본 자료와 사본은 구입, 기증의 방식을 병행하여 수집한다.

8) 시청각자료

- 부산도서관 장서로서의 내용적 가치와 부산시민의 요구를 기준으로 수집한다.
- 시각자료(DVD, 블루레이, 슬라이드, 비디오테이프, 비디오디스크 등), 청각자료(음반, 카세트테이프, 오디오테이프, CD 등), 실물 또는 모형자료(지구의, 표본 등)를 포괄한다. 다만 원본 수집을 통한 원형 보존의 필요성이 강조되지 않는 시청각자료는 디지털 포맷을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 장애인 대체자료(녹음테이프나 CD, 수화 자막이 포함된 DVD, 동영상 콘텐츠 등)는 최대한 수집한다.

- 부산시 주요 인물 및 생활, 문화 등을 대담, 인터뷰, 녹음·녹취, 사진 촬영 등의 방식으로 개발한다.
- 부산도서관의 기존 장서에 포함되어 있는 시청각자료는 디지털 정보기술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여 주기적으로 매체재생, 포맷변환 등을 통하여 접근성과 보존력을 높인다.

9) 기타

- 규격 및 특허자료는 선택적으로 수집하되, 수집하지 않는 규격 및 특허자료는 특허청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의 사이트를 통하여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1.2 세부지침

1) 일반도서

- 일반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하고, 학제적 및 주변적 자료는 온라인자료를 우선함으로써 소장과 접근의 융합형 장서개발을 지향한다. 전집은 선택적으로 수집한다.
- 각 주제 분야의 대표적 인물의 저작이나 그 인물에 대해 기술한 도서는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국가 및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주제에 관한 도서는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 개정판, 수정증보판 등은 최대한 수집한다.
- 단행본과 문고판이 공존하는 경우에는 단행본을 우선 수집한다.

- 일반도서 수집에 있어 주요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저자의 권위: 저자의 이력, 연구, 실무, 집필 경험, 저술의 충실도와 참고자료의 신뢰성과 적합성, 서술의 정확성과 객관성, 포함된 사실과 이론에 대한 이해도, 저술의 저자주관성, 주장과 관점의 공평성 등, 저작의 질, 창조성, 형식, 저술의 독창성, 명료성, 난이도, 저작의 공헌도
 - 주제와 범위: 서술된 주제, 주제의 시의적절성, 주제의 범위, 주제의 역사성과 관점, 상황, 다른 주제와의 관련성
 - 물리적 특성: 적절한 도표·도판·지도·참고문헌·색인·부록의 유무, 인쇄의 선명도, 용지, 활자의 크기
 - 이용 가치: 수록된 정보의 유용성, 학술적·문화적·사회적 공헌도, 독자의 흥미와 지적 관심에의 부합도, 지적 재생산성, 오락성 등 독서의 목적에 대한 부합도
- 외국 일반도서의 복본 수집은 1종 1책을 원칙으로 한다.
- 독립출판물 및 1인 출판물의 경우, 부산지역 및 부산 관련 주요 이슈에 관한 출판물인 경우 및 이용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집하되, ISBN 없이 유통되는 독립출판물의 경우 기증방식으로 수집하는 것을 고려한다.
- ISBN이 없거나 저수준 교재 등은 극히 제한적으로 수집하되, 다음의 자료는 수집에서 배제한다.
 - 개인이나 단체를 홍보, 광고할 목적으로 간행된 자료
 - 특정 상품, 특정 시설을 소개, 광고하는 등 상품의 판매·권유를 목적으로 간행된 자료
 - 입시, 각종 고시, 취업시험 수험생을 위한 문제집
 - 게임 관련 도서
 - 위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저속하거나 불온 또는 불건전한 자료
 - 폭력이나 범죄를 용인하거나, 잔학성을 조장하는 자료, 인권에의 배려가 결여되는 자료 및 성적 표현이 과격한 자료
 - 객관적 출처를 가진 정보원에 수록된 리뷰가 없거나 도서관 장서로서 가치가

- 없다고 판단되는 독립출판물 및 1인 출판물
- 자료의 형태상 서비스와 보존에 적합하지 않은 것

2) 참고도서

- 국내 참고도서(사전, 백과사전, 편람, 연감, 인명정보원, 지리정보원, 색인, 초록지, 도서목록 등)는 최대한 수집한다.
- 국내 참고до서를 수집할 때는 학술적 가치를 가장 중시하고, 외국 참고до서는 세계적으로 지명도가 높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출판사의 간행물을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 참고до서가 다양한 버전으로 유통되는 경우에는 일반자료를 우선 수집하고, 온라인자료는 접근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완 수집한다.
- 소장하고 있는 참고до서의 개정판 및 증보판은 반드시 수집하여 최신성을 유지한다.
- 참고до서 수집에 있어 주요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저작사항: 저자·집필자·편자의 전문성, 출판사의 전통과 성격 및 실적, 유사도서 출판 경험, 출판연도, 개정판일 경우 개정의 범위
 - 주제와 내용: 주제의 지역적·시대적 범위, 대상 독자층, 기술된 항목 수, 데이터 최신성, 용어와 문장의 적절성
 - 배열과 구성: 항목의 배열체계, 관련어에 대한 참조 여부, 참고문헌 제시 여부, 부록·보유자료·상관색인 여부
 - 물리적 형태: 분량 및 권수, 제본의 내구성, 낙장·파손 여부, 지질과 활자 크기, 도판의 분량

3) 연속간행물

- 부산도서관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각종 연속간행물(대중지, 학술지, 연감, 연보, 신문)을 다양하게 수집한다. 도서관, 부산학 관련 연속간행물은 특히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 이용 빈도가 높아 훼손이 심한 국내 연속간행물은 디지털 매체변환하여 원본은 보존하고 대체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 부산 및 부산학과 관련된 연속간행물은 일반교양 잡지에서부터 학술적·전문적인 잡지까지 망라적으로 수집한다.
- 학술지는 구독비용 대비 이용 비용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심사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핵심 학술지의 인쇄자료를 우선 구독하고, 기여도가 낮은 학제적 학술지와 주변 학술지는 라이선스를 확보하여 온라인 접근성을 제공한다.
- 국내외 전자저널 및 웹 DB 자료를 선정 수집(구독)하여 국내외 주요 저널을 실시간 서비스함으로써 연속간행물의 통합적인 장서구성을 내실화하고 보완한다.
- 신문은 원본 수집을 원칙으로 하되, 소급 자료일 때는 축쇄본, 마이크로형태, 전자버전의 수집 또는 이용가능성을 검토하여 대체본 위주로 우선 수집한다.
- 전자저널 구독을 위한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학술지 통합검색 및 정보서비스의 활용성을 고려한다.
 - 이용자, 관련 부서, 외부 전문가 추천율, 기존 웹 DB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학술정보로서의 유용성 및 구독비용 등을 평가하여 가격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 자료검색 및 접근 등 서비스의 연속성을 고려한다.

■ 다음의 연속간행물은 수집 또는 개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 주로 광고정보, 판촉정보, 상품정보를 게재한 잡지
- 지역 단위의 교회, 클럽, 취미 및 운동단체, 비전문학회, 서비스조직, 학교 등에서 발행된 특정 이해집단에게 공지하기 위한 소식지
- 기업이나 단체의 홍보성 및 사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뉴스레터
- 기업의 중간재무제표, 분기재무제표, 사업설명서 등을 포함한 연간보고서(상장기업의 연간보고서는 제외함)
- 지역별 및 업종별 전화번호부(국가에서 발간한 전화번호부는 제외함)
- 학원교재 및 강의자료
- 원본의 출처가 불명확한 영인본 등 대체자료

4) 회색문헌

■ 부산도서관이 수집하는 회색문헌의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부산시에서 발간한 출판물(부산시보, 의회자료, 통계자료, 법규, 예결산서 등)
- 정부 및 관련 부처에서 발간한 출판물(연감, 백서, 각 부처별 연구자료 및 통계자료 등)
- 단명자료
- 기타 학술대회 및 세미나 자료집, 회의자료, 각종 보고문헌 등

■ 회색문헌을 수집할 때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회색문헌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출판물을 선정한다.
- 부산시 유관 기관의 출판물 중 부산학 자료로 분류할 수 있는 회색문헌은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 부산학 자료에 해당하거나 특별히 이용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공공도서관의 자료로서 일반시민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 부산시 및 중앙정부, 기타 자치단체에서 발간된 자료와 지역 특색자료(부산학

자료 등)는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정부 및 관련 부처 등 국내에서 생산된 공공간행물은 최대한 수집한다. 공공간행물의 생산기관 및 대상 자료의 주요 범주는 아래와 같다.

- 부산시에서 발행하는 정책자료, 통계, 연감, 회의록, 예산집행 관련 자료, 지역사회 연구보고서 등
 - 정부 및 산하기관의 정책자료, 연구보고서, 백서, 연감(연보), 통계자료, 지도자료 등
 - 부산의 주요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중장기 기본계획, 통계자료, 각종 보고서(연구활동, 사업실적, 투자분석, 경영평가 등), 역사자료 등
 - 부산시 교육청이 생산하는 연수교재, 평가자료, 각종 통계 및 관련 자료
 - 부산시 이외 자치단체의 행정간행물 중 부산시와 관련이 있는 자료
-
- 도서관이 수집할 회색문헌의 포맷은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 일반자료
 - 온라인자료
-
- 각종 회색문헌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연구재단, 대학도서관 등과 협력하여 접근성을 높인다.
-
- 공공간행물
 - 부산도서관이 납본, 기증 등으로 수집하는 공공간행물의 생산기관 및 대상 자료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정부 및 산하기관의 정책자료, 연구보고서, 백서, 연감(연보), 통계, 지도자료 등
 - 부산시가 발행하는 정책자료, 통계, 연감, 회의록, 예산집행, 지역사회 연구보고서 등
 - 국회 및 지방의회,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등이 공식적으로 발간한 자료
 - 공공기관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중장기 기본계획, 통계자

- 료, 각종 보고서(연구활동, 사업실적, 투자분석, 경영평가 등), 역사자료 등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발간자료
- 부산시 교육청이 생산하는 연수교재, 평가자료, 각종 통계 등 교육 관련자료 및 각급 학교 발간자료
- 도서관이 수집할 공공간행물의 포맷은 발행 국가나 주체를 불문하고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 일반자료
 - 온라인자료

■ 단명자료

- 단명자료(팸플릿, 리플릿, 포스터, 브로슈어, 초대장, 광고 전단지, 프로그램 및 카드 등)는 이용 및 보존 가치를 중심으로 선별·수집한다.
- 부산에 관한 자료 또는 범국가적으로 관련된 자료는 중점적으로 수집한다.
- 단명자료 수집의 주요 범주는 다음과 같다.
 - 국가 및 부산시 산하 자치구·군의 각종 선거와 관련된 자료
 - 부산 내 기관, 단체의 실질적 정보를 수록한 자료
 - 한국 및 부산의 특징과 사회적 동향을 다룬 자료 및 시민사회단체나 운동조직과 관련된 자료
 - 부산과 관련되거나 역사적으로 부산을 설명하는 것으로 중요한 정보가 수록된 자료
 - 국가적, 국제적으로 중요한 행사 및 회의와 관련된 자료
 - 프로그램이 포함된 공연예술 홍보용 팸플릿이나 초대장 등
 - 국내외적으로 유명한 예술극단의 공연 관련 자료
 - 도서 출판 및 유통정보에 관한 자료
 - 국내 기관단체의 실질적 정보를 수록한 자료
 - 한국 사회의 특징과 동향을 다룬 공개 토론자료 및 시민사회 단체나 운동조직과 관련된 자료
 - 지역과 관련되거나 역사적으로 관심 지역을 설명하는 것으로 중요한 정보가 수록된 자료

- 국가적, 국제적으로 중요한 행사 및 회의와 관련된 자료
- 국가적으로 중요하거나 수집할 정보 가치가 충분한 포스터 등

■ 기타

- 학술대회 및 세미나 자료집, 회의자료, 각종 보고문헌 가운데 국내 자료는 포괄적 수집을 지향하고, 외국 자료는 정보가치를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수집한다. 특히 외국의 보고문헌은 외국공관, 선진국 과학기술 단체, 국제기구 등을 통해 일괄 구입하고 기증·교환을 통하여 보완한다.

5) 지도자료

- 국내외 각종 지도자료(날장 지도, 차트, 지도책, 항공탐사 및 원격탐사 이미지, 지도 및 지도제작과 관련된 문헌, 지도정보원 등)는 최대한 수집한다.
- 지도자료의 유형별 및 매체별 수집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한국 및 부산의 날장지도
 - 한국 및 부산 관련 지도책
 - 세계 및 아시아 날장지도
 - 지리정보원
 - 지도 및 지도 제작과 관련된 문헌
 - 차트, 항공탐사 및 원격탐사 이미지
- 인쇄자료와 전자자료가 공존하는 최신 지도자료의 경우 전자자료를 우선 수집한다.
- 부산의 최신지도 및 관련지도는 수록 매체에 관계없이 구입 또는 기증을 통하여 수집한다. 특히 외국에서 생산 또는 유통되고 있는 부산 관련 지도는 중점 수집한다.

- 부산과 인근 지역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부산시와 관련된 고지도 및 역사성이 있는 지도자료는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 고대 및 최신의 지명사전은 국가나 언어를 불문하고 철저하게 수집하고, 영인 복제 및 디지털 아카이빙도 강화한다.

6) 사진자료

- 각종 사진자료(인물, 역사적 사건, 건축물, 자연환경, 문화유산, 각종 행사 등)는 원본 위주로 적극 구입한다.
- 부산시의 주요 인물 및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사진자료는 원본 또는 사본을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디지털화하고 보존한다.
- 다만, 한국의 주요 인물 및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사진자료는 원본 또는 사본을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수집·보존한다.

7) 악보 및 음악 관련 자료

- 부산 출신의 저명한 작곡가의 악보·습작·사적자료, 유명한 음악출판사나 연주 단체의 관련자료, 작곡가 및 연주자의 원본 자료와 사본은 구입, 기증, 유증의 방식을 병행하여 수집한다.
- 희귀성 음악자료, 주제나 독자를 지원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 등도 수집한다.

8) 시청각자료

- 각종 시청각자료(DVD·블루레이·슬라이드·비디오테이프·비디오디스크 등의 시각자료, 음반·카세트테이프·오디오테이프·CD 등의 청각자료, 지구의·표본 등의 실물 또는 모형자료)는 선택적으로 수집한다.

-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등 모든 이용자가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을 고려하여 수집하며, 조사·연구에 이용할 수 있는 시청각자료 역시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 시청각자료 수집을 위한 일반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도서관 장서로서의 유용성
 - 기존 장비의 적응성과 활용성
 - 적시성과 중장기 보존성
 - 저자 또는 제작기관의 명성과 인지도
 - 자료 및 부대장비의 구입가격
 - 이용자의 요구와 추천
 - 부대자료의 이용가능성
 - 수록 용기의 내구성과 수록된 정보의 수명
- 원형 보존의 중요성이 낮은 시청각자료는 디지털 포맷으로 수집한다.
- 시청각자료는 디지털 정보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매체변환하여 접근성과 보존력을 높인다.
- 장애인을 위해 제작된 시청각자료는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다양한 언어를 제공하고 있는 자료도 수집하되, 장애인용 시청각자료에 대해서는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관발정책을 준용한다.

2.2 온라인자료

2.2.1 기본지침

- 온라인자료는 소장형(설치형, 업로드 등)과 구독형(네트워크형, 접근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장형 자료는 구입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전자책의 일부가 해

당된다. 구독형 자료는 최신성이 중요한 자료로서 소장(구입)하는 전자책을 제외한 네트워크 전자책과 전자저널, 오디오북, 서지 및 원문DB 등을 포함한다.

- 부산도서관 온라인자료의 범위
 - 소장(구입)형 자료: 전자책, 오디오북
 - 구독형 자료: 전자책(네트워크형), 전자저널, 오디오북, 서지 및 원문DB 등
- 온라인자료(전자책, 전자저널, 전자신문, 오디오북, 서지 및 원문 DB 등)는 내용적 가치, 사이트 라이선스 비용, 부산시민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수집한다.
- 온라인자료는 대표적인 서지DB, 사회과학분야 전문지식DB, 부산학 연구를 위한 학술정보(통계DB, 조사데이터, 법령정보, 지도자료, 정책문서 등), 시소러스, 희귀자료와 절판자료, 그리고 상업DB 등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 수집한다.
- 온라인자료의 구독은 매년 기관과 부산시 거주 분야별 전문가, 이용자의 요구,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세운다. 상시적으로 이들을 통해 장서구성 성과 이용자 데이터 분석을 하여 온라인자료의 개발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1) 문자자료

- 문자자료는 전자책, 전자저널, 학위논문, 보고서, 전자신문 등의 디지털 포맷으로 제작되는 디지털 콘텐츠를 말한다.
- 온라인자료 중에서 전자책과 전자저널은 부산시민의 원격 접근·이용을 보장하는 동시에 접근·검색의 편의성, 동시 접속자 허용기준, 사이트 내에서의 복제와 다운로드, 원격복사 및 원문제공서비스, 디지털 아카이빙이 허용되는 것을

우선 확보한다.

2) 음성·음향 자료

- 음성·음향자료는 음악자료(음원), 음성자료(강의, 연설, 인터뷰, 오디오북 등), 음향자료(효과음 등) 등을 말한다.

3) 영상자료

- 영상자료는 방송, 영화, 공연, 이러닝자료 등을 말한다.

4) 이미지자료

- 2차원 또는 3차원의 화면에 재생 및 표시된 시각자료로서 사진, 회화 등의 자료를 말한다.

5) 웹사이트

- 웹사이트의 종류와 형태는 「도서관법」 제20조의2제6항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6) 실감형 콘텐츠

-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를 기반으로 하여 인간의 감각기관과 인지 능력을 자극하여 실제와 유사한 경험 및 감성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유형의 콘텐츠를 통칭한다.

2.2.2 세부지침

- 온라인자료는 인터넷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거나 도서관이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한, 제공자와 원격접근에 대해 협의한 콘텐츠스트림(Content Stream) 형태의 자료이다.

- 온라인자료의 유형은 라이선스 계약형 전자책, 전자잡지, 음성·음향, 영상, 이미지, 온라인 DB 등의 네트워크 계통의 전자출판물과 도서관 소장자료를 디지털 사본으로 제작한 자료를 포함한다. 도서관은 전자출판물을 구입과 구독의 방식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구입한다.
- 이용자의 요구도, 인쇄매체와 비교한 상대적 우수성, 주제영역과 이용자 지적 수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주요 O/S와 웹브라우저에서 서비스가 가능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선정한다.
- 최신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소장권보다는 이용권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한다.
- 처음부터 온라인 버전으로 발간된 디지털 자원(Born Digital)을 우선적으로 수집하고 오리지널 자원이 아닌 경우에는 도서관 장서를 보완하거나 향상시키는데 적절한지를 평가하여 선택적으로 수집한다.
- 가변성이 높은 동적 출판물은 업데이트 전후의 내용 및 구성 체제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선택한다.
- 온라인자료의 포맷(파일형식 등)이 여러 종류일 경우에는 여러 형태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ISO 국제 표준 포맷(PDF/A) 및 전자책 표준 포맷(ePUB)을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 온라인자료의 라이선스 계약기준은 다음과 같다.
 - 온라인자료의 구매는 우선 국내의 정보 수요를 조사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되, 국내 다른 도서관과의 중복추진을 지양한다.
 - 모든 구매자료는 원자료(Raw Data)를 인도받는 조건으로 아카이빙을 추진한다.

- 도서관은 온라인자료를 라이선스 계약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 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의 정의
 - 이용할 권한이 있는 이용자의 범주
 - 합법적 이용의 범위
 - 도서관과 출판사의 쌍방 간 임무
 - 계약의 기간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라이선스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

■ 일반 이용자를 위한 온라인 전자잡지는 다음 평가 요소를 참고하여 선정한다.

- 주제 분야의 적합성
- 구독 기간 중 혹은 만료 후의 아카이브 가능성
- 이용통계 및 메타데이터 제공형식의 다양성
- 검색을 위한 다양한 편의 기능 제공
- 기타 온라인 서지 DB와의 연계성
- 출판사의 권위와 평판
- 갱신 및 개정의 신속성
- 전자잡지 사이트 설계의 일관성과 논리적 구성
- 전자잡지 사이트로의 접근 용이성
- 도표 및 사진 등의 선명한 인쇄 지원
- 내용상 문법과 철자의 정확성

■ 온라인자료의 라이선스 계약의 구독 중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원 정보의 최신성 또는 신뢰성을 상실한 것
- 다른 DB나 전자자원의 수록 범위가 더 포괄적이거나 우수한 경우
- 라이선스 구독 비용이 지나치게 고가인 경우

1) 문자자료

- 인터넷 정보(인터넷에 탑재된 파일 단위의 전자책, 전자잡지, 공공간행물, 보고서, 학술논문, 통계자료, 법률정보 등)는 전략적으로 개발하되, 최대한 확보한다.
- 오프라인 전자출판물이 인쇄형과 함께 유통될 경우에 양자를 수집하되 인쇄형 자료를 우선 수집한다.

2) 음성·음향자료

- 오디오북은 전문 성우나 저자가 직접 책을 낭독하여 눈으로 읽는 대신 귀로 들을 수 있게 제작한 디지털 콘텐츠로, 자료의 최신성 및 작품별 판매율이 높은 오디오북을 수집한다.
- 음원은 국악, 대중음악, OST, 클래식, 종교음악, 아동음악 등 유·무선 기반하에서 음원 전체를 스트리밍·다운로드할 수 있는 디지털 음악으로 우리 민족 고유의 국악자료, 국내 아티스트의 대중음악자료, 인디음악자료 등을 중점적으로 수집한다.

3) 영상자료

- 방송자료란 방송사 제작 또는 외주 제작의 시사, 교양, 뉴스 등 프로그램 콘텐츠를 말한다.
- 이러닝(e-learning)자료란 유·무선방송, 통신망, 인트라넷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관련 지식과 정보에 접근하여 교육 또는 학습할 수 있는 교육용 콘텐츠를 말한다.
- 영상자료는 현재 및 미래의 정보요구에의 유용성, 저작(제작)자의 평판, 제공된 정보의 유일성, 학술적 내용과 가치, 수록 정보의 최신성, 업그레이드 빈도, 접근·이용의 용이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수집한다.

- 시사·교양, 다큐멘터리, 일반·아동용 교육 관련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하되 뉴스, 드라마, 연예·오락 관련 자료는 보존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집한다.
- 국내 지상 공중파 방송사(KBS, MBC, SBS, EBS)의 수상작을 중점 수집하되 국내 유료방송자료 중 보존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수집한다.
- 디지털매체(CD, DVD 등)로 입수되지 않은 방송 및 교육 관련 이러닝자료로 국내외 저명한 기관에서 품질 인증을 받은 자료를 중점 수집한다.
- 국내외 저명한 강사 출연 및 제작한 이러닝자료로 빠른 전송·재생속도 조절 및 탐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자료를 수집한다.
- 가변성이 높은 동적 출판물은 업데이트 전후의 내용 및 구성 체제에서의 상당한 변화 등을 감안하여 선택한다.

4) 이미지자료

- 부산 고유의 생활상과 풍속 등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자료를 수집한다.

5) 웹사이트

- 웹사이트의 대상은 국가기관(입법·사법·행정기관), 공공기관, 학회, 교육 연구기관 등, 부산 관련 민간단체·시민사회단체, 비영리조직, 상업기관, 언론기관, 개인 홈페이지 및 웹 환경 변화에 따라 출현하는 플랫폼(주요 블로그, 웹진 등) 등이다.

6) 실감형 콘텐츠

- 실감형 콘텐츠는 보고, 듣고, 만지고, 공감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로 이러한 실감형 콘텐츠의 대표적인 기술에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홀로그램, 오감미디어 등이 있으며, 핵심기술은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로 설명할 수 있다.
- 초·중·고등 교육 분야에서는 디지털교과서와 연계된 간접체험 및 실습을 제공하거나, 진로체험과 관련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콘텐츠를 적용한다.
- 대학생과 직장인 대상의 실감형 콘텐츠는 실제와 유사한 가상 학습 환경에서의 실험과 실습을 통해 전문지식을 습득하거나 시뮬레이션을 통해 업무를 익힘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적용한다.
- 일반인 대상의 실감형 콘텐츠는 고지도나 고도서 등 우수한 우리 문화자원을 알릴 수 있는 콘텐츠를 적용한다.

2.3 특수범주자료

2.3.1 기본지침

1) 고문헌

- 고문헌은 1945년 이전에 발행 또는 필사된 문헌을 의미한다. 고서, 고문서, 고지도 등을 포함하며 구입, 기증, 수탁, 매체변환 등의 방식으로 수집한다.
- 고서는 유형을 필사본, 목판본, 활자본 등으로 구분하여 수집한다. 단, 1946년 이후 자료는 필요에 따라 선별하여 수집한다.

- 고지도는 한국의 고지도, 외국에서 제작된 한국관련 고지도, 외국 고지도로 나누어 수집한다.
- 고문헌 중에서 국내 귀중서는 1659년 이전의 자료로 형태서지적 측면에서 귀중하거나 희귀할 경우에 구입 또는 기증으로 수집하고, 복본은 현재의 소장유무를 감안하여 수집 여부를 판단한다.
- 국가적으로 중요한 고문헌은 진본으로서 출처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구입하며, 기타 기증 방식으로 보완한다.
- 고문헌 가운데 마이크로필름으로 제작하거나 디지털화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선별·수집한다.

2) 다문화자료

- 다문화자료는 지역주민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고 이주민의 역사, 문화, 언어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필요한 자료 중심으로 다양한 국가 및 언어자료를 구입한다.

3) 기타 특수범주자료

- 부산학 관련 자료는 부산의 현재와 역사에 대한 자료, 부산지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자료, 타 지역·국외에서 발간된 자료, 외국 거주 부산 출신 작가 작품 등을 우선 선정한다.
- 부산도서관이 소장하지 않은 절판 및 미출판자료, 한정판은 내용적 가치를 중심으로 선별하여 수집한다.
- 국가 및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행사 및 인물 등에 관련된 입체자료(실물)(조각, 도예, 염직, 공예, 민속자료, 모형, 전시품 등)는 선택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2.3.2 세부지침

1) 고문헌

- 고문헌 가운데 마이크로필름으로 제작되었거나 디지털화된 자료는 세트 위주로 선별·수집한다.
- 우리나라 고문헌의 연대별 하한선은 1945년 이전으로 한다.
- 고지도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최대한 수집한다.
 - 부산시 고지도: 낱장지도, 지도첩, 지도책, 지리지 및 지도가 수록된 고서, 지도목판 및 동판 등
 - 외국에서 제작된 부산 관련 고지도: 영토·영해 관련지도, 해도, 측량지도, 여행지도, 지도가 수록된 고서 등
- 연구적 가치가 충분한 고문헌은 출처가 명확한 진본에 한하여 수집하며, 구입, 기증 방식으로 수집을 보완한다.

2) 다문화자료

- 부산도서관은 다문화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유형 및 주제의 자료를 개발한다.
- 부산시 거주 결혼이민자 및 이주노동자 등을 위해 각국 언어로 된 자료를 이용 대상자의 정보요구나 해당 국가 출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집한다.
- 다문화자료 수집의 언어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이주민의 모국어로 기술된 자료
 - 이중언어(한국어, 이주민 언어)로 구성된 자료
 - 다국어(한국어, 이주민 언어, 영어) 자료

- 다문화자료 수집의 유형별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일반도서: 아동도서, 문학도서(특히 신간 소설), 지식서, 교과서 등
 - 참고자료: 모국어 언어사전, 이주민 상식백과, 법령집 등
 - 연속간행물: 모국어 잡지와 신문, 한국의 대중지와 소식지 등
 - 시청각자료: 카세트테이프·CD 등의 청각자료, 비디오테이프·DVD·슬라이드 등의 영상자료

- 다문화자료 수집의 용도(목적)별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다문화 가족의 관심과 요구에 부합하는 자료
 - 이주민 및 그 자녀의 한국 사회 및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자료
 - 지역주민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고 이주민의 역사, 문화, 언어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필요한 자료

- 다문화자료 수집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이주민의 연령대별로 적합한 양질의 자료 중 모국어로 기술된 자료
 - 국내외에서 출판·유통되는 모국어 또는 한국어로 된 자료로 내용이나 정보가 정확한 것
 - 이주민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등의 왜곡성 내용이 배제된 자료
 -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와 자국의 사회, 문화, 경제적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
 - 자료의 유형별로는 도서, 비도서, 연속간행물, 참고자료의 순
 - 자료의 내용별로는 그림도서, 문학도서, 일반 지식도서의 순

3) 기타 특수범주자료

- 기타 특수범주자료(절판 및 미출판자료, 한정판자료, 입체자료(실물) 등)는 내용적 가치를 기준으로 선별하여 수집한다.

2.4 어린이·청소년자료

2.4.1 기본지침

- 어린이·청소년의 교양습득, 정서함양, 인격형성, 창의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독서진흥용 권장도서 및 교양도서는 모든 수집방식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개발·수집한다.
- 권장도서나 추천도서는 우선 선정하며 연령별·학년별·주제별로 균형을 맞추어 선정한다.
- 부산시 출신의 아동문학가 저서와 아동문학과 관련된 주요 자료는 적극 수집한다.
- 어린이·청소년과 관련된 일반자료 및 온라인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 지질, 활자 등 인쇄 상태가 우수하고 장정이나 제본 상태가 양호한 도서를 구입한다.
- 주요 단체 및 학교의 권장도서, 아동문학상 수상작품, 교과 연계자료 등 교육적 목적 및 어린이 정서에 부합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개발한다.
- 어린이·청소년자료 중 내용이 동일하여도 발행 또는 제작된 포맷이 다르면 각각 가장 품질이 좋은 판형(버전)을 수집하되, 자료의 부속물인 장난감, 모형 및 기타 아이템은 자료를 보완할 가치가 있을 경우 수집한다.
- 어린이·청소년자료가 인쇄본, 마이크로형태, CD-ROM, 디지털 파일(PDF) 등 다양한 버전이 공존할 때는 인쇄본, 디지털 파일, CD-ROM의 순으로 우선 수집하고, 기대(유효)수명이 짧은 자료는 온라인 DB 등 전자매체를 적극 활용한다.

- 외국에서 발간된 부산 관련 아동자료, 외국에 거주하는 부산 작가의 아동자료, 외국에서 번역된 부산 아동자료, 세계의 그림책과 명작동화, 문학 및 그림책과 관련된 연구자료(학술서, 비평서, 서평지), 각국의 아동문학상 수상작 및 주요 아동작가의 대표작, 주요 국가의 문화·풍습·역사·지리와 관련된 아동자료, 각국의 전설·설화·민화, 주요 학술지와 참고도서 등의 외국 어린이·청소년자료를 중점적으로 수집한다.
- 각국의 어린이도서관과 자료의 교환과 교류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주한 외국 대사관 및 문화원과 협의하여 외국의 어린이·청소년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2.4.2 세부지침

- 어린이·청소년자료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 능력과 지적 수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말한다.
-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어린이·청소년의 신체적·정서적·인성적·사회적·교육적 발달과 성취에 유용한 각종 자료(일반자료, 연속간행물, 참고자료, 부모자료, 교육 및 연구용자료 등)는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 어린이·청소년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인 점을 감안하여 일반자료뿐만 아니라 온라인자료 등의 개발에도 주력한다.
- 각 분야의 아동문학상 수상 작품, 주요 단체 및 학교의 권장도서, 교과 연계자료 등을 우선적으로 수집하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표준 포맷의 자료에 접근할 수 없는 독서 장애를 가진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자료도 수집한다.

- 어린이·청소년의 신체적·정서적·지적 발달 향상에 유용한 자료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청소년의 관심과 요구
 - 저자(작가)의 사회적 권위와 출판사 인지도
 - 수록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
 - 콘텐츠의 분량과 질적 수준
 - 연령대에 부합하는 문장력과 어휘의 구사
 - 유행어 또는 비속어의 사용 정도
 - 맞춤법, 띄어쓰기의 적정성
 - 자료의 활자 크기 및 인쇄의 선명도
 - 지질과 제본 상태
 - 삽화나 사진의 화질 및 정확성
 - 텍스트 및 그림(만화)의 구성 비율
 - 날권 구입의 가능성 여부

-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국내 자료의 수집기준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을 위한 일반 교양자료
 - 청소년의 인성, 적성, 지식을 풍부하게 하는 폭넓은 주제자료
 - 청소년문학상 수상 작품 및 주요 청소년 작가의 작품
 - 학교 및 주요 단체의 권장도서, 추천 도서
 - 글쓰기 및 논술과 관련된 자료 및 중등 교과 연계자료
 - 영유아기에서 청소년기까지의 신체적·정서적·사회적·교육적 발달을 주제로 다루는 자료
 - 부모의 가정교육과 역할을 기술한 자료
 -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문학 및 출판 관련된 저명한 학술연구자료
 - 어린이·청소년의 독서교육 및 독서 습관 형성에 유용한 실용서
 - 어린이·청소년의 교육, 문화 활동, 여가 활용과 관련된 교육연구자료
 - 어린이·청소년과 관련된 작품 및 작가를 연구한 자료
 - 어린이·청소년 도서에 대한 서지목록, 서평지, 독서안내자료

- 어린이전문도서관,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 어린이서비스 연구자료
- 어린이·청소년과 관련된 각종 회색문헌(공공간행물, 연구보고서, 학술세미나 자료 등)
- 주제별 및 대상별 각종 참고자료(사전, 백과사전, 편람, 연감, 백서, 지도, 통계, 법규, 서지 등)
- 원로 아동문학가의 문학작품 및 개인 소장자료

■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외국 자료의 수집기준은 다음에 적시한 주제나 분야의 다양한 자료를 구입, 국제교환, 기증, 기타 방법으로 수집한다.

- 각국에서 발간된 한국 관련 어린이·청소년자료(한국 및 한국인의 역사, 지리, 문화, 사회 등을 소개한 자료)
- 외국 거주 한국 작가의 어린이자료
- 각국의 어린이·청소년 관련 주요 작품이나 주요 작가의 대표작
- 권위 있는 어린이·청소년문학상 수상작
- 권위 있는 기관의 어린이·청소년용 권장도서
- 한국어로 번역된 어린이·청소년책의 원서
- 주한 외국 대사관 및 문화원이 추천한 어린이·청소년자료
- 각국 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의 교류를 통한 자료
-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문학, 교육, 서비스관련 연구자료
- 국내 어린이·청소년 문학 및 출판의 발전에 기여할 양질의 자료
- 국가의 민족성, 풍습, 가치관 등을 반영한 어린이·청소년 대상 자료로서 문화, 역사 등 전주제 분야 자료
- 각국의 전설, 설화, 민화 등의 어린이·청소년용 자료
- 어린이·청소년용 다문화자료

■ 어린이자료 수집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고전이나 전래동화, 옛이야기를 재화(再話)한 경우 가능한 한 원저작의 내용, 표현 등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리는 자료를 수집한다.
- 번역서의 경우 가능한 한 원저작의 내용, 표현 등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리

는 자료를 수집한다.

- 전기자료의 경우 피전자에 대하여 근거 및 고증이 확실한 자료를 수집한다.
- 취미·실용서의 경우, 어린이·청소년자료로 출판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어린이·청소년이 읽어낼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한다.

■ 어린이·청소년자료의 수집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형태서지적 측면에서 조잡하고 시력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자료
- 외설의 그림과 사진, 난잡한 문장 등이 지배적인 자료
- 현행 띄어쓰기 및 맞춤법을 이탈한 자료
- 독서 수준을 넘어서는 난해한 자료
- 선정적인 내용, 차별, 배제 등 어린이·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료
- 훼손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은 자료

2.5 부산학 자료

2.5.1 기본지침

- 부산학 관련 자료는 부산의 현재와 역사에 대한 자료, 부산지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자료, 타 지역·국외에서 발간된 부산 관련 자료, 부산 출신 작가 작품 등을 우선 선정한다.

2.5.2 세부지침

- 부산학 자료는 부산을 주제로 하는 모든 자료를 대상으로 하며, 도서 이외의 형태의 자료에 대해서도 수집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 부산의 역사, 지리, 경제, 행정, 문화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적극적, 망라적으로 수집하고, 그 내용이 부산 및 부산 지역과 관계가 있으면, 동일 경제권, 행정

권, 문화권에 속하는 인접 지역의 자료를 관련 자료로 수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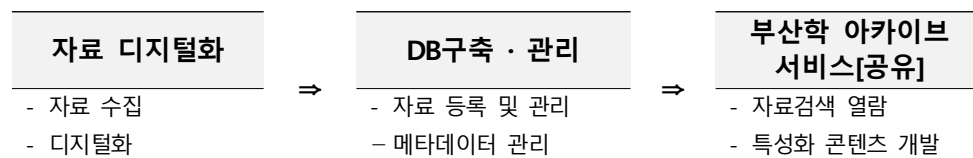
- 부산학 관련 자료의 수집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부산의 역사, 문화, 사회, 경제 등에 관한 자료
 - 부산과 관련한 학술 또는 예술, 관광 안내 등 관련 자료
 - 부산시 및 산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정책 관련 자료
 - 부산에 거주하거나 부산 출신이나 연고가 있는 인물에 대한 전기적인 자료 및 관련 자료
 - 부산을 무대로 한 소설, 부산에 연고가 있는 사람을 주제로 한 문학 작품, 평론 등 자료
 - 부산을 소재 또는 배경으로 한 조각, 회화, 서예, 사진, 공예, 음악, 연극 등의 예술자료
 - 부산지역의 인문, 자연적 현상을 주제로 한 역사 자료
 - 부산의 행정 및 산업에 관한 통계자료
 - 부산지역 내 각종 단체에 관한 자료
 - 내용 일부에 부산 및 부산지역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는 자료, 부산지역의 연구에 필요한 자료, 부산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게재된 자료 등
- 수집하는 부산학 관련 자료의 형태는 다음과 같으며, 자료의 형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유형(매체)별 기준을 준용한다.
 - 도서(고문서, 고서 포함)
 - 연속간행물(신문 포함)
 - 지도, 고지도, 그림, 항공사진
 - 문화재 및 유적 발굴 관련 조사보고서, 박물관 등의 전시 도록
 - 연대, 일시, 장소가 명확한 사진, 엽서, 팸플릿, 리플릿, 포스터 등
 - 시청각자료(CD, DVD, 비디오테이프, 카세트테이프, 슬라이드 등)
 - 기타 지역 신문 및 잡지 스크랩, 복사본, 필사본자료 등 도서관장이 수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 부산에 대한 연구와 이해를 돕는 자료는 보존과 이용을 고려하여 복수 수집한다.
- 부산학 자료로서 수집, 보존할 가치가 있는 귀중서나 희귀서, 필사본은 최대한 수집한다.
- 부산 및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부산 내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2.5.3 부산학 플랫폼 고도화 방안

1) 부산학 플랫폼 현황

- 부산도서관은 부산의 행정·역사·문화·사회 전반에 관한 기록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하여 고품질 부산학 정보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정보의 허브로서 향토자료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자료공유 및 활용을 강화하고 있다.
- 부산도서관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i) 부산시 행정·공공기관에서 디지털형태로 발행된 부산관련 모든 주제의 자료(보고서, 간행물 등) DB 구축, ii) 종이로 수집된 지역 발간물 및 향토자료 중 보존의 목적이나 이용 활용성이 높은 자료의 디지털화 및 DB 구축, iii) 수집자원들의 분류가공을 통한 특성화 콘텐츠 구성 및 서비스 iv) 지역내 유관기관 전자자원의 공유를 통한 활용방안 마련 등이다.



2) 부산학 플랫폼 고도화 방안

- 부산지역학 플랫폼의 목적은 부산지역의 기억과 문화자원을 집성하여 아카이브 콘텐츠를 확보·확대하고, 이의 공유를 통해 부산의 정체성과 미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지역 아카이브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 부산학 플랫폼 고도화 방안의 첫 번째 과제는 플랫폼 기능의 확대 및 강화를 들 수 있다. 부산학은 미래학, 실천학, 응용학, 통섭학으로 연구, 생산뿐만 아니라 자료의 발굴과 활용의 균형을 이루는 플랫폼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 연구/생산 플랫폼: 다양한 기초자료, 연구자, 연구모임, 연구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연결하고 연구 동향과 결과물을 확보할 수 있는 채널 발굴
 - 발굴 플랫폼: 시민의 구체적 삶과 관련된 문헌, 생활사 정보, 구술자료 등의 지속적인 발굴이 필요하고, 향토사 연구자, 시민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자료 확보를 위한 방법 발굴
 - 활용/소비 플랫폼: 부산학 자료를 시민, 관련 연구자, 정책 결정권자 등이 활용하고, 부산시 정책의 근거가 되고, 다시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부산학 플랫폼 고도화 방안의 두 번째 과제는 부산학 통합 아카이브 구축 및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 부산 관련 기초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분류하고 기존에 구축된 지역 자료의 수집 및 발굴을 통해 통합 아카이브 구축
 - 대표적인 부산학 연구기관인 부산발전연구원의 부산학연구센터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부산학 통합 아카이브 구축을 도모할 수 있음: 부산학연구센터는 부산학을 육성, 확산하기 위해 부산학 10년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부산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더불어 부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부산지역 내 현실적인 역동성을 접목한 역사, 문화, 예술, 전통과 지정학적 특수성 등에 대한 학문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함
 - 지역 대학, 향토사학자, 신진연구자 등 부산학 관련 다양한 연구자 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생산자료 확보, 소장자료 발굴 및 수집 방안 확보

- 부산학 플랫폼 고도화 방안의 세 번째 과제는 온라인 서비스 강화를 위한 자료의 디지털화 확대 및 웹서비스 구축을 들 수 있다.
 - 우선순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화 대상을 선정하고 온라인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자료의 디지털화 확대가 요구됨. 자료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 주제 선정에 위한 지침이 필요함. 경기도는 DB 구축을 위한 대상 선정기준을 고유성, 역사성, 탁월성, 지역성의 네 가지 요소를 사용함
 - 구축된 자료의 통합검색, 단어별/주제별/유형별 등 다양한 유형의 검색 및 열람, 원본자료 열람신청 등이 가능한 아카이브 웹 서비스 구축이 필요

3. 주제별 지침

- 부산도서관 주제별 집서수준은 RLG(Research Libraries Group) ¹⁶⁾컨스펙터스의 장서수준을 준용하여 <표 39>와 같이 적용한다.
- 집서수준 결정기준
 - 1단계(최소수준): 매우 기본적인 자료(단행본, 참고자료 등)만 수집하고, 이 수준을 벗어나는 자료는 수집하지 않는다.
 - 2단계(기본정보수준): 해당 주제에 대한 입문적인 지식과 개요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한다. 이 수준에는 주제를 소개하고 정의하는 자료, 개론적 성격을 띤 자료, 일반적인 정보를 포함하는 자료가 해당한다.
 - 3단계(학습교육지원수준): 해당 주제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포함하는 자료를 수집한다. 기본적인 주제나 핵심 주제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 자료, 초보적인 독립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 대학 학부의 하급 학년의 교과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이 수준에 해당한다. 전문적 연구를 지원하는 도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 4단계(연구수준): 연구보고서나 새로운 연구 결과, 과학적 검증 결과, 기타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 및 학위논문과 독립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 5단계(포괄적수준): 한 주제에 관한 전문적인 장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준이며, 해당 주제와 관련된 모든 기록지식을 수집하는 수준이다. 단, 포괄적수준은 공공도서관의 사명과 목적에 따라 소장률과 이용률, 이용 형태 등 다양한 현황과 이용 예측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6) 장덕현, 전자자원 선정을 위한 컨스펙터스 수정 모형 연구(한국비블리아학회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0권 제2호, 2009), p.31-44. ; 박진희, 컨스펙터스 방법을 이용한 장서평가연구(한국정보관리학회 : 정보관리학회지 제15권 제2호, 1998), p.168-170.

<표 39> 도서관 집서수준의 포맷별 및 특성별 결정기준¹⁷⁾

포맷/특성	1단계 (최소수준)	2단계 (기본 정보수준)	3단계 (학습교육 지원수준)	4단계 (연구수준)	5단계 (포괄적수준)
학술적수준	고등학교	전문대학	학부/석사	박사연구	전문연구자
장서의 전체적 목적	최소 수집: 상대적	주제의 개론 및 정의	모든 대중의 요구 지원	박사과정 및 고급연구 지원	포괄적수집
일반도서	매우 제한적 수집	제한적 수집	광범위한 수집	매우 제한적 수집	"
전문학술서	해당없음	해당없음	선택적 수집	"	"
일반잡지	"	대표잡지의 제한적 수집	광범위하게 수집	"	"
전문학술지	"	해당없음	대표적 학술지	"	"
참고자료	최소	제한적 수집: 문헌안내 수준	광범위하게 수집	"	"
온라인자료	비상업적 자원의 수집	상업적 또는 무료웹의 선택적 수집	상업적 및 웹자원의 폭넓은 접근	"	"
사본	해당 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최소수집	매우 광범위한 수집
언어범주	한국어	한·중·일어, 영어	한·중·일어, 영어 등	광범위한 수집	"
보존수준	유효수명 후 폐기	일부 폐기 및 수선	지적 콘텐츠의 보유 및 아카이브	원형포맷의 보유와 보존	원형포맷의 보유와 보존
시간비율	5% 미만	5~10% 미만	10~25% 미만	25~75% 미만	75~100%

17) 국립중앙도서관. 2021.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부산도서관의 주제별 장서개발 수준에 대한 지침을 KDC의 10개 주류로 구분하여 기호화하면 <표 40>과 같다. 부산도서관 자료 이용현황과 국내 연간 출판 현황이 높은 주제인 사회과학, 문학, 역사는 앞으로 폭넓은 수집을 위해 4단계까지로 개발범위를 설정한다.

<표 40> 부산도서관의 주제별 장서개발 수준 지침

주 제	일반자료				
	1단계 (최소수준)	2단계 (기본 정보수준)	3단계 (학습교육 지원수준)	4단계 (연구수준)	5단계 (포괄적수준)
총 류			■		
철 학			■		
종 교		■			
사회과학				■	
자연과학			■		
기술과학			■		
예 술			■		
언 어			■		
문 학				■	
역 사				■	

3.1 총류(000)

3.1.1 집서수준

- 총류는 주요 강목인 서지학, 문헌정보학, 백과사전, 연속간행물, 학·협회와 단체, 신문과 저널리즘, 전집, 향토자료 등을 중심으로 수집한다. 총류의 집서수준을 3단계(학습교육지원수준)를 기본으로 설정하되, 하위 주제에 따라 1~4단계까지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 각국의 도서 및 서지학 관련 자료는 3단계(학습교육지원수준)를 목표로 수집하되, 주요 국가의 대표적인 서지는 4단계(연구수준)를 적용하고, 도서관을 비롯한 기관단체의 장서목록, 해제서지, 상업용 서지는 1단계(최소수준)를 목표수준으로 설정하여 선택적으로 수집한다.
- 문헌정보학 분야의 단행본 및 연속간행물은 4단계(연구수준)로 수집한다.
- 향토자료는 내용 및 형태서지적 측면에서 부산도서관이 수집·보존할 가치가 있는 부산의 귀중서, 희귀서 등을 5단계(포괄적수준)로 수집한다.

3.1.2 장서개발 세부지침

- 종류는 서지학, 문헌정보학, 백과사전, 연속간행물, 학·협회와 단체, 신문과 저널리즘, 전집, 향토자료 등의 하위 주제자료를 골고루 수집하여 집서의 균형을 유지한다.
-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터넷, 디지털 정보기술과 관련된 자료는 최신성을 중시하며 일반독자용으로 평이하게 서술된 자료를 수집한다.
- 도서, 서지, 도서관 및 정보센터, 문헌정보학과 관련된 전문 도서는 적극 수집한다.
- 독서 및 독서지도, 독서실태에 관한 조사자료 등은 적극 수집한다.
- 이용자의 자유로운 정보조사를 돕는 참고자료(사전, 백과사전, 편람, 연감, 통계집, 법령집 등)를 다양하게 수집하고 최신성을 확보한다.
- 일반 연속간행물은 대표적인 대중잡지 및 신문을 중심으로 수집하며, 특히 지역의 신문은 망라적 중심으로 수집한다.

- 일반 전집류는 지역 대학 출판부 및 상업출판사에서 발간한 것으로 한정하여 수집한다.
- 향토자료는 부산도서관으로서 수집·보존할 가치가 있는 귀중서, 희귀서, 필사본 등을 수집한다.

3.2 철학(100)

3.2.1 집서수준

- 철학은 동서양철학, 논리학, 심리학, 윤리학 등을 중심으로 수집한다. 개발수준은 3단계(학습교육지원수준)로 한다.
- 동양철학은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3단계(학습교육지원수준)를 목표로 수집한다. 다만, 한국의 조선시대 철학파(유가파, 주자학파, 퇴계학파, 율곡학파, 양명학파, 실학파 등)를 연구하였거나 관련성이 높은 외국 자료는 소급자료와 현대자료를 포함하여 5단계(포괄적수준)를 지향한다.
- 서양철학은 영미, 독일, 프랑스의 자료를 중심으로 3단계(학습교육지원수준)를 목표로 엄선하여 수집한다.
- 심리학은 학문의 발전과 동향에 관한 자료를 위주로 3단계(학습교육지원수준)를 유지한다.

3.2.2 장서개발 세부지침

- 철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일반자료(형이상학, 인식론, 인과론, 논리학, 윤리학 등), 동서양철학, 심리학으로 크게 나누어 집서의 균형을 유지한다.

- 일반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자료를 수집하되, 인문교양에서부터 철학의 세 분야에 이르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한다.
- 사고력을 키우고 올바른 가치관과 인생관을 제시하며 일상생활의 규범을 이해 시켜 주는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한다.
- 동양철학은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기존자료 및 현대자료를 수집하고, 서양철학은 주요 국가(미국, 영국, 프랑스 등)를 한정하여 입문서와 전문도서, 주요 철학자의 대표 저작 및 전기자료를 엄선하여 수집한다.
- 심리학은 학문발전과 동향에 관한 자료를 위주로 제한적 수집을 하고, 응용심리학 분야인 인간관계, 인간개발, 커뮤니케이션, 교양심리, 개인정신분석도서 등과 진화심리학 자료를 제한적으로 수집한다.
- 심리학의 대중서는 해설이 첨부된 자료를, 사례연구는 근거가 확실한 자료를, 이상심리학은 독립적인 것을 우선 선택하고, 자기관리, 인간관계, 논리학 등의 자기계발서는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수집한다.

3.3 종교(200)

3.3.1 집서수준

- 종교는 불교,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교, 비교종교 등을 중심으로 수집한다. 종교자료의 집서목표를 2단계(기본정보수준)로 설정하고, 하위주제에 따라 1~3 단계를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 한국관련 종교자료는 5단계(포괄적수준)를 지향하여 최대한 수집한다.
- 불교자료는 발간된 시대를 불문하고 불교의 경전, 종파, 법어록, 사찰, 포교활동

동, 고승 전기를 비롯한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3단계(학습교육지원수준)를 지향한다.

- 기독교자료는 성서의 교리 및 언어별 번역본, 학술적 주석서, 교회론, 선교활동, 예배와 신앙생활, 인물과 전기를 중심으로 3단계(학습교육지원수준) 집서를 지향한다.
- 기타 천도교, 힌두교, 이슬람교, 도교 등의 제종교자료는 신앙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중심으로 2단계(기본정보수준)를 적용하되, 하위주제에 따라 1~4단계를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3.3.2 장서개발 세부지침

- 종교별 경전, 각 종교에 관한 해설서 및 연구서는 균형있게 수집한다.
- 각 종교 및 종파별로 균등하게 선정하고, 정보가 적은 종교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는 유의하여 수집한다.
- 종교와 역사, 국가와 사회, 경제와 문화와의 상관관계 또는 인과 내지 영향 관계를 유기적으로 다루거나 탐구한 도서는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 불교자료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등에서 출판된 불교의 경전, 종파, 법어록, 사찰, 포교활동, 고승 전기를 비롯한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 기독교자료는 성서의 교리 및 언어별 번역본, 학술적 주석서, 교회론, 선교활동, 예배와 신앙생활, 인물과 전기를 중심으로 선정·수집한다.
- 이슬람교자료는 학문연구, 다문화인구, 사회적 관심 등을 감안하여 교리, 학술

자료, 선교활동, 신앙생활, 주요 인물을 중심으로 수집한다.

- 도교 및 천도교를 다룬 외국 자료는 선별하여 최대한 수집한다.
- 기타 종교자료는 학문적 연구 및 다문화서비스를 위한 경전과 신앙생활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한다.
- 각종 신화에 관한 도서는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 특정 종파의 전파를 목적으로 한 교리서 및 논쟁서, 편향된 관점의 자료 등은 수집에서 제외한다.
- 각국에서 공인받지 못하는 특정 종파를 전파할 목적으로 저술된 교리서 및 논쟁서, 특정 종교를 비난하거나 편향된 시각에서 다룬 도서 등은 수집에서 제외한다.

3.4 사회과학(300)

3.4.1 집서수준

- 사회과학류는 통계,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행정학, 법학, 교육학, 풍속·민속학, 국방·군사학 등의 다양한 주제 분야를 포괄한다. 전체적인 집서수준은 4단계(연구수준)로 설정하되, 하위 주제에 따라 1~4단계를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 통계 및 관련 자료는 주요 국가와 국제기구의 통계지침, 통계서지와 연감, 각종 통계데이터, 학술지를 중심으로 4단계(연구수준)까지 수집한다. 최근 통계류가 인터넷으로 전환되어 제공되고 있으므로 일반자료보다 온라인자료의 수집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디지털 장서개발을 강화한다.

- 경제학자료는 주요 국가와 국제기구를 위주로 4단계(연구수준)를 수집 목표로 한다. 그 외 최신 경제학자료, 노동·상업·통신·운송 등의 경제자료는 2단계(기본정보수준)로 선택적 수집한다. 또한 경영학자료(경영이론, 리더십, 조직관리, 인력관리, 재무관리, 자원관리, 홍보 및 마케팅 등)는 3단계(학습교육지원수준)를 유지한다.
- 사회학 및 사회문제에 관한 자료는 학술서, 공공간행물, 연구보고서, 학술지, 세미나자료 등을 중심으로 4단계(연구수준)까지 수집한다.
- 정치학자료는 정치이론과 사상, 국가형태, 선거제도, 정당, 외교 등을 위주로 3단계(학습교육지원수준) 수집을 지향한다.
- 행정학자료는 행정이론과 기법, 중앙행정 및 지방행정, 정부조직, 행정기관과 제3섹터(NGO 등), 공무원제도 등으로 구성되며, 도서관은 단행본, 학술지, 공공간행물, 정책자료, 참고자료, 통계 데이터를 위주로 4단계(연구수준)를 목표 수준으로 설정하고 장서를 개발한다.
- 법학 및 법률 자료는 법철학과 이론, 법제사, 국제법, 헌법, 행정법, 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기타 제법으로 구성되며, OECD 주요 국가의 단행본, 연구보고서, 학술지,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3단계(학습교육지원수준)를 지향한다. 다만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대학 소재 법학도서관의 장서개발을 감안하여 국제기구(국제연합, 국제사법재판소, 국제법위원회, 국제법률가위원회 등)의 조약과 판례집, 헌법, 행정법, 국정 운영상 중요한 법령을 제외한 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기타 특수법(노동법, 교육법, 환경법, 교통법, 건축법 등)은 2단계(기본정보수준)를 지향하며 선택적으로 수집한다. 최근에 각국의 법령자료가 웹 DB 및 포털사이트로 제공되므로 일반자료보다 온라인자료 수집으로 편의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 교육학자료는 교육철학과 이론, 교육정책과 제도, 학교행정, 교육과정, 수준별

교육(유아 및 초등, 중등, 대학, 사회), 특수교육 등을 포괄하며 교육학 전체의 집서수준을 4단계(연구수준)로 설정한다. 다만, 교육사회학, 고등교육, 사회교육, 교과서 등은 3단계(학습교육지원수준)로 설정하고 선택적으로 수집한다.

- 풍속 및 민속학자료는 구미의 문화선진국 및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3단계(학습교육지원수준)를 지향한다.
- 국방 및 군사학자료는 2단계(기본정보수준)를 목표로 수집한다. 다만 한국전쟁을 비롯한 남북한의 긴장 문제 및 무력 충돌을 연구·분석한 외국 자료는 그 유형이나 매체를 불문하고 5단계(포괄적수준)로 최대한 수집한다.

3.4.2 장서개발 세부지침

- 사회과학류에는 통계,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행정학, 법학, 교육학, 풍속·민속학, 국방·군사학 등의 다양한 학문 또는 주제 분야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히 집서의 균형성이 중요하다.
- 사회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당대의 사회 사조나 역사적 사건 등을 객관적으로 기술한 자료,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한다.
- 통계는 주요 국가 및 OECD 회원국의 정부 및 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발간하는 대표적인 통계자료, 주제별 또는 항목별 통계집을 우선적으로 수집하되 최근에는 통계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온라인 통계 데이터의 수집과 디지털 형태의 보존도 병행한다.
- 경제 및 경제학자료는 주요 경제학파의 대표적인 저작 등에서부터 최근 동향까지 폭넓게 수집한다.

- 경영 및 경영학자료(경영이론, 리더십, 조직관리, 인력관리, 재무관리, 자원관리, 홍보 및 마케팅 등)는 세계적인 기업체의 발간자료 및 학술 연구서를 위주로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동시에 온라인 형태로도 제공한다.
- 사회학 및 사회문제에 관한 도서는 연구수준까지 수집한다.
- 노동, 사회복지, 사회문제에 관한 도서는 폭넓게 수집하되, 특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노동조합, 노사갈등, 복지정책, 삶의 질 등을 다룬 분야는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 정치 및 정치학자료는 이론과 사상, 국가형태, 선거제도, 정당, 외교 등을 위주로 수집한다. 또한, 각국의 시민권, 국제적인 압력단체, 주요 국가의 정당제도, 정치적 운동단체와 관련된 자료도 지속적으로 수집한다.
- 행정학자료는 행정이론과 기법, 중앙행정 및 지방행정, 정부조직, 행정기관과 제3섹터(NGO 등), 공무원제도 등으로 구성되며, 부산도서관은 단행본, 학술지, 공공간행물, 정책자료, 참고자료, 통계 데이터를 위주로 4단계(연구수준)를 목표수준으로 설정하고 장서를 개발한다.
- 법률자료는 입문서와 실용서에서 전문학술서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수집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 여부 등에 유의한다.
- 법학 및 법률자료는 법철학과 이론, 법제사, 국제법, 헌법, 행정법, 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기타 제법을 중심으로 수집한다. 최근에 각국의 법령자료가 웹 DB 및 포털사이트로 제공되므로 일반자료 보다 온라인자료로 접근성을 높인다.
- 교육학자료는 교육철학과 이론, 교육정책과 제도, 학교행정, 교육과정, 수준별 교육(유아 및 초등, 중등, 대학, 사회), 특수교육 등을 골고루 수집한다. 다만,

교육이론, 교육사회학, 고등교육, 사회교육, 교과서 등은 학교 및 대학도서관의 장서개발을 감안하여 선택적으로 수집한다.

- 풍속, 민속학자료의 경우 세계 각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접하는 동시에 문화적 유연성을 길러주는 자료는 최대한 수집한다. 각국의 관혼상제에 관한 역사적 자료 및 실용서는 시대에 부합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한다.
- 국방 및 군사학자료는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수집한다. 다만, 한국전쟁을 비롯한 남북한의 긴장문제 및 무력 충돌을 다룬 외국 자료는 그 유형이나 매체를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3.5 자연과학(400)

3.5.1 집서수준

- 자연과학은 수학, 물리학, 화학, 천문학, 지학, 광물학, 생명과학, 식물학, 동물학 등을 위주로 수집한다.
- 자연과학류 전체의 집서수준을 3단계(학습교육지원수준)로 설정하고, 세부 주제별로 1~4단계를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 수집자료의 종류는 과학 일반과 과학교육, 하위 주제의 과학적 이론과 철학, 과학사, 과학자의 명감과 전기, 과학연구기관과 실험실, 과학적 연구성과와 데이터, 과학 수준과 해독력, 과학정보의 유통 등을 수록한 일반도서, 참고도서, 학술지, 공공간행물, 연구보고서, 세미나자료, 회의자료, 정책문서, 법령자료 등을 중점적으로 수집한다.
- 학술지의 경우, 과학인용 DB에 수록된 타이틀로 한정하여 인쇄자료와 온라인 자료를 포괄하는 하이브리드형 장서개발을 지향한다. 다만, 일반자료와 온라

인자료가 동시에 존재하는 학술지는 일반자료 수집을 우선하고 온라인자료는 라이선스 계약방식으로 제공한다.

- 노벨상 수상자 등 저명한 과학자의 전기 및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며, 특히 한국 과학기술의 역사 및 발전을 취급한 외국의 각종 자료는 구입 및 기증 등으로 수집한다.

3.5.2 장서개발 세부지침

- 기초과학을 중심으로 한 이론 및 해설서 등 자연과학 전반의 기본서 및 교양서, 실용서를 균형있게 선정한다.
- 과학자료는 인문사회과학자료보다 수명주기가 짧으므로 학술성과 최신성을 구비한 자료를 수집하고 객관성, 과학성, 신뢰성에 기반한 새로운 연구 중심으로 수집한다.
- 과학발전에 맞는 최신 내용의 자료를 수집하고 내용의 정확성에 유의하여 수집한다.
- 과학평론자료는 저자, 화제성, 내용에 유의하여 엄선하여 수집한다.
- 과학 장서의 개발에서 학술지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과학인용 DB에 수록된 타이틀을 중심으로 일반자료와 온라인자료를 포괄하여 장서개발을 한다.
- 수학, 물리, 지구과학, 지질학, 질병, 의료 등에 대한 자료는 알기 쉽게 쓰여진 자료를 폭넓게 수집한다.
-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의 전기 및 관련 자료는 지속적으로 수집한다.

- 초·중등 교육용 자연과학 교재 및 대학 교재는 주요 과학 선진국으로 한정하여 선별 수집한다

3.6 기술과학(500)

3.6.1 집서수준

- 기술과학은 의학, 농업·농학, 공학(토목, 환경, 건축, 기계, 전기, 전자, 화학), 생활과학을 포괄하고 전반적인 집서수준은 3단계(학습교육지원수준)로 설정하고 하위 주제에 따라 1~4단계를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 기술과학분야의 각 하위 주제를 다룬 일반도서, 참고도서, 학술지, 공공간행물, 법령자료 등을 중점적으로 수집한다.
- 일반자료와 온라인자료가 모두 존재하는 학술지는 일반자료 학술지를 우선 수집하여 보존하고 온라인자료만 존재하는 학술지는 디지털 아카이브 권한을 확보한다.

3.6.2 장서개발 세부지침

- 기술과학은 의학, 농업·농학, 공학(토목, 환경, 건축, 기계, 전기, 전자, 화학), 생활과학을 포괄하고 균형적으로 집서한다.
- 기술과학분야의 각 하위 주제는 일반도서, 참고도서, 학술지, 공공간행물, 연구보고서, 세미나자료, 회의자료, 정책자료, 법령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한다.
- 일반자료와 온라인자료가 모두 존재하는 학술지는 일반자료 학술지를 우선 수집하여 보존하고 온라인자료만 존재하는 학술지는 디지털 아카이브로 개발한다.

- 저자의 전문성, 신뢰성, 과거의 저작 등을 유의하여 새로운 이론, 동향, 기술을 근거로 한 자료를 수집한다.
- 기술과학분야의 특성에 맞게 최신자료,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지식을 익히는 데 도움을 주는 실용서를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 의학분야는 임상실험 결과가 입증된 최신 학술자료를 수집하되, 삽화, 사진, 도판 등의 우수성을 고려한다.
- 건강, 식품 안전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 교양서는 정보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수집한다.
- 대체의료자료는 객관성, 과학성, 신뢰성에 유의하여 선정한다.
- 공학자료는 기술의 발전이나 혁신에 유의하여 수집한다.
- 건축자료는 입문서에서 전문서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수집하고, 환경에 관한 도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기술된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 통신공학에 관한 자료는 정보통신기술이나 제도적 변화에 유의한다.
-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실용성을 요하는 주택, 자동차, 생활용품 등에 관한 자료는 최신 정보가 수록된 것을 선별하여 수집한다.
- 기술·산업자료는 이용자의 이해를 높이고 흥미를 불러일으키도록 자료의 최신성 및 통계의 정확성이 보장된 자료를 수집한다.
- 가정의 원예, 애완동물 등에 관한 자료는 실용성을 기준으로 선정하여 수집한다.

- 요리에 관한 자료는 알기 쉬운 설명, 보기 쉬운 사진, 도판을 포함한 실용성이 높은 자료를 수집한다.
- 단위에 관해서는 국제 규격을 포함한 정보의 갱신에 유의한다.
- 초·중등 교육용 기술과학교재 및 대학교재의 경우, 주요 기술과학 선진국에 한정하여 수집한다.
- 공해 및 환경문제 등 사회적 관심, 시사성, 화제성 등을 고려하여 폭넓게 수집한다.

3.7 예술(600)

3.7.1 집서수준

- 예술은 조각, 미술, 공예, 서예, 회화·도화, 사진, 음악, 공연·매체예술, 오락·스포츠 등의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한다.
- 예술자료의 전반적인 집서수준을 3단계(학습교육지원수준)로 설정하고, 하위 주제에 따라 1~4단계를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 건축, 공예, 미술, 회화, 사진 등은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등이 수집하는 점을 감안하여 3단계(학습교육지원수준)까지 수집한다.
- 서예자료는 한·중·일을 중심으로 3단계(학습교육지원수준)까지 수집한다.
- 연극과 무용 등 공연예술에 관한 자료는 3단계(학습교육지원수준)까지 수집한다.
- 영화, TV 등과 관련된 인쇄자료는 적극적으로 수집하되, 각종 시청각자료는

3단계(학습교육지원수준)까지 선택적으로 수집한다.

-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대회와 관련된 자료는 4단계(연구수준)까지 수집하고, 오락자료는 1단계(최소수준)를 적용한다.

3.7.2 장서개발 세부지침

- 예술의 하위 주제인 건축술, 조각과 조형예술, 공예와 장식미술, 서예, 회화·도화, 사진예술, 음악, 공연예술과 매체예술, 오락과 스포츠 등의 자료는 포괄적으로 수집하되, 집서의 균형성을 지향한다.
- 예술에 관한 흥미를 일으킬 수 있으며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교양서와 이론서, 해설서를 수집한다.
- 예술분야는 초보자에게 간접경험을 통한 미적 정서와 창의성을 길러주는 입문 및 해설서와 더불어 이론에 대한 미학적, 사회적 가치가 있는 고전에서 현대까지의 자료를 폭넓게 수집한다.
- 미술 작품집은 저명한 작가를 중심으로 수집하고, 색조 등 도판의 아름다움에 특히 유의한다. 문화재, 세계유산에 관한 자료는 새로운 정보에 특히 유의한다.
- 서예 도록 및 자료는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최대한 유형이나 매체를 불문하고 수집한다.
- 사진은 예술성, 기록성 등에 유의하여 엄선하여 수집한다.
- 음악자료는 출판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수집하되, 고전음악과 현대음악의 균형을 유지한다.

- 악보는 한국 출신의 저명한 작곡가의 악보와 습작을 수집한다.
- 무용, 연극, 영화 등에 관한 자료도 골고루 수집하고, 작품 해설 등에 대한 자료도 수집한다.
- 감독, 배우 등의 전기나 연기 평론은 저명한 인물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수집하고 시사성 및 화제성이 강한 인물에 대해서는 엄선하여 수집한다.
- 스포츠 경기에 관한 기술서나 규칙서는 수록 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기본으로 엄선하여 수집한다.
- 스포츠자료는 경기의 종류와 규칙, 국제대회 등의 역사적 기록, 유명한 스포츠맨의 전기자료, 과학적 연구보고서, 스포츠와 인간의 관계를 다룬 자료 등을 중심으로 수집한다.
-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과 관련된 일반자료와 온라인자료를 선택적으로 수집한다.
- 바둑, 장기, 게임 등 실내 오락에 관한 그림자료는 엄선하여 수집한다.
- 예술자료 중에서 전반적인 내용이 신체나 성을 저속하게 표현하였거나 외설의 가능성이 높은 삽화 및 사진을 대거 포함시킨 작품이나 도록은 수집에서 제외한다.

3.8 언어(700)

3.8.1 집서수준

- 언어는 언어학,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및 기타 아시아어, 영어, 독일어, 프랑

스어, 스페인어 및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기타 제어를 포괄한다. 언어 및 언어학 자료의 전반적인 집서수준을 3단계(학습교육지원수준)로 설정하며, 하위 주제에는 1~3단계를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 언어와 관련된 일반자료인 언어학, 언어사회학, 비교언어학, 방언학, 언어사 등을 기술한 각종 자료는 3단계(학습교육지원수준)로 설정한다.
- 한국어를 소개, 분석, 비교, 재해석 등의 측면에서 기술한 외국 자료는 유형과 매체를 불문하고 포괄적으로 수집하고, 한국어를 이해하거나 학습하기 위하여 외국어로 발간 또는 제작된 교재도 최대한 수집한다.
- 외국어로 된 단일어 사전, 2개 국어사전, 다국어사전, 전문용어사전은 국가나 지역을 불문하고 3단계(학습교육지원수준)로 수집하고 개정판이 발간되면 추가한다.
- 한자권 언어인 중국어와 일본어의 어원, 음운과 음성, 어휘, 사전, 문법, 작문, 독본과 회화, 방언 등을 다룬 단행본, 학술지, 연구보고서 등은 3단계(학습교육지원수준) 집서수준을 지향하고, 아시아 언어는 학자집단의 연구정보 지원보다 이주민의 다문화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선택적으로 수집한다.
- 외국어 중에서 영어자료는 3단계(학습교육지원수준), 독일어·프랑스어·스페인어 자료는 2단계(기본정보수준), 기타 언어는 1단계(최소수준)를 목표로 수집한다.

3.8.2 장서개발 세부지침

- 세계 각국의 말과 글을 통해 이해력과 논리력을 기르고 각국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한다.

- 언어는 언어학 일반과 주요 언어(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및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등) 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한다. 단, 국어 관련 자료는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 언어학, 언어사회학, 비교언어학, 방언학, 언어사 등을 기술한 각종 자료는 학술서를 중심으로 선별·수집한다.
- 외국어로 된 단일어사전, 2개 국어사전, 다국어사전, 전문용어사전은 국가나 지역을 불문하고 수집하고, 개정판에 유의한다.
- 특히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및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는 어원, 음운과 음성, 어휘, 사전, 문법, 작문, 독본과 회화, 방언 등을 다룬 단행본, 학술지, 연구보고서 등을 수집한다.
- 기타 아시아 언어는 학문적 연구 및 다문화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선택적 수집한다.
- 외국에서 한국어를 소개, 분석, 비교, 재해석한 자료는 그 유형과 매체를 불문하고 포괄적으로 수집한다.
- 한국어 학습 및 교육을 위한 자료, 외국인의 한국어 습득 및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적극 수집한다.
- 이용자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하고, 외국어에 친숙해질 수 있는 자료를 방대하게 수집하나 소모성 수험서, 학습참고서는 수집을 지양한다.

3.9 문학(800)

3.9.1 집서수준

- 문학은 한국문학, 중국문학, 일본문학 및 기타 아시아문학, 영미문학, 독일문학, 프랑스문학, 스페인 및 포르투갈문학, 이탈리아문학, 기타 제문학을 중심으로 수집한다.
- 전반적인 집서수준은 4단계(연구수준)로 설정하고 하위 주제에 따라 1~4단계를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 문학이론, 문장작법과 수사학, 문학사와 평론 등을 다룬 단행본, 학술지, 학위논문 등의 기본자료는 기술된 언어를 불문하고 3단계(학습교육지원수준)까지 수집한다. 다만 세계 및 각국의 문학전집은 영미,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엄선하여 수집한다.
- 각국의 문학작품은 노벨문학상을 비롯한 국제적 인지도와 신뢰성이 높은 수상작을 원작 언어 수집도 고려한다.
- 한국의 고대 및 현대 문학작품을 외국어로 번역한 자료, 외국에서 한국의 문학세계를 연구한 자료, 특정 작가의 작품세계를 분석 또는 비평한 자료는 5단계(포괄적수준)로 최대한 수집한다.

3.9.2 장서개발 세부지침

- 문학은 한국문학을 비롯한 중국 및 일본문학, 영미문학, 독일문학, 프랑스문학, 스페인 및 포르투갈문학, 이탈리아문학, 러시아문학 등을 중심으로 균형적으로 수집한다.

- 한국문학의 경우 고전에서부터 현대까지 입문서, 개설서, 전문서, 연구서 등 폭넓게 수집하고, 세계문학의 경우 각 시대나 지역에 치우침이 없이 골고루 수집한다.
- 문학의 기본자료(이론, 작법과 수사학, 문학사와 평론 등을 다룬 단행본, 학술지, 학위논문 등)는 최대한 수집한다.
- 문학전집은 영미,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엄선한다.
- 문학작품은 작가의 창작력이나 상상력을 기준으로 교육적 및 문학적 가치가 풍부하고 영구적 이용가능성이 있는 명작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 수상작 중에는 노벨문학상을 비롯한 국제적 인지도와 신뢰성이 높은 수상작을 집중적으로 수집한다.
- 외국어로 번역된 한국의 고대 및 현대 문학작품, 외국에서 한국의 문학계를 연구한 자료, 특정 작가의 작품세계를 분석 또는 비평한 자료는 최대한 수집한다.
- 한국 및 세계의 주요 문학가 전기는 고대와 현대를 막론하고 문학형식별로 최대한 수집한다.
- 인터넷 소설 및 판타지 소설 가운데 문단에서 인정받은 수상작을 제외한 작품과 선정성이 지나친 작품은 수집하지 않는다.

3.10 역사(900)

3.10.1 집서수준

- 역사는 아시아·유럽·아프리카·북미·남미·오세아니아·양극지방의 역사 및 세계 각국의 지리와 전기를 포괄한다. 역사류 전체의 집서 수준을 4단계(연구수준)로 설정하되, 하위 주제에 따라서는 1~4단계를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 역사철학, 역사보조학, 세계사 및 세계문화사, 전쟁사, 중요한 정치적 사건과 시사적 문제 등을 다룬 단행본, 학술지, 연구조사보고서, 각종 회색문헌을 3단계(학습교육지원수준)까지 수집한다.
- 주요 국가 및 강대국의 역사를 기술한 자료는 3단계(학습교육지원수준)까지 수집하되, 그 이전 역사자료 수집은 2단계(기본정보수준)를 지향한다.
- 19세기 중반 이후의 한국 역사를 다룬 자료, 특히 한국 내부 및 한국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과 동향을 취급한 자료, 한국, 중국, 일본 삼국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기술한 외국의 연구자료는 최대한 수집한다.
- 세계 각국의 지리, 국경과 영토, 여행안내서, 탐험기, 국립공원, 세계문화유산 등과 관련된 자료를 3단계(학습교육지원수준)까지 수집한다.

3.10.2 장서개발 세부지침

- 동·서양의 역사 및 문화에 관하여 학술적 가치와 사료를 실증적으로 분석·고증한 자료를 수집하되, 한국에 관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 세계사, 주요 국가의 역사, 지리, 전기 등을 포괄적으로 수집하되, 실증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 역사자료는 지역별·시대별·주제별 등의 분포, 전문서와 대중서의 구성 비율, 정사와 야사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집서의 균형성을 유지한다.
- 한국 역사자료는 지역별, 시대별, 주제별로 균형있게 수집한다.
- 역사철학, 역사보조학, 세계사 및 세계문화사, 전쟁사, 중요한 정치적 사건과 시사적 문제 등을 다룬 단행본, 학술지, 연구조사보고서, 각종 회색문헌을 수집한다.
- 주요 국가의 역사자료는 시대별로 폭넓게 수집한다. 역사서의 경우 최신 연구동향과 관점을 반영한 최근 자료를 선정한다.
- 분야별 시대별 인물에 관한 자료는 골고루 수집한다.
- 역사적 및 지정학적으로 밀접한 일본 및 중국의 역사자료를 최대한 수집한다.
- 세계 각국의 지리, 국경과 영토, 여행안내서, 탐험기, 국립공원, 세계문화유산 등과 관련한 자료는 엄선하여 수집한다. 특히, 국내외의 지리, 지도, 여행안내서는 최신판을 수집한다.
- 각국의 풍물 문화 지리 등에 대한 소개서 및 안내서는 골고루 수집한다.

4. 자료이관 · 보존 및 제적 · 폐기 지침

4.1 자료이관지침

4.1.1 기본원칙

-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의 부족한 수장 공간 확보 및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후대 보존을 도모하기 위해 부산지역 공공도서관과 행정기관의 귀중자료와 이관희망자료 등을 부산도서관 보존서고로 이관하여 통합 관리한다.
- 부산도서관 보존서고로의 자료이관을 통해 부산학 자료를 중점적으로 수집하고 자료를 이용(통합검색, 대출, 반납)함으로써 자료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시민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한다.

4.1.2 세부지침

1) 자료이관과 소유권

- 부산도서관 보존서고로의 이관 주기는 연 1-2회로 정한다. 다만, 귀중도서와 희귀서 및 긴급 처리가 필요한 경우, 보존서고 담당자와의 협의 후 수시 이관 신청이 가능하다.
- 이관하는 자료의 소유권과 서지데이터의 관리 권한은 부산도서관에 귀속된다.

2) 이관대상자료

- 부산도서관 보존서고에서는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자치구군, 교육청)과 행정기관(시·시의회·시교육청, 시 소속 공사·공단, 시 출자·출연 기관, 구·군 및 해당 기관 자료실 등)으로부터 자료를 이관받는다. 해당 자료는 복본조사 및 실물 확인 후 등록대상자료로 선별하여 부산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등록 여부를 심

의한 후 등록한다. 특히 특수자료의 경우 자료선정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선정·등록한다.

- 수집자료는 지역공공도서관의 이관희망자료 중 최대 2복본(보존1, 열람 1), 부산지역자료, 귀중자료(고서, 해방 전 자료, 출판 이후 50년 경과한 자료),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 이외 부산도서관이 구입한지 1년 경과한 자료 중 이용률이 저조한 자료도 보존서고로 이전한다.

3) 자료이관기준

- 부산지역자료와 귀중자료 이외 공공도서관에서 부산도서관 보존서고로 이관하는 자료는 발행일 기준으로 20년이 경과한 자료, 마지막으로 대출된 후 5년 경과한 자료, 새로운 판으로 대체된 자료, 학술적 가치가 있지만 오래되거나 다른 포맷으로 대체된 자료, 부산도서관에서 이관을 요청한 자료 등으로 한다.
 - 고서(한국 1910년, 중국 1911년, 일본 1867년 이전 간행(필사) 자료), 해방 전 자료, 출판 이후 50년 경과한 자료,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 등은 귀중자료로 별도 취급한다.
- 이상의 기준을 만족한 자료 중 물리적 상태가 좋은 사본을 보존서고로 이관하고 물리적 상태가 좋지 않은 자료는 공공도서관에서 자체 폐기하도록 한다. 곰팡이에 오염되거나 심하게 손상되지 않은 자료 즉, 물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 즉 '서비스 가능한 상태'의 자료를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귀중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단행본 총서·다권본·전집·연속간행물의 경우 누락된 이슈가 없는 완질의 상태로 이관하는 것 즉, '완결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 컬렉션에서 특정호가 누락되거나 물리적으로 손상되었을 경우, 다른 도서관을 통해 누락된 부

분을 보완하여 컬렉션의 완결성을 기한다.

4) 이관처리 절차

- 자료이관계획 알림(부산도서관) ⇨ 이관희망자료목록제출(이관기관) ⇨ 복본 조사 및 이송대상자료 선별·통지(부산도서관) ⇨ 자료이송(이관기관) ⇨ 자료 실물확인(부산도서관) ⇨ 도서관 운영위원회 자료 심의(부산도서관) ⇨ 물품 관리전환 합의서 제출(부산도서관, 이관기관) ⇨ 자료등록(부산도서관)

■ 이관절차

<목록 제출>

- 부산도서관에서 자료이관계획을 알리며, 공공도서관에서는 이관희망자료목록을 작성하여 파일을 부산도서관으로 제출한다.

<선별>

- 공공도서관에서 제출한 이관희망자료목록을 기준으로 부산도서관에서 복본조사 실시 후 이관대상자료를 선별하여 해당 도서관에 통지한다.

<심의>

- 이관대상자료로 선별된 자료는 부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자료 심의를 거쳐, 1종당 최대 2복본을 선정하여 보존용 1부, 열람용 1부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 동종의 자료가 다수의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될 경우, 이관신청을 실시한 순서에 따라 선 이관신청자료를 이관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 이관신청자료의 물리적 혹은 형태적인 상태가 우수하지 않을 경우 다른 도서관에서 이관 신청한 자료 중 상태가 좋은 자료로 대체한다.

<자료이관>

- 최종 이관 결정된 자료에 대해 물품관리전환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서지 DB를 구축한다.

<등록>

- 부산도서관에서 자료의 보존상태를 점검하여 보수 등의 과정을 거친 다음 소독처리하여 보존용 도서는 보존서고 2, 열람용 도서는 보존서고 1, 보존용 비

도서는 보존서고 3에 각각 비치한다. 비치된 자료의 소유권은 부산도서관으로 귀속한다.

<대체>

- 보존서고로 이관된 자료가 심하게 파손되거나 훼손되어 수선 등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한 다음, 해당 자료를 소장한 도서관으로부터 이관요청이 있을 경우 다시 이관받는다.

5) 자료정리

- 보존서고로 이관된 자료 중 유일자료는 보존용 서고(보존서고 2)에 입고하고 복본자료는 열람용 서고(보존서고 1)에 입고하여, 구분 가능한 별도의 라벨을 부착한 다음 등록번호순으로 배열한다. 보존서고 3-6은 향후 수장 능력을 초과할 경우 추가 사용한다.
- 귀중자료의 경우 훼손 방지를 위해 자료에 장비 작업을 별도로 하지 않고 서고와 서가에서 안내문으로 대체하며, 제작 국가별 혹은 제작 연도순으로 배가한다.
- 이관된 자료의 목록은 청구기호 등의 변경 없이 기존 MARC 데이터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등록번호와 별치기호의 부여, 이관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별도의 필드는 추가 생성한다.

6) 자료이용서비스

- 보존서고는 폐가제로 운영하며 이용자의 서가 출입을 제한한다. 열람용자료는 이용자가 자료검색·신청 후 담당자가 자료를 제공하는 대출과 열람 가능 방식을 적용하며, 보존용자료는 대출은 불가하며 연구의 목적으로 관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해 열람 가능 방식을 적용하며, 귀중자료는 대출은 불가하며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방식을 적용한다.

- 보존서고 자료의 열람 대상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대출은 부산시민에 한해서 허용한다.

7) 폐기

- 보존서고 내 자료는 원칙적으로 폐기하지 않는다. 단, 물리적인 손상·훼손 정도가 심하여 열람 등 이용이 불가능한 자료의 경우 단위도서관으로부터 복본을 이관받을 수 있을 경우에 한해 폐기를 허용한다. 만약 복본을 이관받을 수 없는 경우라도 보존 가치가 현저히 낮을 경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할 수 있다.

4.2 자료보존지침

4.2.1 기본원칙

- 부산도서관장서를 보존할 때는 통상적인 보존 활동인 계획수립, 정책 결정과 적용, 서고 환경 및 자료관리, 훼손자료의 보존·복원처리, 소독·탈산처리, 재제본, 매체변환, 수장 공간 확충을 위한 제적·폐기·재배치와 밀집배가 또는 자동서고시스템 도입 등의 모든 방법과 수단을 적용하여 완벽하게 보존한다.
- 부산도서관에서 소장하는 장서는 유형, 형태, 주제를 불문하고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지역 내 자료는 완전하게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다.
- 부산시 및 관련기관에서 발행한 행정자료(시정자료, 연감, 백서, 통계, 보고서, 세미나·회의자료, 전시도감, 확보집, 민속자료 등)는 디지털화를 통해 원문DB를 구축하여 온라인 접근·이용서비스를 제공한다.
- 형태서지 및 내용적 측면에서 보존의 중요성을 기준으로 실물(원형)보존, 내용보존을 원칙으로 하여 보존·복원처리, 소독·탈산처리, 매체변환 등을 통하여 완벽한 보존성을 지향하는 동시에 당대 및 미래의 접근과 이용을 보장한다.

- 일반자료보다 고서와 귀중서를 포함한 고문헌, 희귀서, 고가의 외국 학술자료에 보존관리의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이러한 자료는 영구 보존을 위하여 영인본 또는 대체매체로 제작한다.
 - 소급자료의 디지털화는 원본은 아니지만, 유일본인 자료, 파손이 심한 자료, 이용이 활발한 자료에 우선순위를 둔다.
- 동일한 자료에 대하여 일반자료와 온라인자료 등 여러 포맷을 동시에 소장하고 있을 때는 일반자료를 우선적으로 보존하되, 각각의 버전도 가능하면 병행 보존한다.
 - 소장자료 중 고저작물이나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자료 중에서 원형 보존의 필요성과 이용 요구가 공존하는 경우는 원형 보존을 우선하지만, 디지털화도 병행한다.
- 부산도서관은 원활하고 체계적인 자료 보존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국가문헌보존관, 국가기록원 그리고 타 지역대표도서관 등과의 보존 협력을 강화한다.

4.2.2 세부지침

1) 원형자료 보존관리지침

- 부산도서관은 적절한 환경관리(서고의 개보수, 적정 온습도의 유지, 재해대책), 인위적 훼손의 예방과 이용 교육, 훼손자료의 재제본과 복원, 종이매체의 자료 소독과 탈산처리, 영인·복사본 준비 등을 통하여 지역장서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관리한다.
- 최적의 보존서고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서서고, 비도서서고, 귀중본서고로 구분하여 온도·습도·공기오염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 소장자료의 보존상태를 점검하고 훼손 유형에 따라 물리적 및 화학적 보존·복

원처리(건·습식 세척, 배접, 재제본, 포갑, 보존 상자 제작, 탈산 등)를 실시한다. 보존·복원처리가 자관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국가 문헌보존관이나 국가기록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 각종 유해 미생물에 의한 훼손 예방적 측면에서 소장자료를 소독처리한다. 이 경우에 귀중서, 보존용 자료, 고문헌, 연도가 오래된 자료, 외부 기증자료 등을 우선적으로 소독한다.
- 귀중자료, 산성화된 자료, 저급종이를 사용한 자료의 황변화 현상을 막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산도(pH)를 측정하고, pH 5이하일 경우에는 탈산처리하고 재 측정하여 pH 7이하이면 재처리한다.
- 보존·복원처리는 다음의 3가지 원칙을 적용한다.
 - 비파괴: 원본자료를 존중하여 가능한 한 원본의 형태를 유지한다.
 - 가역성: 자료에 우수한 기술과 재료를 사용하여 복원하되 필요할 경우에 원형 상태로 되돌릴 수 있도록 처리한다.
 - 기록성: 원자료의 복원처리 과정 및 복원 전후의 기록을 남긴다.
- 신문자료의 경우, 보존 가치가 높은 1950년대 이전 자료는 귀중본으로 처리하여 보존서고 귀중본서고에 별도로 보존·관리한다.

2) 매체변환지침

- 자료의 원형 보존, 수장 공간의 절약, 원격 접근과 원활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본자료를 매체변환(종이 복제, 디지털화 등의 방식)하여 대체본을 확보하여 이용시키는 한편 원형자료를 보존 관리한다.
- 원본자료 매체변환의 대상에는 귀중서, 고문헌, 일반도서, 참고도서(사전과 명감, 지도자료, 서지자료 등), 연속간행물, 공공간행물, 학위논문, 신문자료, 클

리핑자료, 문서, 법령과 판례, 특허정보, 통계자료 등이 포함된다. 특히 국내외 부산 관련 주요자료의 확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자료를 조사, 선별하여 매체 변환 등을 통해 수집한다.

- 복본구입을 통한 대체 보존은 이용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훼손이 심한 자료, 망실된 자료 등을 대상으로 한다.
- 매체변환은 원본자료를 종이 복제, 디지털화 등의 방식으로 대체본을 제작함으로써 원본의 열화나 훼손을 차단하여 보존성을 높이는 한편 대체본을 통하여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매체변환에 따른 원본 손상을 최대한 방지하고 내용이 손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그리고 매체변환 자료 가운데 전자파일은 최신포맷(PDF/A)을 적용하여 주기적으로 변환한다.
- 종이 복제는 내용 보존과 접근 이용의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원형 보존보다 더 강조되는 일반자료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자료에 따라서는 시판의 영인본, 번각본, 재쇄판을 구입한다.
- 대체자료로 변환하는 자료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소장하고 있는 귀중서, 고문헌(원본 상태가 대출이 불가능한 자료 중 복원처리가 완료된 귀중자료를 우선적으로 변환한 후 대체 열람시킴)
 - 소장하고 있는 신문, 잡지 등의 연속간행물, 공공간행물 중 대체자료로 제작되지 않은 자료
 - 소장자료 중 외국 고서
- 그 외에도 해외 소재 한국 및 부산 관련 근현대 자료로 내용 및 형태서지적 측면에서 중요한 자료는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영인본을 구입하거나 매체변환을 실시한다. 이를 위한 수집 대상은 다음과 같다.
 - 한국 근현대사 연구에 필요한 1차 자료
 - 내용 및 형태서지적 측면에서 중요한 미소장 자료

- 외국의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 등 관련기관에 소장된 자료 중 인류의 지식문화 유산으로서 가치가 높은 자료
 - 원본 자료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수집이 시급한 자료
 - 기타 도서관장이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료
- 디지털 포맷의 대체자료 변환은 「저작권법」 상의 저작자 권리보호로부터 자유로운 자료와 다양한 매체로의 접근 이용에 대한 요구가 많은 자료(고문헌, 희귀서, 지도자료, 단명자료 중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것, 저작권 적용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자료)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3) 보존서고관리지침

- 부산도서관 장서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서고 출입 통제, 보안관리, 서고 내 시설관리 등의 조치를 취한다.
 - 잠금장치는 기계식 장치를 이용하여 개폐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허가된 직원의 출입과 관리를 위해 전자식 개폐장치를 기계식 장치에 추가하여 설치한다.
- 모든 서고 내에는 자기 온습도기(Sigma II Thermo-hygrograph) 또는 전자 온습도계를 설치하여 월 1회 정기적으로 측정 결과를 분석한다.
- 서고의 적정 온습도는 도서서고의 경우에는 온도 $20\pm 2^{\circ}\text{C}$ 와 상대습도 $50\pm 5\%$, 비도서서고의 경우에는 온도 $17\pm 2^{\circ}\text{C}$ 와 상대습도 $40\pm 5\%$ 를 유지한다.
- 서고 내 유해 미생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서고 소독을 실시한다. 더불어 서고 입고 전 소독처리 완료된 자료에 한해 입고한다.
- 각종 재난(지진, 화재, 홍수 등) 및 인위적 피해(전쟁, 도난 등)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난 대비 대책을 마련하고 예방시설을 갖춘다.

- 서고 출입은 서고 관리자만 가능하며, 이용자가 이용 신청한 자료에 한해 열람과 대출은 허용한다. 더불어 서고 출입 내역은 기록하여 관리한다.
- 귀중서 서고는 관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출입해야 하며, 귀중자료와 보존용 자료는 도서관장 승인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한다.

4.3 자료제적 · 폐기지침

4.3.1 기본원칙

- 부산도서관 장서의 제적과 폐기는 수장 공간의 확보, 이용자 접근의 개선, 관리비용의 절감 등의 측면에서 고려되는 장서관리 수단이므로 장서를 불가피하게 제적 또는 폐기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면 실물(또는 원형)보존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는다.
- 부산도서관은 부산지역 보존서고역할 수행을 위해 부산도서관 장서로 등록된 자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적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부산도서관 장서 중에서 납본자와 출판사의 제적 및 폐기 요청자료, 화재·전쟁 등의 천재지변으로 망실된 자료, 이용·복사에 따른 훼손자료, 다량의 복본자료, 기타 관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자료에 한하여 폐기할 수 있다.
- 부산도서관 장서의 관리 또는 이용과정에서 제적·폐기해야 할 경우에 디지털 아카이빙 등 매체변환 방식으로 대체자료를 확보한다. 이와 동시에 대상자료의 원본이 형태 서지적 측면에서 중요할 때는 원형 보존 및 복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

4.3.2 세부지침

- 부산도서관이 수집하는 장서는 제적·폐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1) 오 · 훼손자료

- 주요 부분이 파손되어 복원이 불가능한 자료
- 절취 또는 훼손되어 내용 가치 및 이용 가치를 상실한 자료
- 자료 보수가 어렵거나 보수비용이 구입비용보다 많은 자료

2) 소재불명 자료 및 장기 미회수 자료

- 장서점검 결과 소재불명도서 중 1년 이상 소재 확인이 안 되는 자료
- 회원의 해외 거주 또는 거주지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회수할 수 없는 자료
- 대출 반납 연체자료 중 반납촉촉 조치에도 불구하고 연체 기간이 1년 이상 경과되어 회수하지 못한 자료
- 이용자 부주의로 인한 분실 및 훼손자료 중 절판 등의 사유로 재구입이 불가능한 자료
- 천재지변(전쟁, 지진, 화재 등)과 이에 준하는 사태로 소실된 자료
- 폐기 결정된 자료의 부록은 원자료와 같이 처리한다.

3) 발행일 2년 경과한 연속간행물

- 자료 성격에 따라 소장자료로 등록하거나 행사 시 활용 또는 폐기할 수 있다.

4) 기타

- 납본자 및 출판사의 요청 또는 특별한 사유로 관장이 허락한 자료

5) 제적 · 폐기의 예외 기준

- 제적 및 폐기의 일반적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보존 및 연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학술자료, 질판자료, 한정판, 희귀본, 고서, 귀중서 등은 폐기하지 않을 수 있다.

5. 부산시 공공도서관 특성화 및 분담수서 방안

5.1 국내 공공도서관 특성화 사례

5.1.1 안양시와 수원시

- 안양시 도서관은 1999년부터 특화주제 장서를 지정하여 구축하고 있다. 정해진 주제에 대해서는 도서관별로 전체 장서의 10%를 구축해야 하는 내부 방침에 근거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도서관 사서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자료선정위원회가 있어 장서를 구입할 때 심의를 받는다.
- 안양시의 특화 장서 수집에 대한 원칙은 첫째, 안양도서관과 인근 타 도서관의 장서구성 비율을 살핀다. 둘째, 안양도서관과 인근 타 도서관의 자료이용비율을 살핀다. 셋째, 전년도 국내 도서발행 종수 비율을 살핀다. 이렇게 3개 항목의 평균비율을 구해 구입에 따른 장서유별 구성비를 산출하고 도서관별 특화장서의 기본비율로 적용한다.
- 수원시의 사례 역시 안양시와 유사하며 수원시의 8개 도서관에서 하나씩의 주제를 특화하여 수서를 한다. 그중 북수원도서관과 선경도서관은 예술(미술)과 역사(성곽, 화성)에 대한 각종 발간물, 학회지, 도록 등을 수집하고 있다. 수원 화성 인근에 있는 선경도서관은 지역적 특색에 따라 장서 주제가 결정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도서관은 홈페이지에서 특화주제에 대해 소장하고 있는 도서목록 등을 게시하고 있다.

<표 41> 안양시와 수원시의 도서관별 장서특화 현황

안양시	특성화분야	수원시	특성화분야
석수도서관	순수과학, 전자자료, 외국자료	선경도서관	역사(성곽)
만안도서관	기술과학, 논문, 학술지	서수원지식정보	문학(수상작품)
박달도서관	철학 및 어린이, 청소년	북수원지식정보	예술(미술)
평촌도서관	사회과학, 지역사회(향토)철학	중앙도서관	사회복지(노인복지)

안양시	특성화분야	수원시	특성화분야
호계도서관	논술, 취업, 창업	영통도서관	한국학·외국인
어린이	어린이	슬기샘어린이	천문·우주
		지혜샘어린이	환경·에너지
		바른샘어린이	멀티미디어

심효정, 이용훈, 박효주. 2009. 모든 도서관은 특별하다. p.85.

5.1.2 서울 강남구

- 12개 강남구립도서관은 도서관별 특성화 주제를 분담하고, 각 도서관은 매월 전체 장서에서 15% 이상의 특성화 장서를 구입한다.

<표 42> 강남 구립 공공도서관 특성화 주제 분담현황

no.	도서관명	특성화주제	분류(KDC)
1	논현도서관	생활과학(육아서집중)	590 생활과학
2	논현정보도서관	여행, 한국사, 중국사	900 역사
3	대치1작은도서관	인문교양, 철학	001 지식, 학문일반, 100 철학
4	삼성도서관	한국사, 궁궐 및 왕릉	900 역사
5	세곡도서관	수학, 생물과학	400 순수과학
6	역삼도서관	종교	200 종교
7	역삼푸른솔도서관	영어원서	700 언어
8	열린도서관	경제, 사회학, 교육학	300 사회과학
9	정다운도서관	영어	700 언어
10	즐거운도서관	미술사, 예술사	600 예술
11	청담도서관	아동서	전체
12	행복한도서관	가정생활, 건강	590 생활과학

출처: 제58회 전국도서관대회 2021년도 공공도서관 발전 및 운영 활성화 세미나(연구발표 1. 분담수서).

5.1.3 부천시와 군포시

- 부천시는 문화도시란 정체성을 표방하면서 경기도 최초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부천판타스틱국제영화제, 부천국제만화축제 등 문화 사업을 전개하며 문화·예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시의 정체성을 반영한 부천에 있는 도서관 특화 분야는 <표 43>과 같다.

<표 43> 부천시 도서관 장서특화 현황

도서관	특성화 주제	도서관	특성화 주제
부천시립중앙도서관	컴퓨터 과학	부천시립꿈빛도서관	아동 사회과학
부천시립북부도서관	예술	부천시동화기차어린이도서관	아동
부천시립심곡도서관	예술	부천만화정보센터	만화

심효정, 이용훈, 박효주. 2009. 모든 도서관은 특별하다. p.93.

- 군포시도서관은 특성화 장서뿐만 아니라 특화된 강의와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군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주제와 알찬 정보, 강연을 포함하는 특성화 주제는 덩동도서관 <노후준비>, 대야도서관 <도시농업> 그리고 부곡도서관 <함께 육아>이다. 군포시는 도서관 특성화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특화주제 분야의 전문가 초청 강연, 도서관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특화주제 관련 최신자료 제공 등을 실시하고 있다.

5.1.4 국내 대표도서관

- 지역대표도서관 중 주제별로 특성화 장서를 구축하여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서울도서관, 광주광역시립도서관,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의 3개 도서관의 특성화 현황은 <표 44>와 같다.
- 서울도서관의 서울기록문화관은 서울특별시의 기록과 정보를 시민과 공유하는 지식공간으로 서울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역사 공간으로 기록정보 전시, 주요 기록물 열람, 정보공개청구 상담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 산수도서관은 1998년 12월 문화관광부로부터 미술 분야 특화 도서관으로 지정되어 1999년 6월 미술자료실을 개관하고, 국내외 미술 자료와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 제공하여 목차 DB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등도서관은 한미 양국 상호협력과 이해 증진을 위한 아메리칸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 자료실을 운영하여 다문화 가족과 지역 주민에게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은 국제정보센터 설립을 통해 미국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대구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이해를 증진하고자 아메리칸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에 관한 전 주제분야의 도서와 미대사관 협력을 통한 미국 정보 안내 등을 제공하고 있다.

<표 44> 지역대표도서관 장서특성화 사례

도서관명		특성화	특징
서울도서관		서울자료	- 서울시의 각 실국본부에서 발행되는 연감, 백서, 보고서 등 간행물의 원문DB 제공 - 서울시 및 정부기관 발간물로 행정과 정책연구자료, 서울학 자료 및 각종 학회지 비치
광주 시 립	산수도서관	미술자료	예술, 조각, 서예 등 미술 주제별 장서 및 DB 서비스 제공
	무등도서관	아메리칸코너	미국에 관한 실제적인 정보를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함
		다문화자료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8개국 이상 국가에 관한 장서 구축 및 제공
		향토자료	광주 지역 향토자료를 원문DB 서비스 제공
	사직도서관	시문화	시문학, 동인지, 문학잡지 등 제공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아메리칸코너	미국에 관한 전주제분야의 도서, 미대사관 협력을 통한 미국정보 안내 등
		다문화자료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10개국 도서와 다문화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재 등을 제공

출처: 노영희, 신영지, 곽우정. 2017. 도서관의 특성화 정책과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8(3) p.248

5.2 부산시 공공도서관 특성화자료 분담주제관 현황

- 공공도서관은 특정한 주제를 다루는 전문도서관이 아니라 다양한 주제에 대한 균형 있는 장서 구축이 우선시 된다. 그 이후에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주제 분야에 대해 추가적인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다.
-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은 공간, 예산 등의 제약에 따라 한 도서관에서 모든 분야의 장서를 갖추 수 없으므로 지역 및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도서관별 특성화

주제를 선정하고 관련 도서를 집중적으로 수집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표 45> 부산시 공공도서관의 특성화주제 현황

운영 주체	no.	도서관명	특성화주제	비고
지자체	1	부산도서관	부산관련자료	지역대표
	2	강서도서관	농업	거점
	3	강서기적의도서관	육아	
	4	금정도서관	다문화	거점
	5	금샘도서관	청소년	
	6	남구도서관	청소년진로체험	거점
	7	분포도서관	평화	
	8	동구도서관	레저스포츠	거점
	9	동구어린이영어도서관	영어	
	10	다대도서관	다문화	거점
	11	동래읍성도서관	역사향토자료	거점
	12	안락누리도서관	어린이청소년자료	
	13	사상도서관	영어도서	거점
	14	수영구도서관	인문고전	거점
	15	수영구도서관망미분관	인문고전	
	16	수영구어린이도서관	어린이도서	
	17	영도도서관	해양수산	거점
	18	영도어린이영어도서관	어린이영어	
	19	연제도서관	유아어린이	거점
	20	정관도서관	육아 및 자녀교육	거점
	21	정관어린이도서관	유아 및 어린이	
	22	기장도서관	농업·원예·어르신	
	23	기장디지털도서관	정보화	
	24	대라다목적도서관	청소년	
	25	해운대인문학도서관	인문학	거점
	26	재송어린이도서관	유아·어린이	
	27	화명도서관	노인	
	28	만덕도서관	정보화	거점
교육청	1	시민도서관	고문헌·논문·다문화	
	2	중앙도서관	부산자료	거점
	3	구포도서관	유아·어린이	
	4	해운대도서관	어린이영어	
	5	해운대 우동분관	관광·여행	
	6	부전도서관	금융정보	
	7	반송도서관	사학·역사	
	8	구덕도서관	건강	거점
	9	서동도서관	환경	
	10	사하도서관	취업정보	
	11	연산도서관	해양·수산	
	12	명장도서관	전자자료	

- 2022년 기준 부산시 공공도서관은 총 51개관(교육청 14개관, 지역대표도서관 1개관, 지자체 34개관, 사립 2개관)이며, 이중 특성화자료를 취급하고 있는 도서관은 40개관이다.¹⁸⁾ 참여 현황을 운영주체별로 구분하면, 교육청 도서관 12개관, 지자체 도서관 28개관이다.
- 특성화주제 취급현황을 살펴보면, 교육청도서관 12개관은 특성화를 추진할 때 협의를 통해 1관 1특성화 주제라는 대원칙을 갖고 전략적으로 접근했기에 중복되는 주제가 없는 반면, 지자체소속 도서관들은 원칙 없이 개별도서관이 자체적으로 특성화를 추진하여 도서관 간 겹치는 주제가 많다. 지자체소속 도서관만을 대상으로 특성화 주제를 살펴보면, 어린이, 어린이영어, 유아, 육아 관련 주제가 총 9개 관으로 가장 많고, 청소년 4개관, 인문(고전) 3개관, 정보, 농업, 노인(어르신), 다문화 등의 주제는 2개 관이 같은 주제를 담당한다.
- 지자체소속 도서관 중 어린이, 어린이영어, 유아, 육아 관련 주제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9개 도서관의 특성을 보면, 연제도서관, 사상도서관, 정관도서관 3곳을 제외하면 6개 도서관(강서기적의도서관, 동구어린이영어도서관, 수영구어린이도서관, 영도어린이영어도서관, 정관어린이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은 모두 서비스와 장서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미 특화 도서관이다. 어린이도서관에서 유아·어린이, 육아 관련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하는 것을 특성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도서관의 목적과 서비스에 맞는 장서개발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지자체 소속도서관들을 대상으로 중복되는 주제를 정비하고, 건립할 때부터 서비스 타겟과 목적이 분명한 어린이도서관은 특성화 정책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18) 부산대표도서관 (2022). 지역도서관 분담수서
[https://library.busan.go.kr/busanlibrary/html.do?menu_idx=217]

5.3 부산시 공공도서관 특성화 정책 추진(안)

- 기존 지정된 분담주제를 이용자의 수요, 수집의 수월성 및 보존의 가치를 고려하여 검토가 요구되며, 검토를 통해 관련 주제를 분담하는 도서관을 축소 혹은 확대하는 방안과 수집 주제의 범위를 축소 및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특성화 주제를 취급하지 않는 도서관과 기존에 수집하고 있는 주제가 중복되는 도서관을 정비하여 부산시의 특성, 요구를 반영한 주제(영화, 해양, 물류 등) 혹은 4차산업혁명 시대와 연관된 주제 혹은 남북교류 협력 등과 관련된 주제를 배정할 수 있다.
- <표 46>은 특성화 주제를 취급하지 않는 11개 도서관에 관한 내용이다. 이중 지자체소속 도서관은 22년 4월에 개관한 기장군의 교리도서관을 포함하여 7개 관이고, 교육청 소속 분관 2곳, 사립도서관 2곳이다. 이들 도서관의 소장자료는 10만권 미만으로 비교적 적은 편이며, 자료구입비도 1억원 미만이다.

<표 46> 부산시 특성화주제 미지정 공공도서관 현황

(단위: 천원, 2021년기준)

주체	구	도서관명	장서현황	자료구입비*
지자체	강서구	지사도서관	도서 16,371권, 구독신문 5종	73,739
	기장군	고촌어울림도서관	도서 18,636권, 연속간행물 30종	36,388
		내리새라도서관	도서 17,231권, 연속간행물 28종	46,860
		교리도서관(22. 4월 개관)	-	-
	부산진구	진구어린이청소년도서관	도서 59,327권, 비도서 301점, 연속간행물 37종	60,000
	북구	금곡도서관	도서 64,110권, 비도서자료 597점, 연속간행물 60종	97,836
교육청	해운대구	반여도서관	도서 99,702권	44,440
	동구	중앙도서관수정분관	도서 87,284권, 비도서 12,833점	87,684
	부산진구	중앙도서관분관영어도서관	도서 58,217권, 비도서 11,086점	69,964
사립	북구	맨발동무도서관	도서 26,127권, 비도서 1,266점, 연간물 1,768권	12,171
	해운대구	느티나무도서관	-	2,000

자료: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libsta.go.kr), 도서관 홈페이지

- 부산의 모든 도서관이 특성화 주제를 지향할 이유는 없으므로 도서관의 시설, 장서, 인력 및 예산 등의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 부산시가 특성화장서 정책을 추진한다면 다음의 원칙을 고려할 수 있다.
 - 우선, 교육청 소속도서관의 분담주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1관 1주제 원칙에 따라 추진해온 경험을 존중하여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장서의 전문성과 역사성을 제고할 수 있다. 특색있는 장서구축은 오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
 - 둘째, 도서관중 어린이도서관, 분관, 사립 등의 도서관은 특성화 정책에서 제외한다. 이들 도서관은 목적과 서비스의 대상이 분명한 도서관으로 이미 도서관의 목적 자체가 특성화를 지향하는 도서관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51개 도서관 중에서 제외되는 도서관은 13개 관이다. 다만, 부산진구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으로 분류되지만, 부산진구의 거점도서관이므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표 47> 특성화 정책에서 제외하는 도서관(안)

운영주체	no.	도서관명	운영주체	no.	도서관명
지자체	1	강서기적의도서관	교육청	1	중앙도서관수정분관
	2	동구어린이영어도서관		2	중앙도서관분관영어도서관
	3	진구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립	1	맨발동무도서관
	4	수영구어린이도서관		2	드티나무도서관
	5	재송어린이도서관	*부산진구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이면서 부산진구의 거점도서관임 ¹⁹⁾ .		
	6	정관어린이도서관			
	7	영도어린이영어도서관			
	8	남구분포도서관			
	9	수영구도서관망미분관			

- 셋째, 구별 거점도서관을 중심으로 특성화 정책을 추진한다. 시 도서관정책의 협력파트너로서 구 단위에서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휘·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거점도서관은 다른 도서관과 비교했을 때 장서규모, 자료구입비 규모에서 비교적 우위에 있다.
- 넷째, 1관 1특성화 주제 원칙을 가져간다. 지자체도서관 내에서 중복되는 주

19) 부산진구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부산진구 내 도서관의 규모 및 인력 등 고려, 거점도서관 지정 재검토 등이 필요해 보임

제를 검토하여 정리하고, 부산시에 요구되는 주제 2~3개를 추가한다. 특히 육아, 유아·어린이, 유아·어린이 영어자료 등의 특성화는 부산의 어린이도서관, 어린이영어도서관 등이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부산도서관의 특성화 주제 분담도서관을 <표 48>과 같이 제안한다. 대표도서관인 부산도서관과 16개 구별 거점도서관 중 지자체 소속 도서관 14개 관 그리고 교육청 소속도서관 12개 관을 포함하여 총 26개 관을 대상으로 특성화 정책을 시행하는 안이다.
- 주제 선정의 원칙은 중복주제 배제, 유아·어린이 관련 (영어)자료 및 주제 배제 그리고 부산에 요구되는 주제 및 시대를 반영하는 주제의 추가 등이다.
 - 중복주제에 대한 검토 필요: 다문화 (금정도서관, 다대도서관), 해양수산(영도도서관, 연산도서관²⁰⁾)
 - 유아·어린이 관련 (영어)자료 및 주제 : 3곳(연제도서관, 사상도서관, 정관도서관) -> 3곳 모두 다른 주제 배정
 - 미추진 도서관: 1곳(부산진구어린이청소년도서관) - 추가로 주제 배정
- 특성화 주제의 변경(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유아·어린이 관련 (영어)자료 및 주제 3곳의 도서관 주제변경: 연제도서관 -> 평생학습, 사상도서관 -> 사회복지(노인), 정관도서관 -> 에너지
 - 미추진 도서관 부산진구어린이청소년도서관 주제 배정: 영화
 - 명장도서관 매체 중심에서 주제로 변경: 전자도서관-> 철학으로 변경
 - 주제 적용 범위 변경: 부산도서관(부산학 자료-> 부산학자료/외국자료), 동구도서관(레저스포츠 -> 관광), 시민도서관(고문헌, 논문, 다문화 -> 고문헌)

20) 지역도서관 대상 특성화 주제 재검토 공문 시달<도서관협력팀-1219(2022.7.29.)>->두 도서관 모두 중복주제이나 오랜 기간 다문화, 해양수산 자료를 수집해왔으므로 그대로 유지 통보

<표 48> 부산시 공공도서관의 특성화주제 분담주제관 제안(안)

운영 주체	구별	도서관명	특성화주제		비고
			기존	변경(안)	
지자체	부산시	부산도서관	부산관련자료	부산학자료/외국자료	변경
	동 구	동구도서관	레저스포츠	관광	변경
	영도구	영도도서관	해양수산	해양수산	유지
	부산진구	부산진구어청도서관	-	영화	추가
	동래구	동래읍성도서관	역사향토자료	동래역사	변경
	남 구	남구도서관	청소년진로체험	청소년	유지
	북 구	만덕도서관	정보화	정보화(AI)	유지
	해운대구	해운대인문학도서관	인문학	인문학	유지
	금정구	금정도서관	전통문화, 다문화	다문화	유지
	강서구	강서도서관	농업	농업	유지
	연제구	연제도서관	유아, 어린이	평생학습	변경
	수영구	수영구도서관	인문고전	인문고전	유지
	사상구	사상도서관	영어도서	사회복지(노인)	변경
	사하구	다대도서관	다문화	다문화	유지
	기장군	정관도서관	육아 및 자녀교육	에너지	변경
교육청	부산진구	시민도서관	고문헌·논문·다문화	고문헌	변경
		부전도서관	금융정보	금융정보	유지
	중 구	중앙도서관	부산자료	부산자료	"
	북 구	구포도서관	유아·어린이	유아·어린이	"
	해운대구	해운대도서관	어린이영어	어린이영어	"
		해운대 우동분관	관광·여행	관광·여행	"
		반송도서관	사학·역사	사학·역사	"
	서 구	구덕도서관	건강	건강	"
	금정구	서동도서관	환경	환경	"
	사하구	사하도서관	취업정보	취업정보	"
	연제구	연산도서관	해양수산	해양수산	"
	동래구	명장도서관	전자자료	철학	변경

5.4 부산시 공공도서관 분담수서(안)

- 도서관들은 장서에 관한 부족한 예산, 자료량의 증가, 가격 인상, 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도서관 간 상호협력 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료의 협동 수집, 보관, 정리, 교환 등의 형태로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 특히, 협력을 통한 분담수서는 출판량의 증가와 가격 인상으로 자료의 구매력

이 약해진 도서관들이 다양한 이용자의 정보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자 도서관 간 협력을 통해 자원공유 및 이용 가능한 자원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 분담수서를 통한 자원공유 사례는 고가의 학술저널 구독, 학술자료 확충이 요구되는 대학도서관에서 주로 도입·활용되어 왔다.
 - Farmington Plan: 1948년~1972년까지 실시, 학술연구를 위해 외국 자료를 주제별 또는 지역별로 도서관이 분담 수집
 - CADIST(Centre d'acquisition et de diffusion de l'Information scientifique et technique): 프랑스는 주요 학문 분야를 정하고, 주요 학문 분야에 관한 학술자료의 망라적 수집, 배포 및 정보제공 서비스에 대한 임무와 역할을 일부 대학도서관에 부여함
 - 외국학술지지원센터(Foreign Research Information Center: FRIC): 교육부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외국학술지(인쇄형)의 중복구독 배제 및 활용을 위한 학술지 분담수서를 통한 자원공유
 - 한국의학도서관협회(KMLA)의 MEDLISM(Medical Digital LIS): 회원기관 간 소장학술지를 활용하는 종합목록시스템, 원문제공서비스, 전자정보 구매 추진 등
- 분담수서는 자원공유를 동반하므로 이를 추진하려면 협력 기관 간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분담수서에 대한 필요성, 기대효과, 업무분석, 이용 등에 대한 인식이 우선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실행할 수 있다. 구매력이 강한 도서관과 상대적으로 약한 도서관 간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분담수서에 참여하는 도서관의 사서는 업무가 증가할 수 있고, 규모가 큰 도서관은 자관의 자료구입비로 타 도서관 이용자에게 서비스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분담수서에 참여하는 도서관에는 반드시 별도의 예산 지원과 인력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출판량의 증가, 자료 가격의 상승, 팬데믹 이후 도서관 자료구입비의 감소 등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 공공도서관 간 분담수서 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협의와 토대를 구축한

다음에 진행해야 한다.

- 부산시의 공공도서관 간 분담수서 및 자원공유는 장서 특성화 정책의 성과를 본 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특성화 장서의 구축 및 질적 제고를 위해 특성화 분담도서관을 대상으로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성과 평가를 통해 공공도서관 간 협력 장서개발 및 공유에 관한 가능성을 점진할 필요가 있다. 축적된 경험을 통해 분담수서 및 자원공유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고, 협력 단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 부산시에서 공공도서관 간 분담수서를 추진한다면 첫째, 장서개발 분담영역의 토대를 특성화주제에서 출발하여, 둘째, 예산, 직원 등 도서관의 규모가 안정적인 도서관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단계별로 확대·시행하고, 셋째 최종적으로 16개 거점도서관이 분담수서를 통한 장서개발을 함께 하는 것을 제안한다. 단계별 시행 내용과 참여도서관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표 49> 부산시 공공도서관 분담수서 단계별 실시(안)

단계	참여도서관	분담 내용
1단계 (~2024년)	부산도서관, 시민도서관	- 주제가 아닌 전자도서관 운영을 분담 - 부산도서관은 일반 시민대상 전자도서관 운영, 시민도서관은 학교 및 학생 대상 전자도서관 운영
2단계 (~2026년)	부산도서관, 시민도서관, 금정도서관 , 구포도서관	- 2개관이 추가되어 4개관이 특성화주제를 중심으로 장서개발 및 자원공유 시행 - 부산도서관과 시민도서관은 전자도서관 운영 및 주제별 장서개발 모두 참여
3단계 (~2028년)	부산도서관, 금정도서관, 시민도서관, 구포도서관, 중앙도서관 , 영도도서관	- 2개관이 추가되어 총 6개 도서관이 장서개발 및 자원공유 시행
4단계 (~2030년)	16개 거점도서관으로 확대	- 16개 거점도서관으로 확대하여 장서개발 및 자원공유 시행

- 특성화주제를 분담수서의 토대로 활용하지만, 특성화주제만을 대상으로 분담수서를 시행할 경우, 자료확보, 예산 절감, 자원공유 등의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 따라서 KDC를 기준으로 특성화 주제가 포함되는 강목 혹은 요목에 해당하는 주제까지를 분담수서의 영역으로 확대하면 그 효과가 커질 수 있다. 장서개발에 참여하는 도서관의 특성화 주제를 토대로 KDC 기준 분담주제를 <표 50>과 같이 제안한다.

<표 50> 부산시 공공도서관 분담수서를 위한 분담주제

단계			도서관명	특성화주제	분담수서(KDC 기준)
1	~2024년		부산도서관	부산학/외국자료	- 일반 시민대상 전자도서 - 020(문헌정보학),
			시민도서관	고문헌	- 학교 및 학생대상 전자도서 - 010(도서학, 서지학),
	2	~2026년	금정도서관	다문화	330(사회학, 사회문제), 379(특수교육)
			구포도서관	유아, 어린이	180(심리학), 590(생활과학)
~2028년	3		중앙도서관	부산자료	090(항토자료)
			영도도서관	해양·수산	529(수산업)
~2030년	4		구덕도서관	건강	510(의학)
			동구도서관	관광	690(오락, 스포츠)
			해운대인문학도서관	인문학	100(철학), 300(사회과학)
			부산진구어청도서관	영화(청소년)	680(공연예술, 매체예술)
			동래읍성도서관	동래역사	910(아시아 역사)
			남구도서관	청소년	334(사회문제), 338(사회복지),
			만덕도서관	정보화(AI)	004(컴퓨터과학), 005(프로그래밍, 프로그램, 데이터)
			다대도서관	다문화	379(특수교육)
			강서도서관	농업	520(농업)
			연제도서관	평생학습	370(교육)
			수영구도서관	인문, 고전	820-890(세계문학)
			사상도서관	사회복지(노인)	338(사회복지)
			정관도서관	에너지	320(경제학)

VI 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 이 연구의 목적은 부산도서관이 지역주민들의 종합지식정보센터이자 부산시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본질적, 사회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장서개발지침을 수립하는 것임
- 장서개발지침 수립을 위해
 - 첫째,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서울도서관, 충남도서관, 울산도서관, 경남대표도서관 등 국내 도서관과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공도서관, 미국 보스턴 공공도서관, 미국 뉴욕주립도서관, 캐나다 토론토 공공도서관, 영국 버밍엄도서관 등 해외 도서관의 장서개발지침을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 둘째, 국내외 공공도서관의 디지털자료 수집추이를 분석하고 국내 출판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 셋째, 부산도서관의 기본방향과 장서의 수집·이용·보존현황을 분석하여 기초

자료로 활용함

- 넷째, 부산도서관 장서개발 담당 실무자들과의 토의를 통해 장서개발지침에 대한 피드백을 확보하고, 도서관 및 출판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장서개발지침 수립에 필요한 내용 확보

■ 장서개발지침의 기본방향과 원칙에서는

- 첫째, 장서개발지침의 목적, 모형, 기본방향과 기본원칙을 제시
- 둘째, 장서개발의 대상은 크게 일반자료, 온라인자료, 특수범주자료로 구분

■ 장서개발의 방법으로는 납본, 구입, 기증, 국제교환, 매체변환, 이관 등을 제시함

■ 장서개발 기본지침은 수집방법별 지침, 자료유형별 지침, 주제별 지침, 자료이관·보존 및 제적·폐기 지침 그리고 부산시 공공도서관 특성화 및 분담수서 방안 등으로 나누어 제시

- 수집방법별 지침은 납본, 구입, 기증, 이관, 국제교환 등으로 구분
- 자료유형별 지침은 일반자료, 온라인자료, 특수범주자료, 어린이·청소년자료, 부산학자료 등으로 구분
- 주제별 지침은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등으로 구분
- 자료이관지침, 자료보존지침, 자료제적·폐기지침 등으로 구분
- 공공도서관 특성화 주제 분담은 부산도서관과 16개 구별 거점도서관 중 지자체소속 도서관 14개관, 교육청 소속 도서관 12개관을 포함하여 총 26개관을 대상으로 실시
- 공공도서관 분담수서 방안은 특성화주제에서 출발하여, 규모가 안정적인 도서관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단계별로 확대·시행하고, 최종적으로 16개 거점도서관이 분담수서를 통한 장서개발을 함께 실시

2. 결론

- 국외 도서관의 경우 실무지침 수준이 아닌 망라적인 수준의 장서개발정책이나 지침을 개발하여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내 도서관은 장서개발 정책이나 지침보다 실무지침 수준에 근거하여 장서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립중앙도서관 이외 장서개발의 기본원칙과 전략적 목표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부산도서관 장서개발지침은 부산도서관 직원에게 장서의 현황을 이해하고 향후 개발방향을 제시하며, 장서관리를 위한 실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도구가 되어야 함. 더불어, 신입직원 교육을 위한 매뉴얼로 활용하는 한편, 장서개발 계획을 대외에 알리는 정책홍보 자료로 간주해야 함
- 이에 장서개발지침 초안 작성 이후 검토와 보완 단계를 거쳐 최종안을 공식문서로 확정된 다음 부산도서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이후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작업을 거쳐 실질적으로 장서개발과정에 적용되는 도구가 되어야 함

< 참고문헌 >

[단행본/연구보고서]

- 경기도청. 2014. 『경기도 대표도서관 장서개발정책 및 운영방안 연구』. 경기도: 경기도청.
- 국립세종도서관. 2017. 『국립세종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수립 연구』. 세종: 국립세종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2009. 『국가장서개발정책 기본모형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2009. 『공공도서관 장서관리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2018.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2021.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대한출판문화협회. 2022. 『2021년 출판시장 통계』. 서울: 대한출판협회
- 문화체육관광부. 2008-2019.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2020 기준)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0년 기준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서울도서관. 2021. 『서울시 공공도서관 장서개발정책 모형』. 서울: 서울도서관.
- 서울특별시. 2019. 『서울시 장서개발정책 수립 연구』. 서울: 서울특별시.
- 서울도서관. 2018. 『지식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도서관 발전종합계획』. 서울: 서울도서관.
- 심효정, 이용훈, 박효주. 2009. 『모든 도서관은 특별하다』. 경기도: 경기도사이버도서관.
- 한국출판문화진흥원. 2022. 『2021년도 상반기 KPIPA 출판동향』. 서울: 한국출판문화진흥원
- IMLS. 2021. 『Public Library Survey: Fiscal Year 2019』. IMLS: Washington. DC.

[문서]

- “2020 울산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울산광역시: 울산도서관.
- “2021 서울도서관 운영 규정” 서울: 서울도서관.

“2021 충남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충청남도: 충남도서관.

“2022 경남대표도서관 장서관리 규정” 창원: 경남대표도서관.

“2022년 부산도서관 기증업무 추진 계획 [별지 제1호서식] 자료기증서”. 부산: 부산도서관.

“2022년도 부산도서관 장서확충 계획”. 부산: 부산도서관.

제58회 전국도서관대회 2021년도 공공도서관 발전 및 운영 활성화 세미나 (연구발표 1. 분담수서)

“부산시, 공공도서관 활성화 계획마련-자료실 위주 도서관 확충(개선), 도서중심 도서관 서비스 개편-”. 부산광역시 보도자료(2017.3.20.)

“부산도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1] 부산도서관 자료선정 기준”. 부산: 부산도서관.

[학술논문]

노영희, 신영지, 곽우정. 2017. 도서관의 특성화 정책과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8(3): 241-271.

박진희. 1998. 컨스펙터스방법을 이용한 장서평가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5(2): 163-191.

심연숙. 2019. 실감형 콘텐츠의 기술동향과 교육용 콘텐츠로의 적용 방안. 『문화기술의 융합』, 5(4): 315-320.

유정민, 서수연, 허송이, 최규리. 2021. 사회문제기반 과학-예술 융합교육을 위한 실감형 콘텐츠 개발.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2(12): 1959-1967.

윤희윤, 김종애, 오선경. 2020. 대도시 공공도서관 장서개발정책 분석과 제언. 『정보관리학회지』, 37(3): 51-74.

윤희윤, 장덕현. 2010. 국가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1(4): 107-122.

이란주. 2005. 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6(2): 203-224.

이진경, 이지연. 2011. 이용자 장서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공공도서관의 장서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3): 151-171.

장덕현. 2009. 전자자원 선정을 위한 컨스펙터스 수정 모형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2): 31-44.

장혜란, 홍현진, 노영희, 오의경. 2009. 국가장서개발정책 기본모형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4): 193-215.

[기관 홈페이지]

경남대표도서관 홈페이지 <https://lib.gyeongnam.go.kr/index.lib>

경남대표도서관 (2022). 도서관 운영규정, Available:

https://lib.gyeongnam.go.kr/index.lib?menuCd=DOM_000000207004000000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libsta.go.kr/>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aa.or.kr>

뉴욕주립도서관 홈페이지. 장서개발정책

<https://www.nysl.nysed.gov/library/policy/CollectionDevelopmentPolicy.pdf>

뉴사우스웨일스 주립 도서관 홈페이지 <https://www.sl.nsw.gov.au/>

대구시립 달성도서관. 도서관서비스현장 서비스 이행표준

https://library.daegu.go.kr/dalseong/html.do?menu_idx=90

매사추세츠 도서관 홈페이지 <https://mbic.state.ma.us/>

버밍엄도서관 홈페이지 <https://www.birmingham.gov.uk/libraryofbirmingham>

밴쿠버공공도서관 홈페이지 <https://www.vpl.ca/>

보스턴공공도서관 홈페이지 <https://www.bpl.org/>

부산대표도서관 (2022). 지역도서관 분담수서

https://library.busan.go.kr/busanlibrary/html.do?menu_idx=217

부산대표도서관.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https://library.busan.go.kr/busanlibrary/html.do?menu_idx=111

울산도서관 홈페이지 <https://library.ulsan.go.kr/>

샌디에이고 도서관 홈페이지 www.sandiego.gov

샌프란시스코 공공도서관 홈페이지 <https://sfpl.org/>

서울도서관 홈페이지 <https://lib.seoul.go.kr/>

시애틀 공공도서관 홈페이지 <https://www.spl.org/>

충남도서관 홈페이지 <https://library.chungnam.go.kr/>

토론토 공공도서관 홈페이지. 자료선정 정책

<https://www.torontopubliclibrary.ca/terms-of-use/library-policies/materials-selection-policy.jsp>

BOSTON PUBLIC LIBRARY (2013, January 8). BOSTON PUBLIC LIBRARY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Available:

https://www.bpl.org/wp-content/uploads/sites/30/2018/02/collection-dev_policy.pdf

Massachusetts Libraries (2020), MBLC Library Statistic, Available:

<https://mblc.state.ma.us/programs-and-support/library-statistics>

Public libraries survey. Fiscal Year 2019. supplementary tables.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 (2021.6)

San Francisco Public Library (2016, september 30). San Francisco Public Library Collection Development Plan, Available:

<https://sfpl.org/sites/default/files/pdf/about/policies/collection-development-plan.pdf>

San Francisco Public Library (2021, May 3). A Year in the Books, Available:

<https://sfpl.org/sites/default/files/2021-12/sfpl-annual-report-2020-21.pdf>

State Library of New South Wales (2021, June 29).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Available:https://www.sl.nsw.gov.au/sites/default/files/slnsw_collection_development_policy.pdf

The New York State Library (2009). The New York State Library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Available:

<https://www.nysl.nysed.gov/library/policy/CollectionDevelopmentPolicy.pdf>

The Seattle Public Library (2020), 2020 Impact Report, Available:

<https://www.spl.org/about-us/the-organization/budget-and-operations/annual-reports>

Toronto Public Library (2016). Materials Selection Policy. Available:
<https://www.torontopubliclibrary.ca/terms-of-use/library-policies/materials-selection-policy.jsp>

Vancouver Public Library (2021). ANNUAL STATISTICS 2020, Available:
<https://www.vpl.ca/sites/vpl/public/VPLAnnualStatistics2020.pdf>

부산지역 도서관 미래서비스 연구

연 구 주 관 : 부산광역시부산도서관

연 구 수 행 :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 강은영

공동연구원 : 김선애

발 행 처 : 부산광역시부산도서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310번길 33

Tel (051) 310-5400

Fax (051) 310-5429

홈페이지 library.busan.go.kr

발 행 일 : 2022년 8월 1일

I S B N : 979-11-975163-1-3

발간등록번호 : 52-6261662-000002-01